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 문화예술진흥추진 사업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주요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회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 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선진 생활문화 강연회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2005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 효문화관광대학 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교육
-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및 탐사단 교육 • 작가와의 만남(이순원, 한승원, 고재종, 곽재구 시인 등)

문화교실

- 다도강좌 • 서예강좌 • 외국어 회화 강좌 • 외국인 문화예술 강좌 등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향토자료 조사 • 내고장 곡성 발간 • 어린이신문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곡성역 관광안내도 제작

향토사료 발간

- 곡성의 세시풍속 • 곡성의 문화재 • 월파집 • 청계동사 • 곡성누정록 • 국역 조선환어승람 곡성편
- 충정공 마천목장군 • 곡성실록(조선왕조실록 곡성편) • 사찬 곡성군지 • 곡성의 지리지 • 곡성방목
- 이외 20여종 발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 문화 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후회 써주기 • 전통차 보급 및 시음회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CONTENTS

- 04 곡성의 사료 고려사지리지에 나타난 곡성
 - 05 곡성의 지명유래 오곡면
 - 06 곡성의 유적 谷城郡의 佛敎遺蹟「谷城邑」_ 國立光州博物館
 - 08 祖上의 일이 담긴 忠·孝·烈 碑文集「谷城郡」
 - 11 谷城郡 文化遺蹟 學術調查 _ 전남대학교 박물관 / 전라남도·곡성군
 - 12 곡성의 유적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의 민속 _ 나경수(전남대학교 교수)
 - 19 곡성지역의 독립운동 독립유공자 공훈록
 - 26 전래민요 곡성군 오곡면 압록마을의 닥밭 매는 노래 _ 이옥희(동신대학교 강사)
 - 29 문학속의 곡성 곡성 In 詩 _ 오소후(전남과학대 외래교수)
 - 36 곡성의 문학 아비의 잠 _ 이순원(소설가)
 - 38 한시 _ 정득재(전남과학대학 도서관장)
 - 40 수필 어린 조카의 죽음과 시의 출발 _ 조태일(시인)
 - 42 기행문 북경을 돌아보고 _ 류승표
 - 43 2005 곡성문화원 복권기금지원사업 문화 역사 체험 보고서
-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대탐사를 다녀와서
- 51 문학의 향기
 - 63 제6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 공모전 수상작

고려사지리지에 나타난 곡성

전라도 / 나주목(羅州牧) / 곡성군

곡성군(谷城郡). 본래 백제의 옥내군(欲乃郡)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고 고려(高麗) 초에 승평군(昇平郡)의 속군(屬郡)이 되었다가 뒤에 내속(來屬)하여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별호(別號)를 옥천(浴川)이라 한다.

全羅道 / 羅州牧 / 谷城郡

谷城郡, 本百濟欲乃郡, 新羅景德王, 改今名, 高麗初, 爲昇平郡屬郡, 後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別號浴川.

지리 / 전라도 / 보성군(寶城郡) / 옥과현

옥과현(玉果縣). 본래 백제의 과지현(果支縣)【과해(果兮)라고도 함.】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추성군(秋成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高麗) 초에 내속(來屬)하여 명종(明宗) 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소내오도(小乃烏島)대내조도(大乃烏島)절음도(折音島)가 있다.

地理 / 全羅道 / 寶城郡 / 玉果縣

玉果縣, 本百濟果支縣【一云果兮】新羅景德王, 改今名, 爲秋成郡領縣, 高麗初,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有小乃烏島, 折音島.

오곡면

오지(梧枝) 마을

마을안과 주위에 산재한 고인돌(dolmen)의 분포와 구성제 북쪽 금성산 소재 마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산성(古山城)의 유적으로 미루어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며 지금도 "옷갓마을"로 속칭되는데 마을의 형세가 옷(衣)과 갓(冠) 산형지세(山形地勢)에 연유한다고도 하고 의관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반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매년 정월 초이틀에 마을의 풍요와 재액을 물리치고자 당산제를 지내오고 있다.

덕산(德山) 마을

山 밑에 있는 마을이라 "매밑에", "뫼미테" 또 금천변 양지 쪽이라 하여 "양지뜸", 덕암서원 및 완계정사가 있는 서당골이라해서 "서우네"로 호칭되어 오다 1914년 세마음을 병합하여 천덕산(天德山)에서 덕산(德山)이라 취명하여 오늘에 이른다

침곡(寢谷) 마을

유씨종산(柳氏宗山) 에 묘를 쓰던중 침혈(寢穴)의 명당이 나타나 침실(寢室)이라 하였는데 1914년 침곡이라 하였으며 일제때 산림자원 운반을 위해 침곡역이 있었으나 1945년 광복과 함께 폐역되고 금은을 채광한 광산이 근년까지 존속되어 오다 현재는 휴광상태이다.

송정(松亭) 마을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도산천(挑散川) 가에 소나무 정자가 있어 경치가 빼어나므로 "솔정자"의 "소정", "쇠정" 하다가 1914년 松亭이라 하였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만고효녀인 「심청」의 고장이라고 구전되어오던 이야기를 수집, 이의 학술적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2000년 11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곡성출신 실존인물 효녀 「심청」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효녀심청이 실존인물로 우리고장 출신임을 널리 알렸으며 심청생가 및 마을복원 등 「효녀심청」 효문화 선양사업(孝文化宣揚事業)과 관광개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봉조(鳳鳥)마을

- 서봉(棲鳳)마을

풍수설의 비봉포란혈(飛鳳抱卵穴)에 따라 봉이 깃들인다는 뜻으로 서봉이라 불리우고 또 말골마을이라고도 하는데 곰방산의 "良馬赴賊"의 명당설을 쫓아 말(馬)골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 현조(玄鳥)마을

330년전 순흥안씨(順興安氏) 선산에 묘를 쓰던중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아있었다는 전설에 따라 검은골 즉 현조동(玄鳥洞)이라 불렀다 하며 서봉 마을과 병합 봉조리 2구라 하다가 지금은 현조리라 한다.

압록(鴨綠)마을

약 900년전 섬진강과 보성강의 푸른 물이 합류(合流)하는곳이라 하여 합록(合綠)으로 부르다가 400여년전 마을이 형성되면서 천어(川魚)가 많은 곳이라 오리과의 철새들이 많이 날아 드는 것을 보고 합(合)을 압(鴨)이라 대치(代置)하여 압록(鴨綠)이라 기명(記名) 했다 한다. 빼어난 경치는 지금도 널리 알려져 "어름철강변축제" "섬진강기차마을계획"등 깨끗하고 활기찬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 힘을 합하고 있다.

승법(承法)마을

조선시대 중엽 대흥수로 오지리(大里)가 폐허가 됐을 때 이주하였다 하며 당시 법당(法堂)이 있었기에 승법리라 하였으며 절 유적은 소멸되었고 1960년대까지 도기굽는 가마와 "점촌"이 있었으나 폐촌되었다.

명산(明山)마을

1846년경 우곡면 초동리(牛谷面 草洞里)였으나 풍수지리비결에 와우혈(臥牛穴) 인 이곳에 터를 잡고 명산(鳴山)이라 했다가 통명산 아래의 마을이라하여 명산리라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성(龜城)마을

- 쌍구(雙龜)마을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마을터가 쌍구혈(雙龜穴)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구성저수지였 금성산 줄기에 양질의 고령토가 매장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청자, 백자, 분청사기등을 굽는 가마터와 많은 양의 도자기편들이 발견되었으며 점터, 독골, 사기점 등 유적(遺址) 가 보이고 있다.

- 장성동(長城洞)마을

마을뒤로 우곡성(牛谷城) 이라는 고성지(古城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장승이 서있는 벽수거리여서 장승백이, 장승물, 장선동, 장성동 으로 구전된것이라고도 하며 쌍구동과 장성동이 합병되어 구성리로 개칭되었다.

미산(彌山) 마을

- 산수동(山水洞) 마을 (미산3구)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마을뒷산이 쥐(鼠)혈이어서 산서동(山鼠洞)이라 하던 것을 산자수명(山戴水明)한 곳이라 산수동으로 고쳐 불렀다한다. 마을 앞에 약 2m의 미륵을 담은 선돌(立石)이 있어 옛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여인들이 이 돌미륵(彌勒)에 100일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온다.

- 미륵동(彌勒洞) 마을(미산3구)

마을주변에 절이 많아 미륵(彌勒)굴이라 불리워졌다하며 1801년 신유교난(辛酉敎難) 후 경상, 충청도의 천주교도들이 피신해 와서 옹기그릇을 구우며 살았다는데 폐촌되었고 근래에 조선시대 16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편과 가마터가 발견되었고 도자기 태토를 얻는 대형 수비정으로 보이는 석축 구조물도 있다.

谷城郡의 佛敎遺蹟 『谷城邑』 國立光州博物館

高麗末 倭寇의 침입으로 읍을 현재의 竹谷面 堂洞里에서 지금의 읍내리로 옮겼다. 원래는 道上面이라 했으며, 校村, 楮田, 新坪, 邑內, 英雲, 栗亭, 新基, 防竹, 月坪, 新興, 舊院, 舊中의 12개 리를 관할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曳山面의 東幕, 馬坪, 東山, 新里, 長善, 津村, 新基, 鶴林의 8개 리와 牛谷面의 描田里를 통합하면서 '곡성면'이라 칭했다. 1972년 7월 1일 오곡면 묘천리를 편입하였고, 1979년 5월 1일 읍으로 승격되었다.

읍의 서쪽으로는 동악산과 형제봉이 솟아있어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곡성천과 묘천이 동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道界를 이루며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순자강 유역 구릉에는 토지가 비옥하며 비교적 넓은 평야가 조성되어 있다. 동쪽은 순자(섬진)강 건너 고달면, 남쪽은 오곡면과 삼기면, 서쪽은 입면,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면과 금지면이다.

新基里 폐사지(法堂寺址)

가. 유적환경(도면 40, 도면 41)

곡성읍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17번 도로를 따라 2km쯤 가면 신기리를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도로의 우측편으로 빠져 신기교를 건너 보이는 마을이 곡성읍 신기리이다.

신기리는 곡성읍의 동북쪽으로 서쪽은 비교적 높은 산지이며, 동쪽은 야트막한 야산과 너른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신기리에서 우측편으로는 鶴亭里가 있으며 서산아래에는 유촌과 새터라 불리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있다.(도면40)

법당사지는 신기리 2구에서 도가지골을 지나 약 1km쯤 산길을 따라 오르면 마을 뒤편의 서산 자락의 남동사면에 위치한 절터에 이른다. 마을주민들은 이곳을 가리켜 '법당짓골', '불당골' 혹은 '법당사지'라 부르고

있다. 일찍부터 절터가 있었다고 하나 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절터는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져 사역의 범위 및 유구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남북 방향으로 높이 2m내외의 축대가 20m 정도 남아 있다.(도면41)

건물지는 자연경사면에 공간확보를 위해 축대를 쌓고 축대의 방향으로 보아 동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지의 중앙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는데 근래에 시멘트로 만든 床石을 놓았다. 상석의 측면에는 '丁士梁 將軍之墓'라고 적어 놓았다. (도면41) 축대의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파상문이 시문 된 기와편을 비롯하여 분청사기접시와 瓶片 등이 수습되었다.

나. 수습유물

① 암기와 편(사진 237·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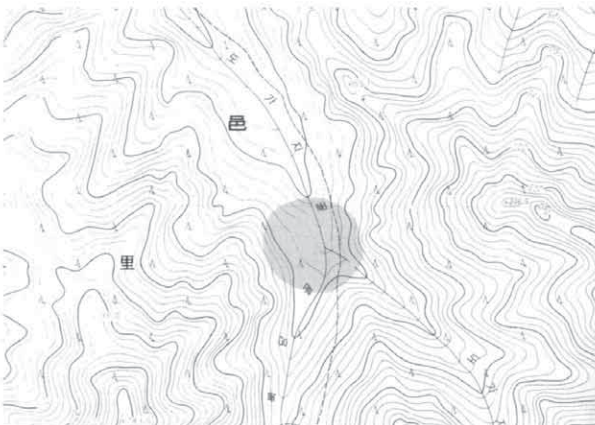
경질 암기와 편으로 외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외면의 일부는 자연유가 흘렀으며 절단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瓦刀로 1/2정도 대각선으로 절단한 후 부러뜨렸다. 내면에는 포목흔적이 있으며 가로로 2줄의 외통을 엮은 흔적이 있다. 태토는 정선하였으며 회청색이다. 현재 길이는 12.4cm이고, 두께는 2.4cm이다.

② 수기와 편(사진 237·238)

연질 수기와 편으로 외면에는 문양이 시문되어 있지 않다. 절단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로 1/3정도 절단한 후 부러뜨렸다. 내면에는 포목흔적과 세로로 눈테부착 흔적이 있다. 태토는 정선하였으며 황갈색이다. 현재 길이는 16.8cm이고, 두께는 2.2cm이다.

③ 분청사기접시 편(사진 237·238)

분청사기귀알문접시 저부 편으로 굽은 낮고 직립하였다.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며 귀알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사립이



도면 40. 신기리 폐사지 위치도



도면 41. 신기리 폐사지 수습유물

약간 섞여 있다. 유약은 회녹색을 띠며 굽 안바닥과 기벽 저부 일부에는 입혀져 있지 않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내화토모래빛을 받침이 있다. 현재높이는 2.0cm이며, 굽지름은 4.8cm이다.

④ 분청사기종지 편(사진 237·238)

분청사기인화문종지 저부 편이다. 굽은 낮은 죽절굽이다. 내저면이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중심과 가장자리에 국화문이 인화되어 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사립과 기공이 있다. 유약은 황갈색을 띠고 광택이 없으며 굽 안바닥과 굽 일부에는 입혀져 있지 않다. 현재 높이는 1.9cm이며, 굽지름은 4.6cm이다.

⑤ 분청사기접시 편(사진 237·238)

반파 된 분청사기접시 편이다. 굽은 내경하였으며 접지면목이 좁다. 측선은 저부에 굽 각음으로 인한 각이 저 있으며 구연까지 사직선을 이룬다. 내저면은 중심에서 구연까지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사립과 기공이 섞여 있다. 유약은 탁한 회녹색을 띠며 굽 안바닥과 굽 일부에는 입혀져 있지 않다. 내저면에 태토빛을 받침 흔적이 있다. 높이는 3.4cm이며, 입지름은 13.4cm이고, 굽지름은 5.0cm이다.

⑥ 백자대접 편(사진 237·238)

백자대접의 저부 편이다. 굽은 높고 내경하였으며 굽안바닥이 아교 오목하게 깎여 있다. 내저면이 넓고 편평하고 가장자리에 원각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을 띠며 치밀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고 두껍게 입혀져 있어 탁하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굽은모래 받침이 남아 있다. 현재높이는 3.9cm이며, 굽지름은 6.0cm이다.

⑦ 분청사기대접 편(사진 237·238)

분청사기대접 저부 편이다. 굽이 낮고 직립하였으며 접지면목이 좁다. 측선이 저부에서부터 둥글게 벌어져 오르며 물레성형 흔적이 남아 있다. 내저면 역시 곡면을 이루며 물레성형 흔적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사립과 철반점이 많이 섞여 있다. 유약은 탁한 회갈색을 띠며 빙열이 있고 굽 안바닥과 굽 일부에는 유약이 입혀져 있지 않다. 내저면에는 태토빛을받침이, 굽 접지면에는 굽은모래 받침 흔적이 있다. 현재높이는 4.1cm이며, 굽지름은 5.2cm이다.

⑧ 분청사기 병 편(사진 237·238)

분청사기인화문병 동체부 편으로 승륜문이 인화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레성형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회흑색으로 사립이 약간 섞여 있으나 치밀하다. 유약은 탁한 회갈색을 띠며 내외면에 모두 입혀져 있다. 현재길이는 3.4cm이고, 두께는 0.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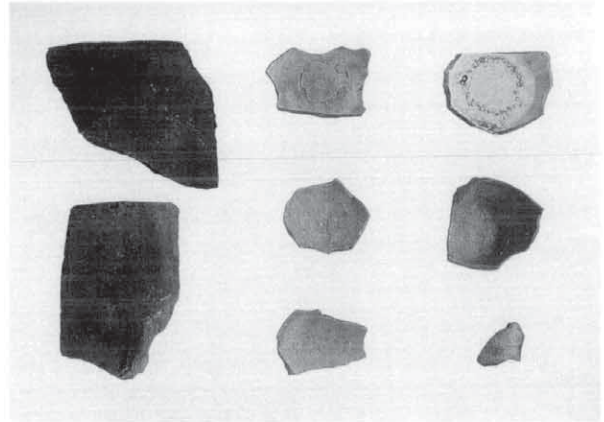


사진 237. 신기리 폐사지 수습유물(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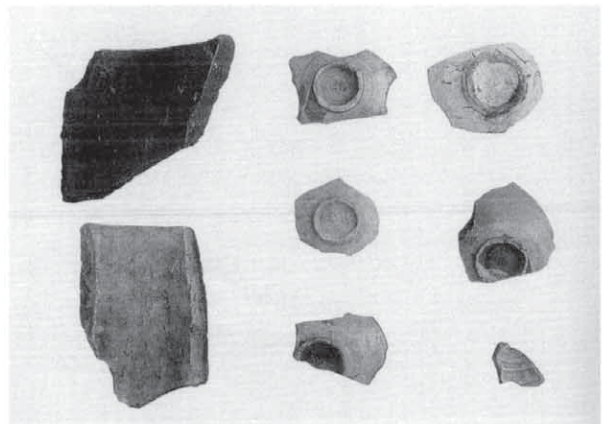


사진 238. 신기리 폐사지 수습유물(뒷면)

祖上의 일이 담긴 忠.孝.烈 碑文集 「谷城郡」

忠 臣 成 均 館 學 諭 柳 彭 老
烈 婦 妻 淑 夫 人 金 氏 之 閭



所在地：玉果面 合江里

管里者：文化柳氏門中 (전남문화재 자료 제 25호)

撰 者：大匡輔國 崇祿大夫-缺-春秋館事世子-缺-

規 模：정면 2칸, 측면 1칸, 맞배지붕 瓦家

忠臣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任卽成均館學諭柳彭老之閭

烈婦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任卽成均館學諭柳彭老妻淑夫人金氏之閭

三綱門₁₎記

古昔明主之獎節義也或爲之旌閭-缺-臣孝子烈女而然矣然而-缺-三綱俱成乎故學諭柳君彭老卽-缺-佐理功臣安襄公諱洙玄孫-缺-諱季孫之曾孫海州牧使諱栽之-缺-之子也天性淳厚事親克孝定省-缺-中禮而當居憂也廬于墓側朝夕-缺-衰麻在身終制如一日此人所難-缺-上傳教曰孝子之門必有忠臣則-缺-其爲國家長遠慮矣卽招爲成均-缺-朔之間也承上命五日凡三進䟽-缺-人之所沮矣然而獨吾與成浩源-缺-人知之矣未久倭賊大舉水陸并-缺-吸之間則此所謂板蕩而識事者-缺-此時人皆以身全之計獨柳君-缺-倅請機械穆糧曰今日有城-缺-今遂傳檄道內旬月之間聚五-缺-日益遂與參議高而順合勢-缺-與防禦使郭嶸兵馬左右翼先-缺-敗入下敢出我師亦持蒲-缺-逆之防禦軍望風先潰義庫-缺-士相失柳君潰圍南出問其-缺-馬僕擁馬不從拔鈐斬臂又-缺-男真忠奴也以我之死告于-缺-左右數百級而尋得大將大-缺-馳出柳君曰願同生死以從-缺-駢首而死時年二十九其堂-缺-烈士無以加此矣當時各-缺-名曰舉義當如此人云其-缺-竟以致死可見其教又行-缺-特命三綱門表以揚之實天-缺-繼子寢郎菖甫請余爲-缺-之交曹時聞知云故略敘-缺-

大匡輔國 崇祿大夫-缺-春秋館事世子-缺-

譯

충신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행승임증성균관학유유팽로지려

열부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행승임증성균관학유유팽로처숙부인김씨지려

삼강문 기(三綱門 記)

옛날 명왕(明王)이 절의(節義)를 장려할 때에 혹 위하여 정려(旌閭)를 해주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충신, 효자, 열녀가 되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난 선조 임진 왜란」에 이 삼강(三綱)이 모두 고 학유 유균평로(故 學諭 柳君彭老)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군은 바로 좌리공신(佐理功臣) 안양공(安襄公) 휘(諱) 수(洙) 현손(玄孫)이요, 「」 휘(諱) 계손(季孫)의 종손이요, 해주목사(海州牧使) 휘(諱) 재지(栽之)의 「」이요, 「경안(景顔)」

의 재(子)이다. 천성이 순후하여 아버지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였으니 훈정신성(昏定晨省)과 「졸입에 고면(告面)」을 예절에 맞게 하고 상(喪)을 당해서는 묘소의 곁에 막을 짓고 조석으로 「곡하고 참배를 했으며」 상복이 언제나 몸에 있어 복제를 마칠 때까지 하루와 같았다.

이는 사람의 어려운 바에는 「군이 능히 하였으므로 수령과 방백이 천거를 하여 조정에 알려졌다」 그래서 상(上)이 전교하시기를 "효자의 문에 반드시 충신이 있는 것이니, 「그를 등용토록 하라」 하셨으니 그 국가를 위하여 멀리 생각하셨음을 알수가 있다.

즉시 불러다가 성균관 「학유(學諭)를 삼았으니」 개월의 사이였다. 상명(上命)을 받으니 5일만에 무릇 세 번을 상소했으나 「번번히」 사람의 저지한 바가 되었다. 그러나 오직 나와 성호원(成浩源)등 「몇」사람은 그를 알았다.

오래지 않아 왜적이 대거하여 수륙으로 병진을 하여 「서울까지 드리닥침이」 호흡의 사이에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판탕(板蕩) 이요, 사태를 아는 자는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에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몸만 온전히 할 계책을 세웠는데 홀로 유군(柳君)은 「고을의 수령을 찾아가」 무기와 군량을 요청하며 "오늘 성이 있어도 「군사가 없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드디어 도내(道內)에 격문(檄文)을 돌리니 순월(旬月)의 안에 군사 500명이 모여졌다. 그리고 따르는 자가 날로 더하거늘 드디어 참의 고이순(參議 高而順)으로 더불어 합세를 했다. 「그리고 방어사(防禦使) 곽영(郭榮)의 병마(兵馬)와 좌우익이 되었는데, 먼저 「나이란 군사가」 패하여 감히 나오지를 못하고 우리 군사도 활을 당기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왜군이 조총을 쏘며」 맞자 방어군이 형세를 바라보고 무너지고 의병들도 서로 항을 잃어버렸다. 유군이 모위를 뚫고 남으로 나와 「그 장수의 있는 바를 물었으나」 말을 모는 종이 말앞을 막고 따라가지 않거늘 칼을 빼어 팔뚝을 끊어 버렸다. 그러자 또 「원팔로 고삐를 잡거늘 유군이 탄식을 하며 "너는 참으로 남자요, 참으로 충노(忠奴)다. 나의 죽음으로써 「집에 고하라」 하고, 「칼을 휘둘러」 좌우에 수백급(數百級)을 베고 「대장을 찾으니 대장이 유군에게 나를 버리고」 달려 나가라 했으나 유군이 말하기를 "원컨대 사나, 죽으나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보호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나란히 하여 죽으니 이때에 나이가 29세였다. 그 「당당한 의기는 비록 옛」 열사라도 이보다 더 할 수가 없다. 당시에 각 「처에서 군의」 이름을 듣고 말하기를 「거의(舉義)는 마땅히 이 사람같이 해야한다.」 했다한다.

그 「부인도 군의 죽음을 듣고 비통해한 나머지」 결국은 죽었다하니 그 교(敎)가 또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사실이 알려지자」 특명을 내려 삼강문(三綱門)을 세우게하고 표창하니 실로 「천포(天褒)가 유감이 없다.」

계자(繼子)인 침랑(寢郎) 담이 나에게 「정려기(旌閔記)를 지어달라고」 청하면서 「내가 그 선인(先人)과 봉위의」 교의가 있었던 말을 일찍이 들었다고 하므로 대략 「그 사행(事行)을」 서술해주는 바이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춘추관사 세자

(大匡輔國 崇祿大夫 缺 春秋館事世子 缺)

註. 현재 삼강문의 내용은 현판이 마모되고 특히 1/3정도, 파손되 정확한 서술은 알수 없으나 앞뒤의 문맥과 기타 저서들의 내용을 살펴 유추해 번역한 것이다.

번역 내용중 「」부분이 유실된 곳이다.

1) 삼강문(三綱門) : 충(忠), 효(孝), 열(烈)의 삼강(三綱)을 지켜 선행을 쌓은 자에게 예조(禮曹)에서 내린 기념문.

2) 고이순(高而順) : 고경명(高敬明)을 일컬음. 중종 28년인 1533년에 태어나 선조 25년인 1592년에 출한 장흥(長興) 고씨로 명종 7년인 1552년의 진사(進士)와 1558년의 식년문과(式年文科)를 거쳐 호조좌랑(戶曹坐郞), 전적(典籍), 정언(正言)등의 벼슬을 하였고 이어 사가독서(賜暇讀書)와 서장관(書狀官), 승문원판교(承文院判校), 동래부사(東萊府使)등의 벼슬에 올랐으며 임진왜란시 유평로와 더불어 의병(義兵) 6천 여명을 모집. 왜적과 싸워 충렬(忠烈)의 시호를 받은 당시의 의병장임.

谷城郡 文化遺蹟 學術調查

전남대학교 박물관 / 전라남도 · 곡성군



柳彭老·저 원주김씨 旌烈閣(三綱閣/柳月坡將軍旌烈閣)

소재지 : 옥과면 합강리 합강

유래·연혁 : 합강마을의 뒷편 산중턱에 위치해 있다. 임진왜란 때 義兵將 高敬命과 함께 錦山戰鬪에서 싸우다 殉節한 月坡 柳彭老 장군과 그의 부인 原州金氏의 烈行을 기리기 위하여 후에 유림들이 세운 旌閣로 정면 2칸, 맞배지붕의 瓦家이다. 내부에는 「命旌板額」을 비롯하여 「旌閣중수기」 등 6매의 현판이 게액되어 있다. 柳彭老(1564-1592)의 본관은 文化, 判官 景顔의 아들로서 字는 亨叔, 호는 月坡이다. 16세 때(1579년) 進士試에 합격한 다음 1588년(선조 21) 式年文科에 급제, 弘文館 副正·字·博士를 거쳐 成均館 學諭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낙향하여 淳昌에서 義兵을 모아 梁大樸, 安瑛 등과 함께 담양에서 고경명과 회합, 그를 義兵將으로 추대하고 北上하다가 1592년 7월 10일 金山 싸움에서 순절하였다. 1623년(인조 1)에 旌閣을 명 받고 大司諫, 左承旨를 주증 받았다. 는 1740년과 1892년, 1960년의 중수를 거쳐 1984년 2월 29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2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한편 立面 송전리 내동에는 義馬塚이라 불리는 봉분이 있는데, 이는 그가 金山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의 愛馬가 고향집까지 그의 머리를 물어다 놓고 죽음에 그 가락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말을 묻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관계자료·유적·유물 : ①「忠臣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仕郎成均館學諭柳彭老之閣」(1623년, 命旌板額) ②「烈婦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仕郎成均館學諭柳彭老妻淑夫人金氏之閣」(1623년, 命旌板額) ③「柳月坡先生三綱閣중수기」(정축 4월, 李潤基 記) ④「旌閣중수기」(1960년, 李炳殷 記; 『옥과향교지』하권 수록) ⑤「詩文」(1892년 후손 柳弘均) ⑥「三綱閣記」(1892년, 아래부분 훼손 판독 불능)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의 민속

나경수(전남대학교)

1. 전통문화의 전승 위기

1. 생태환경의 해체

일반적으로 문화는 3대 결정 조건을 가진다.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 그것이다. 민속 역시 하나의 문화이며, 그런 까닭에 민속문화도 위 3대 조건의 영향 하에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3대 조건이 균질적으로 결정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근대적 사회로 올라갈수록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컸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조건이 더 큰 결정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주요한 생태론적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농촌사회였다. 대부분의 민속문화 역시 농촌을 모태로 하여 생성, 변화,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산업화는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농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문화를 상당 부분 간섭, 소거하게 된다. 집약노동력이 동력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양식이 바뀌고, TV의 보급으로 마실문화와 사랑방문화의 퇴조와 함께 공동체의식이 약해졌으며, 노령인구 위주의 핵가족화는 전반적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활문화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문화 모태의 변화는 자연히 전통적인 민속이 폐기되는 환경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실문화가 없어지면서 설화가 사라지고, 논일을 기계로 하면서 들노래가 사라지는 가운데 민속생활 전반에 걸쳐 전통민속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생활주기의 변화

생활주기의 변화는 전통적인 마을민속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음력에서 양력으로 생활력이 변화된 것도 그렇지만, 보다 큰 작용은 생활주기의 단기간이 월간주기(monthly cycle)에서 주간주기(weekly cycle)로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달의 순환이 생활과 생산주기가 되었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일주일 단위의 생활주기가 정착되었다. 민속의 생애적 기간의 하나인 시간적 단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에 적응하는 사례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거나, 충돌하는 예도 많다. 회사, 관공서, 공장, 학교는 물론이지만, 최근에는 상점이나 소규모의 업체들조차도 주별 단위의 생활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대체로 시간의 변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시풍속의 경우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있어 왔던 명절이 사라져가고 있다. 명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휴식과 놀이 기능이라 했을 때, 주간주기로 바뀌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 기능을 대신 맡게 되었다. 세시풍속뿐만 아니라, 잔치나 제례와 같은 통과의례나 종교민속 역시 주간주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결혼식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지만, 환갑잔치나 시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3. 전승주체의 이탈

민속의 전승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민중이며, 그 민중은 다름 아닌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속학을 시작한 서양의 학자들 중에서도 민중과 농민을 동일시한 예는 많다. 전통적인 의미의 민속은 달리 말하자면 농촌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던 농민들이 함께 해온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오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엇보다도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의 격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감소추세와 함께 고령화 현상이 또한 수반되었다. 결국 민속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민간지식의 총체라 할 때, 전승할 세대(from generation)는 있으나 전승 받을 세대(to generation)는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마을민속의 주체인 민중의 정성분포도가 일그러지는 가운데 민속의 자연적인 전승 역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리가 통통 붓도록 달밤을 녹이던 강강술래 춤꾼들은 모두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그때의 즐거움은 이제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4. 기대지평의 전략

전통과의 단절을 의도하고 주장했던 것은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근현대사 속에서 100여년간 민속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암흑시대

를 경과해온 셈이다. 구한말의 개화사상과 외래종교의 유입,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 미군정하의 구미선망, 6.25로 인한 가치공백, 산업화를 추진하던 발전지상주의, 그리고 세마을사업의 추진과 함께 헌마를 죽이기 등, 그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민속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사고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속을 지탱하던 의식은 심하게 폄하되었으며, 또한 열등하고, 무가치하고, 때로는 부도덕한 것으로까지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합리적 또는 과학적 사고를 표방하는 정책, 언론, 그리고 교육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해왔다. 공간적 차원에서 민족문화가 세계문화에 침식당하고,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에 의해 와해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전통문화가 근현대문화에 압도당해온 모습이다.

화려한 조명과 양가의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눈부시도록 하얀 드레스를 뽐내던 신부는 비좁은 폐백실에서 몇몇 시댁 어른들께 절을 올리기 위해 활옷으로 갈아입기에 바쁘다. 폐백실 긴장한 신부의 얼굴은 죄없이 죄인이 된 얼굴이며, 우리의 민속이 겪어온 지난 백년간의 바로 그 얼굴이기도 하다.

II. 전남 곡성군 삼기면 남계마을의 당산제

1. 동제의 내용

1) 동제의 내력과 제당의 구성

현재 마을에서 제사를 모시는 곳은 두 곳이다. 마을 뒤쪽인 동북방의 나지막한 구릉 위 숲속에 있는 천룡당과 마을 앞 논기운데 큰 팽나무 한 그루 옆에 짐대(竝대)와 탑석(造塔)이 서 있는 곳이다. 지금은 단지 두 곳에서 제사를 모시지만, 60여년 전에는 네 곳에서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위 두 곳과 마을 앞 남쪽 언덕 위에 현재 대나무숲이 우거진 사이에 큰 팽나무 7~8주가 서 있었고, 그곳을 당산이라고 불러 제사를 모셨으며, 마을 북서쪽으로 나 있는 소로변에 지금의 탑석과 유사한 형태의 탑이 하나 더 있어서 그곳에서 역시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할아버지당산과 할머니당산이라는 관념이 없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라서는 천룡당을 할아버지당산, 짐대가 있는 곳을 할머니당산이라고도 하나, 이것은 외지에서 들어와 마을에 사는 사람의 말이고 본래는 그러한 관념은 없던거라 한다.

이 마을은 당산제를 모시는 장소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처럼 네 곳의 제소가 두 곳으로 축소된 것도 그렇고, 또 짐대를 세우는 곳도 예전에는 지금의 장소가 아니라 소로변에 있던 입석 주변이었다고 한다. 당산은 팽나무가 고사하자 폐했으며, 소로변의 입석은 사유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없애버려 결국 그 후로는 현 위치에 짐대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탑석은 논가에 축대가 쌓아진 위에 높이 1.5m 정도의 원추형 형태로 돌을 쌓아 올리다가 위쪽에 60cm 정도의 자연석을 세웠다. 당산제를 모시기에 앞서 세워진 돌은 한지로 감싸서 금줄로 둘러싼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한지로 입석을 감싸는 일을 생략했다. 현재 탑석 위에 있는 입석은 지금의 것이 아니었다. 도난 후에 새로 세운 것이다. 원래 있던 돌의 형태가 몹시 특이하게 생겼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아마 마을에 전기가 들어올 때 전신주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차를 대고 실어 갔을 것이라고 한다. 갓을 씌운 형상이었다고도 하고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도 한다.

짐대는 입석 옆에 매년 새로 세운다. 지난해 세운 짐대는 썩어서 넘어져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 새로 세운 짐대는 색깔에서 벌써 차이가 나며, 높이는 대개 5~6m 정도며, 소나무를 베어와 껍질을 벗긴 후 세운다. 짐대 위에 오리 형상의 새를 만들어 얹는다. 오리의 입에는 2m여의 대나무를 쪼개 물린다. 쪼갠 대나무가 아래쪽으로 휘어져 마치 봉황의 깃처럼 보이게끔 멋을 부린다.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높은 바위산이 보이는 데 최악산이다. 그 산은 화산(火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짐대의 새 머리가 최악산을 향해 있다. 짐대는 그 최악산의 화기(火氣)와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액을 막아준다고 믿으며, 수수맥이를 한다고도 말한다.

2) 동제의 준비

(1) 재관(祭官)의 선정

당산제는 매년 관례적으로 모셔오며,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당산제에 앞서 몇 가지 준비과정과 분위기를 돋우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고 또 생략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설을 세고 나서 초하루와 초이튿날 친가의 어른에게 세배를 올리고, 초사흘은 외가와 처가를 돌아 인사를 마친다.

그리고 나면, 초나흘날부터 이제 마을에서는 마당밧이가 시작된다. 지금은 18여 호에 불과하지만, 마을이 컸을 때는 35호였다고 한다. 초나흘날부터 시작하여 14일까지 매일 두 집에서 마당밧이를 했다. 한 집은 못사는 집, 한 집은 잘사는 집을 정해 곳을 쳤다. 먼저 가난한 집에서 마당밧이를 하며

그 집에서는 간단히 술을 대접받고 나서 부자집으로 간다. 부자집에서는 식사와 떡, 그리고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장만하여 굿을 치는 사람들만 아니라 구경나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 밤이 깊도록 함께 즐기고 놀았다. 이런 마당밧이는 몇 십년전에 있던 일로서 전승이 깊건지 오래되었다.

마당밧이를 하는 중에 정월 초엿날 마을 회의가 열린다. 화주와 축관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다. 지금은 화주를 선정하는 데 여간 애를 먹는다.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에는 굳이 마을에서 선정하기 전에 본인이 자원해서 화주를 맡으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자원자는 두 종류로 한쪽은 화주를 하여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다. 아이가 없거나 특별히 당산신의 은총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주를 해서 공을 드리하고자 했다. 또 현실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로, 당산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물은 물론이요, 제사에 필요한 일체의 도구를 새로 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술, 그릇, 돛자리 등을 매년 새로 구입해서 쓰는데, 당산제가 끝나면 그 해 화주를 했던 사람이 그것들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제물이나 제기류를 새로 구입하는 양도 적고 또 그 정도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성가시게 화주를 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화주를 해서 당산신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마을에 행여 굿은 일이 생겼을 때 화주를 한 사람이 당산제를 정성껏 모시지 못한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해서 일부러 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은 마을 회의에서 화주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추세 때문에 누구든 화주를 맡으려 하지 않아 여간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일단 마을 회의에서 적임자가 물색되면 이장이나 마을 유지들이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하여 일을 맡긴다. 당산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화주뿐만 아니라 축관도 필요하다. 그래서 화주 한 사람과 축관 한 사람을 뽑는다. 화주는 제물을 장만하고, 축관은 집례를 맡는다. 화주를 축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축관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한문으로 축문이 되어 있어서 그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가장 유식자인 제보자 김용갑님이 주로 맡아 축관을 하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으로 정하기도 한다. 한문으로 된 축문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김용갑님은 어려운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을 달아 읽게 한다. 또 근래에 이마져도 어렵고, 또 뜻도 모르는 한문으로 된 축문이 의미가 없겠다 싶어 우리말로 쉽게 축문을 새로 고쳐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 축관 역시도 선정 과정에서 화주만큼은 아니지만, 유고가 있는 사람은 절대 피한다.

(2) 제비(祭費)와 제물(祭物)

두 곳에 제사를 모시기 위해 드는 경비는 약 30만원 정도다. 지금은 祭費를 마을 지금에서 쓴다. 예전에는 마을에 논이 있어서 거기서 나는 소작료로 제사를 마련했다 한다. 지금은 개인에게 팔고 없다.

대개 당산제를 모시는 당일, 즉 14일 오전에 제물을 사기 위해 화주와 축관이 장을 보러 간다. 장에 가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장에 나가 제물을 살 때는 눈으로 골라 값을 전혀 흥정하지 않고 산다. 값을 깎는 일이 없다. 쌀을 제외하고는 제물로 쓸 모든 것을 이렇게 장에서 구입한다. 쌀은 화주집의 것을 쓴다.

전에는 제주를 따로 빚었지만, 지금은 탁주를 사다 쓴다. 제물로 어물은 절대 쓰지 않는다. 비린내가 나는 것은 7은 것으로 여긴다. 각 가정에서 차례 준비를 할 때도 당산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생선을 익히는 법이 없다. 당산제를 낫에 모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즉 가정의 차례 준비를 위해서라고 하기도 한다.

(3) 금기

화주의 선정과정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7은 일이 없는 사람, 7은 곳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 7은 것을 먹지 않은 사람 등이다. 7은 일은 초상이나 산고를 가리키며, 부인이 금기기간 동안 달거리가 있는 집도 제외된다. 만일 선정된 사람 중에 보름까지 남은 기간동안 부인에게 달거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집은 사정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또 식구가 많은 집도 안되는데, 혹시 뽑힌 사람의 가족이 많으면 화주와 부인만 남기고 다른 가족들은 다른 집으로 옮겨 당분간 지내게 한다. 7은 곳이란 초상집이나 산고든 집으로, 그런 곳을 다녀온 사람 역시 피한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등 경사에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7은 음식이란 주로 개고기나 뱀을 뜻하며, 정월 들어서 그런 음식을 먹은 사람은 화주의 선정에서 제외된다.

화주와 축관은 뽑힌 날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언행과 행동가짐을 조심한다. 7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 피한다. 부부간의 잠자리도 절대 금기사항이다. 이때부터는 화주 부부는 대변을 보면 찬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소변을 보면 손을 씻는다. 이런 일이 번거롭고 싫어서 당산제를 모시기까지는 대개 절식을 한다고 한다.

13일에는 당산과 화주집, 그리고 마을로 통하는 길목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금줄을 끄는데, 부정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짚을 가져온다. 원새끼는 함께 꼬지만 금줄을 칠 때는 서로 하려고 앞을 선다. 특히 외부와 통하는 마을의 길목에 모두 금줄을 치는데, 금줄이 한 번

걸리면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나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금줄은 치지만 통행 금지는 예전만큼 엄격하지는 않다.

특히 2005년도에는 마을로 통하는 곳곳에 금줄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높이로 쳐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길바닥에 깔아 놓았다. 대나무를 베어다 세우고 또 높이 매달 젊은 일손마져 마을에 없기 때문이다.

3) 동제의 진행

(1) 제의 절차

14일 아침나절에 화주와 축관,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 마을 사람들 전원이 산에 오른다. 짐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러 가는 행사다. 전에는 산에 오르면서 농약대가 함께 올라가면서 굿을 쳤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농약대가 동행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짐대를 만들 목수와 몇몇 사람이 나무를 베어 온다고 한다. 마을 동쪽으로 산이 있는데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 소나무를 베다. 높은 곳이 깨끗한 곳으로 여겨져 그렇게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을을 지나 소나무를 메고 입석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짐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작년에 세운 짐대가 그대로 서 있다. 사람들이 합심을 하여 나무껍질을 벗기고, 또 오리를 만든다. 11시 30분경에 짐대를 만들어 세우는 일이 모두 끝났다. 이때는 특별한 제사를 모시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산에 오를 때 굿을 쳤던 것은 산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짐대 세우기가 모두 끝나면 당산제를 지내게 될 오후 5시까지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서 논다. 그러나 이때 여자들은 집밖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다. 오후 4시경이 되자 마을 스피커에서는 이제 당산제를 모실테니 집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하였다. 방송시설이 없던 예전에는 사람을 시켜 각 골목을 돌면서 외치고 다니도록 했다고 한다. 당산제는 오직 화주와 축관이 참례를 한다. 당산제를 모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면 집안에 머물고, 특히 여자들은 문밖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5시 : 마을회관에서 화주와 축관 두 사람이 한복을 입고 제물을 나누어 들고서 천룡단으로 출발을 하였다.

5시 5분 : 천룡단에 도착해서 소나무 밑에 제단을 마련하고 설상을 시작했다. 제물은 모두 날 것으로 올렸다. 메를 짓지 않고 쌀을 그대로 올렸으며, 여타의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제물을 익히는 것이 번거로워 몇 년 전부터 날 것을 제물로 그대로 올려 온다고 한다.

제사는 유교식 가례 절차를 따랐다.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첨작, 사신, 소지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주와 축관이 함께 제관을 하였다.

5시 20분 : 헌식을 하였다. 헌식을 할 것은 미리 화주집에서 백지에 써서 준비해 왔으며, 천룡단의 소나무 아래에 놓인 돌을 들어내고 그 속에 눌러 묻은 다음 다시 돌을 얹는 것으로 마쳤다. 헌식 까지를 마치고 5시 23분 다시 화주집을 향해 출발했다.

5시 30분 : 화주와 축관은 다시 화주집에서 마련된 제물을 가지고 짐대가 선 곳으로 향했다.

5시 35분 : 짐대가 서 있는 곳에 도착하여 입석 앞에 설단을 하고 진설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수령 150여년된 큰 팽나무가 서고, 그 아래에 탑석, 그리고 그 옆에 짐대가 서 있어 신체(神體)의 3중 적 복합을 이루고 있는 성소다. 제물과 제례를 모시는 방식은 모두 천룡단과 동일하다.

5시 46분 : 헌식을 하고 철상을 하였다.

5시 48분 : 제사를 모두 마친 화주와 제관은 다시 화주집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두 곳에서의 제사가 모두 끝났다. 본래부터 이 마을에서는 당산제를 모실 때 굿은 전혀 치지 않았으며, 두 사람만이 참례하여 경건하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억하고 있는 한 밤에 당산제를 모신 적은 없으며, 매년 오후 4시나 5시경에 시작하여 어둑기 전에 끝났다고 한다.

(2) 축문과 구축(口祝)

여기서 사용된 축문의 내용으로 보면 당산신이 거명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아 60여년 전에 없어진 마을 앞에 있던 당산에서 제례를 올리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여기 천룡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丙子正月丙辰朔十四日己亥 幼學朴鍾溫 敢 告于

堂山之神 今爲里 四比五姓 十干生人 災害消除

福祿臻 四各遂 萬求必神 驅逐疫 秉義率 仁入 皆通百祉 維新 謹以溪齋

皿嘉粟 祇薦于神 神其保 無晦湮

尙饗

소지를 올리면서 현관과 축관은 마을이 잘 되게 해주고, 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구축을 한다. 큰 소리로 구축을 하면서,

역시 소지가 잘 타고 높이 날아올라가야 좋다고 믿어서인지 손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지가 불에 잘 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4) 영험담

제보자들이 당산제와 관련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은 6·25사변 당시에도 당산제는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지리산과 인접해 있어 6·25 당시 마을이 완전히 소개되어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러나 외지에 나가 살면서도 당산제만은 모시지 않을 수 없어 몰래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다른 마을에서는 대개 7~8명이 희생되었지만, 이 마을은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당산제를 그치지 않고 모시는 까닭을 물으면, 그 첫 번째 대답은 역시 6·25때 마을 사람이 희생되지 않아서 당산신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며 또 그 영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래 전에 짐대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불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그 때 마을에서는 당시 화주가 당산제를 잘못 모셔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로는 옛날 마을에 도둑이 들어서 벼를 훔쳐 갔는데, 도둑이 밤새 벼를 들고 도망을 했으나 날이 새서 보니 짐대가 있는 주변이더라고 한다. 그래서 도둑은 벼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도망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5) 뒷풀이와 결산

당산제를 모시기에 앞서 오전부터 마을회관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놀면서 기다린다. 당산제를 모두 마치고 나면 화주는 제사를 모셨던 제물과 그 외에도 장만했던 음식과 술을 내온다. 본인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긴 사람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는 남녀가 함께 자리를 한다. 여기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장을 중심으로 하여 당산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총결산을 한다. 또한 화주와 축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이장(里政)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도 한다.

이미 60여년전에 끊겨버린 풍속이지만, 당산제가 끝난 다음날, 즉 보름날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오전에 각 가정에서 짐은 들고 나와 젊은 사람들이 줄을 만들어서 오후부터 줄다리기를 한다. 줄은 외줄을 썼으며, 길이는 2~30m 정도였다고 한다.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했고, 다만 남자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마을 앞 논에서 승부를 겨뤘다. 편을 가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해 가위바위보로 편을 갈랐을 것이라고 한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굿을 치고 노는데, 줄다리가 끝나면 짐대가 있는 곳에 줄을 옮겨 놓고 썩어서 자연히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둔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게 되면 농악도 그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2. 동제의 특징

대개 전남지역에서는 밤에 당산제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을은 예전부터 낮에 당산제를 모셔오고 있다. 또 당산제를 모시고 나서 마당밭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을은 당산제를 모시기전에 마당밭이를 하여, 당산제를 끝내고 나면 굿을 그치는 것 역시 특이한 현상이다.

본래 네 곳에서 제사를 모시다가 지금은 두 곳에서만 모시고 있는데, 당산제 축소의 전형을 보이는 사례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소는 달리하면서도 여전히 짐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의 특징을 꼽을 수 있겠다. 마을 앞, 논가에 당산나무, 탑석, 그리고 솟대가 한 곳에 위치하여 신령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항상적인 당산나무 및 탑석과는 달리 매년 새로 해서 세워야 하는 짐대의 경우는 다른 행사보다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는 전승의지가 확고하여 지금까지 매년 짐대를 세우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마을 입구 국도변에 면사무소에서 주관을 하여 솟대를 제작하여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마을이 속한 삼기면의 면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짐대 세우기의 전통을 확대하여 주변을 정화, 솟대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전통가꾸기 또는 전통알리기 등의 일환으로 보이며, 그만큼 전문문화에 대한 인식의 층이 두터워져가고 있는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지금도 이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당산제에 대한 전승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그 까닭은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결정적으로 6·25동난을 겪으면서 마을에 전혀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근의 다른 마을들에서는 전란 중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지만, 이 마을은 군대에 갔던 사람들조차 살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당산제를 잘 모셨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당산제를 모시는 까닭은 여러 가지며, 또 당산신에게 기대하는 종교적 소망 역시 여러 가지이다. 대개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 농사 풍년이나 육축 번성 등은 기술영농 등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요, 또 한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되는 반면, 마을민의 안녕은 아직도 초자연적이며, 초사회적인 믿음에 의존하며, 지금도 여전히 마을민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전통문화와 마을민속의 활로

1. 보존 : 민속에서 문화재로

전통의 단절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현상을 전통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당연히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단절 현상이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심지어는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사를 지닐 뿐,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개인에게 있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나 같다. 100여년 이상을 우리는 사회적 과제였던 발전논리와 구호에 휩싸인 채 전통 단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대화, 서구화, 공업화, 국제화, 세계화 등 구한말부터의 구호는 모두 전통 단절의 공적이었던 것이다.

문화집변(acculturation)을 충분히 시도하지 못한 채, 대부분 외래문화에 대한 문화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왔던 나약한 심인성 문화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속 역시 잔존문화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로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게 된다. 마을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배태한 모태나 같다. 마을의 민속은 바로 우리 문화의 원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전통문화이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시대적 변화라는 신진대사과정에서 당연히 과거의 민속은 퇴색하게 되지만, 이들은 잔존문화만 아닌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보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민속학자들이 동참하여 민속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발굴은 소극적 보존일 뿐이다. 전승의 한 형태로서 보존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적 모색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예를 들면 민요는 녹음과 채록과 채보만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연행적 상황 자체가 다매체(multi-medial)를 통해서 가장 근접한 형태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과거 조사·정리된 것까지를 망라하여 D/B뱅크에 보존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개인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사회단체든, 국가든 이들이 가진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적 차원의 민속정보원(가칭)에서 관리하는 체계적 보존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또한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민속박물관의 추가적인 건립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민속의 연행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승적 상황 역시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속의 장르별 개별 조사와 발굴, 정리 등도 필요하겠지만, 마을민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문화원연합회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마을지를 통한 그 전체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두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민속관리사(가칭)와 같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1968년에 시작했던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에 대한 제2차 조사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변용 : 민속에서 문화콘텐츠로

공간적 차원에서 민속문화가 세계문화에 침식당하고,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시간적 차원에서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에 압도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긍정적인 쪽에서 두둔하거나 그대로 방기해 두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가능성 때문이다. 민족과 지방의 전통문화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와 권위는 보존이 아닌 재창조에서 찾아져야 한다.

민속은 일종의 DNA이다. 민속에 대한 연구는 호사가의 골동품 애호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및 각 지역에 전승되어 온 민속에 대한 탐구는 옛 것을 돌아보는 회고적 취향이 아니라, 오늘을 다지고 내일을 살찌게 하는 응용과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망된다.

최근 문화콘텐츠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문화란 현장적인 것에 반해서 문화콘텐츠란 매체적 전환을 통해 문화를 전승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속을 문화콘텐츠로 변용할 수 있는 계기는 크게 열려 있다. 예를 들면 축제콘텐츠, 영상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공연콘텐츠, 교육콘텐츠, 스포츠콘텐츠, 오락콘텐츠, 복지콘텐츠, 관광콘텐츠 등 그 활용적 측면은 특히 삶의 질이 문제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많은 민속놀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적인 오락문화에 매몰되어 버린 채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면 시골의 노인들조차 요즈음 게이트볼을 즐긴다.

노인복지의 공백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게이트볼 대신에 향수 어린, 그러면서도 우리의 전통민속놀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의 민속은 복지콘텐츠로서의 화학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더 이상 명맥유지가 불가능한 고싸움을 대학의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도시축제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마을에는 이미 숨이 차서 더 이상 뛰고 부를 수 없는 강강술래를 가져와서 살과의 전쟁을 벌이

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에어로빅댄스 대신에 댄스스포츠콘텐츠로 개량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민속이 차지할 비중은 아주 높다고 생각하며, 그런 뜻에서 전통적인 마을민속을 마을에서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 그것의 다른 활로를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전승방법일 것이다.

3. 활용 : 민속에서 문화산업으로

앞으로의 민속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문화산업을 추구하는 전환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民俗工學이나 民俗文化産業 등으로 이름지을 수 있겠다.

민속이란 그것이 속한 문화권에 있어서 유전자와 같은 권위를 지닌 것으로서, 무한한 문화공학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일정한 문화권에 전승되어 온 민속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적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문화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이나 호남에 전승되어 온 민속은 이들 지역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단지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의 생성과 창조 의 동인으로서 용처만 정확히 찾아진다면 엄청난 부존자원으로서의 값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정부에서는 국가전략분야로 IT, BT, NT, ST, ET, CT를 꼽았다. 여기에 포함된 CT는 문화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보며, 국가의 전략분야에 대한 산학협동적 관심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지금까지 수입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 수출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한 각별히 요구된다. 문화의 수신자로서뿐만 아니라 발신자로서의 변신과 적극성이 우리 민속의 또 다른 전승의 활로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제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명절 때 보이는 그 많은 귀성인파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초기 이농층이 이제 도시의 노인층이 된 현 시점에서 보면, 그들의 수가 감소되면서 귀성인파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의 향상은 휴가와 휴식의 욕구를 증대시킨다. 또한 사이버나 매체에 의한 간접체험이 많아질수록 직접 경험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마을을 체험의 공간으로 또는 학습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마을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의 민속촌과 같은 인위적인 마을이 아니라 실재의 마을에서 시골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을민속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본 내용에 게재된 독립유공자들은 곡성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이며, 지속적으로 본지를 통해 게재코자 합니다.

문동길

_ 공적내용

광주(光州) 사람이다.

그는 신덕채(申德采)로부터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라는 밀명을 받아 1920년 음력 2월 14일 광주군 소재 박운아(朴雲娥)의 집에서 김성현(金聖炫)·(金齊中)과 모임을 갖고 군자금 모금의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동년 음력 2월 15일부터 음력 4월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곡성(谷城)·(潭陽) 등지의 부호들을 역방하며 임시정부원임을 밝히고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후 1921년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밀고에 의해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21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강도상인(強盜傷人)·강도미수로 징역 8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註·판결문(1921. 12. 3 광주지방법원)

박은용

_ 공적내용

광주(光州) 사람이다.

그는 신덕채(申德采)로부터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하라는 밀명을 받아 1920년 음력 2월 14일 광주군 소재 박운아(朴雲娥)의 집에서 김성현(金聖炫)·(金齊中)과 모임을 갖고 군자금 모금의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동년 음력 2월 15일부터 음력 4월에 이르기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곡성(谷城)·(潭陽) 등지의 부호들을 역방하며 임시정부원임을 밝히고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후 1921년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밀고에 의해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21년 12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강도상인(強盜傷人)·강도미수로 징역 8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註·판결문(1920. 7. 19 광주지방법원)
 벽운김창숙일대기 98면
 고등경찰요사 25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3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93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86면

송기휴

_ 공적내용

전라남도 고흥(高興) 출신이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국제적 정세하에서 일찍이 위기의식을 느껴 온 한 민족은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1905년 이후 일제는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07년에는 대한제국군마저 해산시켰다.

일찍이 의병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지만 주로 유생들 중심이었고 후

기 의병운동에 이르러서는 일반 기층사회민의 의병운동이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보성(寶城)의 담살이 안규홍(安圭洪)의 의진이다.

송기휴는 안규홍의 의진에 입대하여 참모관(參謀官)에 임명되었다. 여기에는 보성 출신 인물도 많았지만 고흥의 김직순(金稷淳) 등도 참여하고 있었다. 송기휴는 안규홍 의진에서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중요한 전투는 1908년 2월의 파청(巴靑) 전투, 4월의 비들기치의 전투, 5월의 문덕(文德) 양가랭이치 그리고 운월치(雲月峙) 등의 전투에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군수품을 빼앗아 재무장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유격장 안택환(安宅煥)과 서기 임준현(任準鉉; 淨鉉)이 전사하는 불행을 겪었다. 이때 그 뒤를 이어 송기휴는 유격장으로 임명받았다.

1909년 7월 안규홍 의진이 해산될 때까지 보성·순천·광양·여수·돌산·곡성·남원·구례·장흥·순창 일대에서 안규홍을 보좌하였다. 그러나 세부득이하여 일단 의병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안규홍·염재보(廉在輔)·정기찬(鄭基贊)이 보성에서 체포되고 송기휴는 낙안(樂安)에서 적에게 체포되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註·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607·608·60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322·358·359·94

신태윤

_ 공적내용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곡성읍(谷城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곡성 공립보통학교의 부훈도(副訓導)로 신·구(新舊) 학문을 널리 배웠으며, 또한 민족정신이 남달라 강하여 담양·장성(長城)에서 재직할 때는 훈도들의 복장인 금테모자에 칼을 차는 일본식 복장을 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한복인 행전 매고 잠신을 신고 다녀 일본인의 미움과 감시를 받아왔다.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던 1919년 3월 중순, 곡성지방에는 아직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때에 보통학교 숙직실 뒤의 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끓여먹고 있던 정래성(丁來聖)·김중호(金仲浩)·양성만(梁成滿)·박수창(朴秀昌)·김기섭(金基燮)·김태수(金泰洙) 등 청소년을 불러놓고,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만세운동을 전해주고, 곡성에서도 빨리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청년들이 이에 찬성하자, 3월 26일 정래성의 집에 모이도록 하여 시위운동에 필요한 태극기와 격문(檄文)을 작성케 하는 등, 사전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곡성 장날인 3월 29일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중호에게 『조선역사』 책을 주고 거사 당일의 성공을 위하여 동료 훈도 및 마을 유지들에게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역설하였다.

예정일인 3월 29일 보통학교 3·4년생과 동리 청년들 수십명이 장터에

모이자 그는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장터안을 시위행진하다가 일제 관헌에 의해 체포되었다.

결국 이해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註·판결문(1919. 6. 18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 8. 18 고등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81·58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9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23·1524면

안규홍

공적내용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1879년 4월 10일 전남 보성군(寶城郡)에서 안달환(安達煥)의 3남으로 출생하였다.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편모승하에서 자랐으며 가세가 빈한하여 남의 답살이(머슴)로 모친을 극진히 봉양한 효자였다.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구국의 함성이 높아가자 거역할 목적으로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였다. 한편 주인에게 모일(某日)에 논일을 할 터이니 일군들을 대접할 준비를 해 달라고 일린 연후에 은밀히 답살이 동지들 수십 명을 규합하였다. 거사일이 되어 동지를 모으고 주인에게 물려가 국사를 도모하고자 하나 우리에게 재물이 없으니 군사물자를 조달해 줄 것을 강청하여 군량과 자금을 받아 냈다.

그리고 일찍이 은밀하게 밀약 받았던 동리의 참봉 안 극(參奉 安 極)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1908년 2월 관복출신 강성인(姜性仁)이 무장한 의병 수십 명을 이끌고 와 합세하여 병력 7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을 보성 동소산(桐嶺山)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강성인은 본래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여 민폐가 컸다. 안규홍이 다스리고자 하나 고쳐지지 않자 할 수 없이 그를 포박하여 죄상을 밝힌 후 참형에 처하였다. 이로써 군기는 바로 잡히게 되었다. 그후 농군을 소모(召募)하여 대오(隊伍)를 정비한 후 안규홍이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편제는 다음과 같다.

부 장 염재보(廉在輔)

참 모 장 송기휴(宋基休)

선 봉 이관희(李貫會)

좌우부장장 정기찬(鄭基贊)·장재모(張載瑠)·송경회(宋敬會)·손덕호(孫德浩)

유 격 장 안택환(安宅煥)·소휘천(蘇輝千)

좌우부참모 오주일(吳周一)·나창운(羅昌運)

서 기 임정현(任淨鉉)

군 수 장 박제현(朴濟鉉)

안규홍은 비록 배우지 못하여 문자를 몰랐으나 천성이 뛰어나고 결백하며 과감하였기 때문에 많은 농민군이 그를 따랐다.

이들 안 답살이 의진이 보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병들이 보성군 조성(鳥城) 별교(伐橋)·순천(順天)을 연결하는 토벌진을 구성하여 포위 섬멸전을 전개하려 하였다.

안규홍은 평소 초로 지리(樵路地理)에 밝은지라 일군에 대한 기습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1908년 2월 적이 정시(定時)에 출동하여 수색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미리 보성 동쪽 8킬로미터 떨어진 파청(巴靑)의 험한 지점에 복병을 마련해 두었다.

마침 일대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미도(永戶)·하라이(平井)의 두 부대가

끝까지로 들어왔을 때 복병들이 총탄을 퍼부었다.

적병 부대장들이 쓰러지고, 전군이 궤멸하여 의병 부대는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후 다시 대원산(大院山)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파청대첩(巴靑大捷)이다. 이후 일군은 안규홍의 부대를 의병 부대 중 최강의 부대로 지목하게 되었다. 파청대첩 후 적의 신에 부대(新銳部隊)는 보복전을 펼쳐 대원산 사찰을 포위하고 필사적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그러나 의병은 사찰 문루와 장벽에 의지하여 분전한 끝에 여유 있게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복(同福)을 탈환하기 위해 운월치(雲月峙)로 진군하다가 누봉산(樓鳳山)에서 적과 부딪쳐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특히 참모 나창운(羅昌運)이 전사하는 등의 손실을 보았다.

이에 장경선(張京善)을 참모로 임명하고 병력을 증강한 후 1908년 8월 24일 진산(眞山)에서 일군 수비대 및 기병과 격전을 벌여 일군 5명을 중상시키는 등 대첩을 거두었다. 이 전투가 진산대첩(眞山大捷)이다.

그후 안규홍의 의병 부대는 화약과 군량을 준비하여 공격 태세를 갖추어 1909년 3월 25일 원봉(圓峰)의 적병을 기습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규홍은 소병력을 한산한 곳으로 보내어 악탈을 가징하는 등 적의 눈을 속이고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원봉 기병 주둔소를 야습하는 작전을 썼다. 일군 대장 도변(渡邊)은 말을 타고 도주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다량의 무기와 화약·군량을 획득하였으므로 의병 부대를 재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다시 순천(順天)으로 가서 일군 대부대를 습격하였다.

처음에는 큰 전과를 거두었으나, 안택환(安宅煥)·임정현(任淨鉉) 등이 전사하였다. 이어 송기휴(宋基休)를 유격장으로 임명하고 전투를 계속하였으나 일병 증원 부대가 도착하여 포위 당하였다. 안규홍은 의병을 상인·농민 등으로 가장시켜서 포위망을 탈출하여 바닷가에 집결시켰다.

다시 밤에 배를 타고 고흥(高興)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의병의 수는 줄고 무기도 빈약하여져서 정면충돌을 감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에 작전을 바꿔 유격·기습작전으로 성과를 거두며 전전하다가 송기휴가 전사하게 되었다.

이에 거점을 장흥 백사(白沙)로 옮긴 안규홍은 전세가 불리하게 된 연유를 규명하게 된다. 모든 것이 일진회(一進會)의 밀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자 그들을 색출하여 시장에서 공개 총살시켰다.

그리고 일인 첩보대장 탄시(灘市)를 사살하고 8월에는 270명의 의병을 총동원시켜 순천군 낙서면 상우리(洛西面 上右里) 소재 일진회를 습격하여 친일 주구들을 처단하고 9월 25일 3백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광양(光陽)의 백운산(白雲山)으로 들어가 근거지로 삼았다.

한편 1909년 5월 이후 함평(咸平)의 심남일(沈南一)과 연합전선을 피하고자 수차례의 회합을 갖기도 하였다.

보성·순천·홍양·여수·돌산·광양·곡성·남원·구례·장흥·순창 등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재개하였다. 적은 부석(富石)대위를 중심으로 토벌대를 구성하는 한편 의병의 가족들을 동원시켜 각종의 귀순 공작을 전개하였다. 토벌대의 대병력이 전라도를 북쪽에서부터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남쪽으로 몰아 내려 왔다.

안규홍은 하는 수 없이 의병을 해산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9월 25일 보성군 봉덕면 법화촌(鳳德面法化村)에서 부하 염재보·정기찬 함께 부석의 부대와 광주경찰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곧 광주에서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1911년 5월 5일 교수형에 처하여져 한을 남기고 순국하였다.

그밖에 안규홍의 부하로서 전사·순국한 영웅들이 많다.

해산을 극구 만류하던 임낙군(林洛均)부자는 흑석산(黑石山)에서의 전투 중에 모두 전사하였으며 박봉석(朴奉石)·손덕호(孫德五)·염민서(廉仁瑞)·廉在輔)·정기찬(鄭奇贊) 등은 1910년에 교수형에 처하여져 순국하였다.

안규홍의 안담살이 의병 부대는 처음 유생 중심의 의병운동이 점차 대중적 기반을 닦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병운동 전개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대중화 경향은 1908년에서 1909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투쟁은 보다 격렬화하여 갔다. 공간적으로도 처음의 의병운동이 산악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점차 평원시대, 도시, 해안 지대로 확산되어 가는 발전적 면모를 띠며, 작전도 보다 능숙한 게릴라전적 양상을 띄게 되어간다.

그리고 참봉 안 국과의 관계나, 심남일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양반 유생들과의 관계가 초기 의병운동에서보다 원만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장기적·전국적 투쟁에 있어서 대중적 기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전술상 그리고 실제 전투에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분을 초월한 대등한 관계에서 의병진간의 유대가 맺어졌으며 의병운동의 유기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 전체조건이 형성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항일의병장렬전(김의환) 191·197면
의병들의 항쟁(조동걸) 343·344·345면
독립운동사전 481·482·48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605·609·64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7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580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321·322·336·346·347·338·339·348·349·356·793·801·80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824·825·840·121면

양인목

공적내용

전남 광산(光山) 사람이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그는 일제를 이땅에서 구축하기 위해 이듬해인 1906년 광주(光州)에서 기의(起義)한 김태원(金泰元) 의병장의 휘하에서 의병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에는 고향인 전남 광산군(光山郡) 임곡면(林谷面)에서 군중들을 주도하며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항일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1920년 10월 서울 소격동(昭格洞)에 거주하는 신덕영(申德永)의 권유에 따라 대동단(大同團)에 가입, 동지들을 규합하여 광주(光州)·곡성(谷城)·화순(和順) 등지의 부호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군자금 모금운동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그해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방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註· 판결문(1921. 12. 13 대구복심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56·1066면

이원중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07년 8월 고광순(高光洵)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전남 담양(潭陽)·곡성(谷城) 등지에서 활동하던 중 동복(同福) 일경주채소를 습격할 때 군량 등을 운반하다가 피체되고 말았다. 그 뒤 1908년 9월 30일 광주지방법 판소에서 소위 폭동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어 11월 7일 대구공소원에

서 유형(流刑) 5년을 언도받아 유배생활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 독립운동사자료집(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74면

이항선

공적내용

字: 洛範 號: 錦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최익현(崔益鉉)의 태인의진(泰仁義陣)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 체결하면서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거족적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같은 시기에 이항선은 1906년 기우만(奇宇萬)·장제세(張濟世)·임병찬(林炳贊) 등과 함께 거의에 관한 방책을 의논하고, 윤 4월 전남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장 최익현과 함께 거의하였다. 태인의진은 태인·정읍(井邑)·순창(淳昌)·곡성(谷城) 등지를 돌며 관곡(官穀)을 취해 군량으로 삼고 진용(陣容)을 정비하였다. 동년 6월에 순창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하다가 최익현 및 임병찬 등이 적에 의해 피체되어 의진이 해산되자, 이항선은 1906년 11월(음력) 백낙구(白樂九)·기우만(奇宇萬)·고광순(高光洵) 등과 함께 전남 구례(求禮) 중대사(中大寺)에 모여 총 50여 명의 병력으로 재차 거의하여 광양(光陽)·순천(順天)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 義兵抗爭日記(林炳贊, 1986) 199·201·205면
全南暴徒史(全羅南道 警務課, 1913) 22·24·177·180·181면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3輯 49·50면
松沙先生文集拾遺(奇宇萬) 34·35면
勉庵 先生의 義兵活動(金義煥, 나라사랑 제6호, 1972) 70면
順天市史(順天市, 1997) 554면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369면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13면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33·46·50면

임병찬

공적내용

본관은 평택(平澤)으로 전라북도 옥구(沃溝) 출신이다.

임용래(林榕來)의 장남으로 태어나 한학(漢學)을 배웠으며 39살에 낙안군수(樂安郡守) 겸 순천진관병마 동점절제사(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역임하였다.

1906년 2월에 의병장(義兵將) 최익현(崔益鉉)과 더불어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을 일으켜 초모(招募), 군량(軍糧) 및 병사훈련 등의 책임을 맡아 홍주(洪州) 의병장 민중식(閔宗植)과 서로 연락을 맺으면서 태인, 정읍(井邑), 순창(淳昌), 곡성(谷城) 등 지역을 습격하여 관곡을 취해 군량으로 삼고 진용(陣容)을 정비하였다.

그 해 6월에 순창에서 최익현과 함께 적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어 일본 헌병에 의해 서울로 압송된 후 감금(監禁) 2년형을 선고받고 일본의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1907년 1월에 귀국하였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에는 은거하면서 재차 거의할 것을 도모하던 중 1912년 9월 고종황제가 내린 밀조(密詔)에 따라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널리 격문을 발송하고 동지를 초모하는 한편 그 조직을 확대시켜 12월에는 전라북도 독립의군부순무대장에 임명되

었다. 그 후 1914년 2월 서울로 올라와 이명상(李明翔)·이인순(李寅淳) 등과 상의하여 독립의군부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시켜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의 편제로 재조직하였다.

임병찬은 그 총사령이 되어 일제의 내각총리대신 총독 이하 모든 관헌에게 「국권반환요구서(國權返還要求書)」를 보내 일제합방의 부당성을 천명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일제의 통치에 한국인이 불복(不服)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한편 국민대중에게 국권회복의 의기를 일으켜 일시에 일제를 구축하려는 항일의병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 해 5월 일본 경찰에 의해 그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임병찬 이하 관련자들이 대거 체포당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체포된 후에 옥중에서 계획이 실패됨을 분개하고 3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 뒤 6월 13일 거문도(巨文島)로 유배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16년 5월 23일(음력)에 유배지에서 사망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 기려수필 104 · 105 · 110 · 111면
매천야록 377 · 382면
고동경찰요사 177 · 17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369 · 373 · 386면

임세묵

공적내용

전북사람이다.

1907년 8월 호남에서 기의(起義)하여 의병대장으로 부하 수십 명을 인솔하고 전북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이듬해인 1908년 3월에는 김성구(金聖九) 의진에 가담하여 부하 수십 명을 이끌고 전북 남원(南原)·구례(求禮)·옥과(玉果)·순천(順天) 등지에서 활약하였고 동년 11월에는 순척 복동(腹洞)에서, 그리고 1909년 2월에는 곡성군(谷城郡) 두동(斗洞)에서 각각 일군과 교전하였다.

1909년 2월부터 4월에는 부하 수십 명을 인솔하고 전북 지역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었다.

그후 동년 5월 7일에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내란 및 강도·약인(掠人)죄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공소했으나 동년 6월 22일 대구공소원에서 교수형으로 변경되자 다시 상고했지만 동년 9월 7일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註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250면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91 · 596 · 671 · 672 · 714 · 717 · 874 · 875면

장재모

공적내용

전라남도 승주(昇州) 출신이다.

노일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노골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침략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 일제는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에 이어 정미7조약을 강요하고 군대해산을 강행하였다.

그러한 정세하에서 국민의 적개심이 고조되어 전국적인 의병항쟁이 전개되었다. 이때 보성지방을 중심으로 담살이 안규홍(安圭洪) 의진이 형성되니 장재모는 보성으로 달려가 의진에 입진하였다.

초기 보성 의진의 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병 장 안규홍(安圭洪)

부 대 장 엄재보(廉在輔)

선 봉 이관회(李貫會)

좌우의부장 임병국(任秉國) · 정기찬(鄭基贊) · 장재모(張載模)

송경회(宋敬會) · 손덕호(孫德浩)

유 격 장 안택환(安宅煥) · 소광천(蘇輝千)

좌우부참모 오주일(吳周一) · 나창운(羅昌運)

서 기 임정현(任淨鉉)

군 수 장 박제현(朴濟鉉)

안규홍 의진의 부장(副將)으로 임명된 장재모는 1908년 2월부터 10월 까지 파청대첩(巴靑大捷) · 진산대첩(眞山大捷) · 원봉산대첩(圓峰山大捷) 그리고 순천(順天)의 범지전투(峙戰)에 참여하여 큰 전공을 올렸다.

그러나 점차 보성지방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는데 한계성을 느낀 보성의진은 그곳을 탈출하여 장흥(長興) · 고흥(高興) 등지를 거점으로 1909년 7월까지 보성 · 순천 · 광양 · 여수 · 돌산 · 곡성 · 남원 · 구례 · 장흥 · 순창 일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의병운동에 대한 태도발전의 전개로 말미암아 1909년 7월에 의진을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의진을 해산한 이후 보다 적극적인 의병운동의 전개를 모색하던 의병장 안규홍과 부장 엄재보 그리고 정기찬 등이 적에게 체포되었을 뿐 아니라, 잔병을 이끌고 의병투쟁을 전개하던 임창모(林昌模) 부자와 장계진(張桂鎭) 등의 의진마저 적에게 토멸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 의병들의 항쟁(1980) 345 · 346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607 · 608 · 60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321면

전규문

공적내용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태권리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남원 등지의 동지를 규합하여 거사를 계획하였으며, 1907년 정미의병이 다시 일어나자 구례, 곡성 등지에서 의병항쟁을 벌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1908년 2월 30일 구례 · 등지에서 의병 14명을 인솔하고 군자금 및 무기를 모집하였으며 결국 일경에게 체포되어 1909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부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09년 9월 16일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다.

출옥한 후에는 집에도 들리지 않고 당시 금지(金池)주재소를 찾아가 왜경을 구타하고 기물을 부순 다음, 그 길로 영영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 판결문(광주지방재판소 1908)

조규하

공적내용

조규하는 전라남도 순천(順天) 출신으로 일찍이 관직에 나아가 을사조약 당시 전라북도 임실(任實) 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때 당대의 거유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친일관료의 매국적인 행위를 규탄하여 의거를 결의하였다.

먼저 면암은 서울의 고관들에게 함께 거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들은 협조를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면암은 일찍이 낙안(樂安)燒楡(任實) 군수를

지낸 바 있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여 군사적 경합이 풍부한 둔헌 임병찬(澁軒 林炳贊)과 제휴하여 그의 권유를 받아 태인(泰仁) 지방을 의병운동의 근거지로 정하게 되었다.

그후 면암은 호서 호남 각지로 사람을 보내어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조규하는 면암의 창의문(倡義文)에 동조하여 글월로써 동맹을 맺고 관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면암 의진의 동맹록(同盟錄)이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1906년 윤 4월 13일(음력)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유생 80여 명의 호응을 받고 많은 포수들이 의진에 합세하였다.

자못 기세를 떨치게 된 의진은 순창(淳昌)으로 진출하여 민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순창에서 병력을 증강시킨 후 담양(潭陽)으로 진출하려다가 광주 진위대, 남원·전주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일본군이 아닌 대한의 관군과 전투를 할 수 없다는 면암의 권유로 의진을 해산하고 의병장 이하 13인은 체포되었다.

그후 조규하는 승주(昇州)지방에서 독자적인 의진을 구성하고 의병장이 되어 많은 의병을 모병하고 무기와 군자금을 조달하였다. 의진의 구성이 갖추어지자 승주·보성(寶城)·여수(麗水) 등지에서 적군과 여러 차례 접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08년 8월 25일 아밤중에(혹은 1910년) 곡성 선주산(仙住山 혹은 仙蹟山)에서 접전하다가 적의 해침을 당하여 순국하였으며, 그의 내종제 유준기(柳駿基)가 시신을 수습하여 겨우 안장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368·369·373 38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73·74·75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68면

최양옥

공적내용

강원 횡성(橫城) 사람이다.

1917년 원주보통학교(原州普通學校)를 졸업하고 동년 3월 서울 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학교를 중퇴, 고향인 횡성으로 내려가서 동지를 규합한 다음 천도교(天道敎)인들과 합세하여 3월 11일 횡성을 장날에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농림주식회사(農林株式會社)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담하여 전남(全南) 각지에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냈다. 계속해서 신덕영·노기주(盧基準)과 같이 전남 담양군(潭陽郡)과 곡성군(谷城郡)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에 나서며 1920년 11월 5일 노기주와 함께 광주(光州)로 가던 중 일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언도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6년 출옥한 후 만주로 망명한 그는 중국 산서성 태원부(中國 山西省 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男)·신덕영(申德永)·김정련(金正連) 등과 함께 독립운동단체인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하였다. 또한 1927년에는 단원들과 더불어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북만주(北滿洲)에 비행학교(飛行學校) 설립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의 모집과 공명단지부(共鳴團支部)를 서울에 설치하기 위해 김정련·이선구(李善九) 등과 함께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였다.

동년 4월 20일 동지들과 서울 망우리(忘憂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춘천(春川)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권총으로 엄습하여 자금을 마련한 뒤 강원도 방면으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일행의 행적은 곧 일경에게 알려져 경기(京畿)·황해(黃海)·충북(忠北)·강원(江原) 등 5도의 경찰과 일본군 제19사단을 상대로 그와 동지들은 양주 천마산(楊州 天麻山) 일대에서 용감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이 거사로 1929년 9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고경보고서(1920. 12. 8 고경제37855호)

고등경찰오사 175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2권 368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0·231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6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635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74 68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806·807면

최익헌

공적내용

본은 경주로서 최치원(崔致遠)의 후예이다.

18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군 내북면 가체리(抱川郡 內北面 嘉里)에서 대(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타고난 자질(資質)이 뛰어나서 초명(初名)을 기남(奇男)이라 하였다.

가세가 가난하여 4세 때 단양(丹陽)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1846년 14세 때 부친의 명에 따라 화서 이항노(華西 李恒老)의 문인이 되었는데 면암이라는 호는 화서에게서 받은 것이다.

23세 때 명경과(明經科)에서 갑과(甲科)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재임 중 면암은 꾸준히 부정부패와 구국항일 투쟁을 전개하여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다. 그의 정치사상은 화서 계열의 위정척사(衛正斥邪)이었으며, 공맹(孔孟)의 왕도정치(王道政治) 구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면암은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이는 1868년의 시폐4조(時弊四條)의 상소와 1873년의 오조상소(五條上疏)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대원군(大院君)을 하야(下野)시킬 수 있었으나, 그 역시 유배당하여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로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지만 1895년 명성황후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상소를 통한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미 1875년 개항(開港)에 반대하여 이른바 "지부복궐 척화외소(持斧伏闕 斥和議疏)"를 상소한 바 있지만 1906년까지 30편의 상소를 올려 시종일관(始終一貫) 위정척사 사상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개항에 대한 면암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1875년 상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번 화친을 맺는 날 저 적(賊)의 욕심은 물화(物貨)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물화는 사치 기완(奇玩)하고 수공생산물(手工生産品)이어서 그 양이 무궁한 데 반하여 우리의 문화는 모두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토지생산물(土産品)으로 그 양이 유한합니다.

따라서... 교역을 한다면 우리의 심성(心性)과 풍속은 패퇴할 뿐만 아니라 그 양은 틀림없이 일년에도 수만에 달할 것이니..... 이에 따라 나라 또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말년에까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이 굴절될 우려가 있는 관직생활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암의 상소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각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대원군이 1894년 재집권하게 되었을 때, 개항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표명한 면암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제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1895년 6월 상소를 올려서 일본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개혁의 모순을 지적하였는데 이 때문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큰 면암을 선유대원(宣諭大員)으로 임명하였으나, 면암은 응하지 않았다.

1898년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궁내부 특진관(宮內部 特進官)에 임명되었으나, 수무비 명대의(修武備 明大義) 등의 시무책 12조를 들어서 상소하였을 뿐 응하지 않았다.

1904년 노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나자 고종이 다시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날로 기울어 가는 국운(國運)을 좌시할 수 없어 고종을 알현하고 오조수책(五條袖節)을 상주(上奏)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2차레나 감금된 상태에서 드디어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민영환(閔泳煥)이 자결하자, 면암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을미 사변 때의 역적이 실로 만고의 대역적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 다만, 이 을사 5적들은 죄가 오히려 아비나 임금을 죽인 것보다도 더 심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대역적들을 오히려 용납하여 일시라도 천지 사이에 그대로 살아 있게 할 것이겠습니까.

저 5적들이 비록 외세에 의지하여 군부(君父)를 헐박하는 것이나 역시 폐하의 신하인데, 어찌 차마 이 역적들과 더불어 같은 하늘을 이고 아직도 처벌을 내리지 않나이까...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죽어 가는 말이라고 하여 귀에 흘려 버리지 마시고, 속히 국적을 토멸하는 동시에 허위 조약을 거부하라는 신의 요청을 단행하여 국가의 멸망을 돌이켜 다시 보전할 수 있게 하소서. 신은 통곡하여 숨이 끊길 듯함을 어쩔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이만 아뢰옵니다.

이상의 상소를 통한 평화적 항일구국운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무력투쟁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때 면암은 74세의 고령이었다.

1906년 2월 면암은 가묘(家廟)에 하직을 고하고 호남으로 떠나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하였다.

처음에 상경하여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인들의 방해로 상경하지 못하였다.

다시 판서 이용원(判書 李容元)·김학진(金鶴鎭)·이도재(觀察使 李道宰)·이성렬(李聖烈)·이남규(參判 李南圭)·곽종석(郭鍾錫)·전 우(田愚)에게 편지를 보내어 함께 국난을 타개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면암은 문하생 최제학(崔濟學)을 전 낙안군수(樂安郡守) 임병찬(林炳贊)과 연락케하여 전라도에서 거의(學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의 의병활동은 태인(泰仁)과 순창(淳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은거지인 포천을 탈출하여 태인에 이른 것이 1906년 3월 24일, 거유 면암의 부름에 호응한 인물은 이정규(李正奎)·김 준(金準, 泰元)·조재학(曹在學)·이양호(李養浩) 등이었다. 기우만(奇宇萬)과도 만나 거사를 상의하기도 하고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궤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문인들을 중심으로 동맹록(同盟錄)을 만들게 하니 4월 10일 현재 113명에 이르렀다.

4월 13일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 궤기를 위한 강회(講會)를 열어 당일 80명의 호응을 얻고 각지의 포군들을 모집하여 무기를 준비하였다. 창의(倡義)에 앞서 민영규(閔泳奎)를 통하여 기병소(起兵疏)를 올려 그 목적을 천명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오를 갖추고 4월 13일 태인읍으로 들어가니 군수 손병호(孫秉浩)는 소문을 듣고 도망하여 십사리 태인을 접수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수비케 하였다. 이 때 일본영사관에는 16개항의 죄목을 들어 규탄하는 글을 보냈다.

이튿날(14일) 정읍(井邑)으로 진군하니 군수 송중면(宋鍾冕)이 의병을 맞

이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시 무장을 강화하고 의병 소모(義兵 召募)의 방을 붙여 100여 명의 장정이 증원되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장사(內藏寺)에 유진(留陣)하니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많은 포수들이 호응하여 의진은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5일 구암사(龜巖寺)를 거쳐 16일 순창읍으로 들어갔다.

17일 곡성(谷城)읍으로 진주하였다가 18일 중진원(中津院)을 지나 남원(南原)으로 진군하려는 데 남원은 이미 방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길을 돌려 순창으로 회군하였다. 그러는 동안 의병부대는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 전주의 관찰사 한진창(韓鎭昌)과 순창 군수 이건용(李建鎬)이 의병을 거느리고 습격해 왔다.

19일 새벽 면암은 임병찬에게 명하여 접전케 하였으나 길이 어긋나 교전은 없었다. 얼마 후 순창 군수가 면암을 찾아왔다. 면암은 그의 목을 베이고자 하였으나 임병찬의 만류로 중지하고 선봉장으로 삼았다. 그간에도 사방에서 애국 청년들이 몰려와 군사 수 800여명으로 늘었으나 무장을 갖춘 사람은 200여 명에 불과하였다.

20일 새벽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의병을 해산하라는 황제의 칙지(勅旨)와 고시문을 보내왔다.

면암은 기병소(起兵疏)를 올렸으니 곧 황제의 비답(批答)을 받게 될 터 인즉 일개 지방관찰사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 때 이미 옥과(玉果)와 금산(鎭山)에 관군과 의병들이 출진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여 시면으로 공격하여 왔다.

면암은 그들을 맞아 싸우고자 하였는데 척후병의 보고에 의하여 그들이 일인이 아니라 전주·남원 진위대로 구성된 관군임이 판명되었다. 당시 의병들이 당면하였던 난제(難題)는 관군과의 접전이었다. 의로운 의진의 행군을 막는 자는 모두 일인들의 앞잡이이므로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면암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치는 것을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의진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모두 흩어지고 22명이 남아서 면암을 호위하고 있었다. 관군의 공격은 집요하였다.

8시경 정시해(鄭時海)가 유탄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21일 새벽 면암과 호위 유생 12인이 남았고, 관군이 시면으로 포위해 들어왔다. 이때 이들은 경전(經典)을 돌아가며 외우고 있다가 체포되었다.

22일 광주 고문관 강도행차랑(綱島幸次郎)의 심문이 있었고, 23일 전주 진위대 김희진(金熙鎭)과 의병에 의하여 압송되었다.

면암과 임병찬은 가마에 타고 나머지 11인은 줄지어 묶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면암을 끝까지 따라간 유생들은 임병찬을 비롯하여, 고석진(高石鎭)·김기술(金箕述)·문달환(文達煥)·임현주(林顯周)·유종규(柳鍾奎)·조우식(趙愚植)·조영선(趙泳善)·최제학(崔濟學)·나기덕(羅基德)·이용길(李容吉)·유해용(柳海容)이었다.

서울에 있는 일군 사령부에 갇혀 6월 26일 형을 받게 되었다. 면암은 감금 3년, 임병찬은 감금 2년형을 받고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 7월 9일 대마도에 도착하니 이미 홍주(洪州)의진에서 체포된 80명중 9인이 유배되어 와 있었다.

정산(定山)의 이 식, 예산(禮山)의 남경천(南敬天), 보령(保寧)의 유준근(柳濬根, 홍주(洪州)의 안항식(安恒植), 부여(扶餘)의 이상두(李相斗), 남포(藍浦)의 최중일(崔重日), 홍주(洪州)의 신보균(申輔均), 신현두(申鉉斗), 비인(庇仁)의 문석환(文奭煥) 등이었다.

여기에서 면암을 비롯한 11인은 시를 지어 우국지정과 불우한 처지를 달랬다.

면암은 이 시기에 수 십 편의 시를 남겼다.

기자(箕子)가 오실 적에 도(道) 함께 따라와서

일본이나 서양이나 그 범위에 들었거늘
모르매라 조물주는 무슨 심사로
나더러 대마도를 보라 하는지

箕聖來時道己東 扶桑若木範圍中
未知造物緣何事 使我終觀馬島風

일인 경비대장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후 면암은 단식으로 자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병찬으로 하여금 황제께 올리는 유소(遺疏)를 받아쓰게 하였다. 일인들이 놀라 자신들은 경비 책임만 있을 뿐 음식은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함께 유배된 의사들이 울면서 식사를 권하는 바람에 마침내 단식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74세의 노령으로 거친 의병생활과 감금 유배 그리고 단식 등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 때문에 득병한지 1개월만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때가 1907년 1월 1일(음력 1906년 11월 17일)이었다.

면암의 유해가 부산에 도착하자 애국시민들은 철시(撤市)를 했고 남녀 노소가 유해 앞에서 통곡을 했다.

상여가 마련되어 정산(定山) 본가로 운구하는 데 곳에 따라 노제(路祭)로 전송하고 울부짖는 민중들 때문에 하루에 10리밖에 운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상주(尙州)에서 새재(鳥嶺)로 가는 길을 택할 수 없어서 김천(金泉)으로 나와 열차로 운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註· 기려수필 95·101면

매천아록 101·102·198·313·326·329·331·333·359·363·377·381·382·386면

면암집 107·108면

독립운동대사전 713면

항일의병장열전(김의환) 50·51·52면

의병들의 항쟁(강만길) 36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331·33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56·57·63·65·66·67·76·88·90·103·132·133·135·138·223·22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97·116·130면

곡성군 오곡면 압록마을의 닥밭 매는 노래

이옥희(동신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말

할머니 세대에서 발견하게 되는 전통사회 여성들의 넉넉한 품성과 인생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는 그들이 살아온 고단한 삶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역설적이다. 그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으며 정신적으로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시련을 겪어왔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네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에 짓눌려 버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품성과 인생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성들이 고된 삶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소통의 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요인 중의 하나를 민요에서 찾게 되었다.

민요는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불리지는 것이므로 민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일하면서도 노래를 불렀고, 의식을 치르면서도 노래를 불렀으며 놀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혼자서도 부르고 패를 나누어서도 부르고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노래를 불렀다. 현대의 예술은 노래부르기와 춤추기와 문학 활동이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통사회의 민요는 음악과 문학과 무용이 어우러져 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민요부르기의 전통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애환을 토로하고 숨은 끼를 발산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게 되는 것이다. 민요부르기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곡성군 오곡면 압록마을에서 수집한 닥밭 매는 노래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곡을 객관화하고 극복해내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한다.

2. 압록리 여성들의 민요

지난 2003년 여름 민속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곡성에서 현장 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자는 민요분야를 맡게 되었다. 그동안 곡성 지역의 민요는 논농사요를 중심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고 여성들의 민요로는 베짜기 노래와 시집살이요가 보고되었다. 특히 베짜는 노래는 곡성의 대표적인 산물인 돌실나이 삼베의 직조와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닥밭을 매면서 불렀던 노래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민요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곳은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이다. 섬진

강과 보성강이 서로 만나는 곳인 압록리는 섬진강 물줄기 중에서도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1530년대 김해 김씨 김종장金重章이 경남 산청에서 이주, 정착한 것이 입촌入村의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압록의 옛이름은 섬진강과 보성강의 푸른 물줄기가 합해진다고 하여 합록合綠이었으나 후에 철새들이 많이 날아들자 합습을 압鴨으로 바꾸어 압록鴨綠으로 지명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압록마을은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마을의 면적은 3.8km이며 155가구에 인구는 400명이다. 지금의 주요소득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과 식당이며 농가에서는 주로 단감, 밤, 매실, 복숭아를 재배하지만 과거에는 이 일대가 거의 닥나무 밭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에는 닥밭을 매는 것이 주된 노동이었다. 닥나무는 한지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한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닥나무 재배도 쇠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압록리는 철도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이정마을)과 아랫마을(압록마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 마을마다 마을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 또한 남녀가 모이는 장소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어울리는 분위기였다. 압록리에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셨지만 이 글에서는 오양림(98), 신판이(80), 강복순(68), 김은엽(74) 제보자가 들려주신 민요를 중심으로 하였다.

① 삼단 같은 요네 머리 딱밭매다가 다 뜯겼네

압록리 윗마을에 사는 오양림 할머니는 당시 나이가 96세였다. 그래서 올해로 98세가 되신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정말 단정하시고 기억력도 종종하신 편이었다. 그래서 아직 생존해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할머니는 곡성군 죽곡면 꼬치실에서 17살에 이곳으로 시집오셨다.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불렀던 옛날 노래를 불러 주라고 부탁을 하니 이 노래를 불러 주셨다.

삼단 같은 요네 머리 딱밭매게도 다 뜯기네
분통같은 요네 홀목 딱밭매게도 다 뜯기네
어서 매고 바삐 매고 오든 질로만 도시허세

할머니께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는 것이냐고 묻자 닥밭을 매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였고 예전에는 이 곳이 온통 닥밭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과일나무를 심으면서부터 닥밭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 노래를

통해 할머니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히 남아 있는 젊은 시절의 기억은 바로 닥밭을 매는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에서는 닥밭을 매는 노동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삼단 갈고 분통같은 젊은 여성의 머리와 손목이 닥밭을 매는 노동에 의해 다 뜯긴다고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실에서는 빨리 닥밭매는 작업을 끝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힘들고 슬픈 것은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도 그 무게를 덜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사연을 노랫말로 풀어내면서 그 무게는 한층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언술들이 노래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할머니는 이 세편을 부르시고는 더 이상 부르시지 않았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귀하게 생각되었다. 할머니가 부르시는 민요의 선율은 전형적인 전라도 동부 산간지역 여성들의 선법이라 생각된다.

② 지층개야 지층개야

압록리 아랫마을에 사는 신판이 할머니는 올해로 80세가 되신다.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에서 18살에 이곳으로 시집오셨다. 몸집이 가늘고 얼굴이 고운 할머니였는데 아직도 부끄럼 많은 처녀처럼 좁 처럼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할머니 노래를 들으려고 두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두 시간을 기다려서 들은 노래가 이 노래이다.

지층개야 지층개야 마산땅에 지층개야
 꺾잎 같은 울 어머니 속잎 같은 나를 두고
 어느 골로 홍치내서 나 큰 줄을 모르는가
 너 큰 줄은 안다마는 스물닷장 팻장 속에
 서른닷장 팻장 속에 열쇠 없어서 너 못 본다.
 삼단같은 요내 머리 소끔 쏘끔 속아갖고
 세상에 없는 베를 나여
 적승이라 이례장에 부모전을 보러가니
 온갖 제장을 다 지나가도 부모전은 아니났네
 먹저등아 먹갈아라 붓대중아 붓들어라
 부모 화상이나 그려가라

가느다란 음성으로 부르는 신판이 할머니의 민요는 슬픈 정서를 환기시킨다. 그 노랫말을 살펴보면 슬픔은 더해진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는 딸과 무덤 속에 있는 어머니가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기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아픔을 극대화한다. 딸은 어머니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 하고 삼단같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으로 베를

짜단. 노랫말대로 세상에는 없는 베가 되는 것이다. 그토록 귀한 베를 짜서 장을 보러갔건만 부모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밭매면서 부르는 민요에는 이처럼 슬픈 사실이 많다. 슬픈 사실이 많은 이유는 전통사회의 여성들의 삶이 슬픔을 내재하고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객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③ 진주낭군가, 밭에가면 바라구 원수

유난히 많은 민요를 불러주셨던 강복순님은 압록리 아랫마을에 살고 계시며 올해로 68세가 되신다. 할머니라 부르기에는 아직 젊으시다.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에서 20세에 이곳으로 시집오셨다. 강복순님은 노랫말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밤새 기억을 되새겼다가 다음날 다시 노랫말을 해주시는 성의있는 분이셨다. 압록 마을에는 비촌리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모두들 옛날 민요를 잘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강복순님은 진주낭군가, 시집살이요 등을 부르며 실제 눈물을 짓기도 했다.

울도 담도 없는 집어 시집 삼년을 살고나 보니
 시어머니 허시는 말씀
 낭군님을 보걸들랑 진주낭군에 빨래가라
 그말을 들은 이 마누라는 진주낭군으로 빨래가서
 흰 빨래는 회계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또드랑 또드랑 빨고나 보니
 천군같은 말을 타고 낭군님이 지나가네
 그것을 본 이 마누라는 집이라고 들어오니
 시어머니 허시는 말씀
 낭군님을 보걸랑은 아랫방으로 가라시네
 아랫방으로 가서 보니 술을 먹던 낭군님은
 기생첩을 엮구려 끼고 온갖 주정을 다 부리고
 그것을 본 이마누라 옥양목 석자로 목을 매어
 간곳 없이 가고 없네

진주낭군가는 70년대 대중가수들이 가요로 편곡해서 불렀기에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노래이다. 민요 진주낭군가는 전라도지역에서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승이 되며 서부 평야지역과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랫말에 진주라는 지명이 부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노랫말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가창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진주낭군가는 일정한 스토리를 지닌 서사민요이다. 주인공은 공부하러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가난하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어내고 있는 여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기생

침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 장면을 본 마누라는 옥양목 석자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다른 각편에서는 본처의 죽음을 알게 된 남편이 "화류정은 삼년이요 본처정은 백년인데 나 이럴줄을 왜 몰랐던가"하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이어지기도 한다.

진주낭군의 주인공은 전통사회 여성의 실제 모습이면서 전통사회 여성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허구적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도 여성은 서사민요에서처럼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어 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사민요의 주인공처럼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정을 주더라도 자살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자식과 친정 식구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현실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허구적 주인공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할 수 있고, 남성에게는 반성과 각성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복순 님에게 또 다른 시집살이 노래를 부탁하자 이번에는 흥글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다.

밭에 가면 바라구 원수 눈에 가면 가리 원수

집이라고 들어오면 시누 원수

시(세) 원수를 어찌은 종까

시어머니 잔소리는 슬비산 소리 시아버지 잔소리는 작나무 소리

작나무 소리를 열두 번을 듣제 슬비산 소리는 아이고 나는 못 들어

여성들에게는 세 원수가 있다. 밭에 있는 풀인 바라구와 눈에 있는 풀인 가리는 매도 매도 또 돌아나서 여성들을 힘겹게 한다. 그런데 이렇듯 심한 노동만 힘든 것은 아니다. 집에 오면 시댁 식구들이 여성들을 괴롭힌다. 시댁 식구들은 다 어렵지만 이성인 시아버지 보다는 동성인 시어머니의 구박이 더 참기 힘든 것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바라구, 가리, 시댁 식구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원수로 표현한 것도 재미있고 실제 생활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듯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내용이 노래 속에서는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재미있다. 이렇게 원망의 말을 노래로 쏟아내고 나면 마음은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④ 예야 디어로 사나지로구나

여성들이 밭때면서 앞의 노래처럼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노래는 압록마을 부녀자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로 일반적으로 <산아지타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민요이다. 이 노래를 불러 주신 분은 아랫마을의 김은엽 할머니이다. 김은엽 할머니는 올해 74세로 구례군 용림리에서 시집왔다. 김은엽 할머니는 목청이 좋고 매우 유쾌한 분이셨는데 재미있는 사설을 많이 불러주셨다.

니가 잘 나서 천하일색이나 내눈이 어두워서 환장이로구나

예야 디아 어허허~허야 예야라 디어라 사나지로구나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간디 찬물이야 냉수는 입안에 빙빙

예야 디아 어허허~허야 예야라 디어라 사나지로구나

시들시들 봄배추는 밤이실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예야 디아 어허허~허야 예야라 디어라 사나지로구나

산아지타령은 전라도 동부지역에서는 논매기를 할 때 풍장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여성들이 밭때면서 부르기도 하고 놀면서도 부르는 매우 인기있는 노래이다. 김은엽 할머니는 이 노래를 닥밭을 때면 서도 불렀다고 한다. 필자가 할머니께 밭때면서 이렇게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힘이드게 노래를 하는 것이라 했다. 비를 맞고도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하면 재미져서 힘든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이다.

산아지타령은 일판을 놀이판으로 만드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노래라고 생각된다. 산아지타령을 할 때에는 앞소리를 한 사람이 부르면 나머지 사람이 뒷소리를 부르면서 서로 어우러지게 된다.

3. 나오는 말

압록리 여성들이 부른 닥밭 때는 노래는 전라도 동부지역 여성들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자신의 사연을 그대로 사설에 담아낸 <삼단같은 요내 머리>,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지중개야>, 허구적 인물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객관화하고 있는 <진주낭군>,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밭에 가면 바라구 원수>, 노동의 힘겨움을 노래로 잊는 <산아지타령> 등은 여성들의 문학이자 예술이자, 삶이었다. 이러한 민요가 있었기에 그들은 고단한 삶의 맺힘을 풀어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관조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에서 민요조사를 하면서 전통적인 민요조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현재 마을에서 주축인 60대의 어른들은 구전 민요보다는 신민요 또는 유행가가 익숙했다. 전통적인 구전문요를 기억하고 가창할 수 있는 분들은 70세 이상인데 이분들 역시 민요를 부르지 않은 시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사설은 물론이고 음곡도 많이 잃어버렸다. 토막사진을 연결하듯 겨우 기억을 되살려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민요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압록리에서 수집한 닥밭 때는 노래는 큰 의의를 지니다고 하겠다. 다시 압록 마을에 가서 100세가 가까우신 오양림 할머니의 닥밭때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하며 글을 맺는다.

곡성 In 詩

오소후(전남과학대 외래교수)

(1) 곡성을 만난다

곡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곡성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곡성의 문화와 역사 풍속 등의 이해를 돕고 감동을 안겨 드리고 싶다. 곡성 문화원에서 발간한 지리지, 곡성방목, 곡성문학 9호 등 책자들을 참고 삼았다. 먼저 옛사람의 글 몇 편과 근 현대 시인들과 현역 곡성문학을 발전 선양시키는 문학인의 작품을 선하였다.

곡성팔경으로 곡성의 이미지 부각을 한다면 동악조일(動樂朝日) 도림효종(道林曉鍾) 순강청풍(鶉江淸風) 압록귀범(鴨綠歸帆) 태안두견(泰安杜鵑)대황어화(大荒魚火)통명숙우(通明宿雨) 설산낙조(雪山落照)로 풀어 볼 수 있다.

제일 오래된 사찰부터 기록하자면 관음사(백제 분서왕 300), 도림사(신라 무열왕 660), 태안사(신라 경덕왕 742) 수도암 (신라 설두화상) 서산사등으로 열거 할 수 있겠다.

곡성의 산 이름은 동악산, 설산(안산), 비래산, 예산, 성덕산, 천덕산, 아미산, 통명산 등으로 산 마다 명결과 명인을 잉태하고 있다. 동악산은 날아가는 봉황새 형상으로 오지촌(梧枝村)과 죽곡면이 있다. 봉황은 동백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 산다. 또 한 봉황은 고양이를 꺼리므로 서쪽에 묘치(貓峙)가 있고 매추리를 보면 멈추기 때문에 북쪽에 순자강(鷄子江)이 있다.

곡성의 나무- 순자진 대황진, 압록진으로 강물이 흘러 보성강에 이른다. 남치(藍峙) 과치(果峙) 기우치(騎牛峙) 묘치(貓峙) 불노치(不老峙)등 큰 산악이 서쪽을 누르고 큰 강이 동쪽을 당긴다(巨嶽鎮西大江控東)다는 형승을 지녔다.

정자이름 이락정(二樂亭), 운강정(雲江亭), 수운정(水雲亭), 반구정(伴鷗亭), 상춘정(賞春亭)을 큰 소리 내어 읽어만 보아도 옛지명 욕내군(欲乃郡)으로 불리운 이래 곡성에 깃든 문기(文氣)를 느끼게 한다.

지도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산, 강, 사찰, 향교, 정자등으로 환경 설정을 해놓고 이 곳을 찾거나 머문 사람들의 시정을 더듬어 보면 곡성을 알고 느끼고 전해 줄 수가 있다고 본다.

(2) 옛 글의 정취를 밝아서

압록원(鴨綠院)

백 헌(白軒) 이경석 (李景奭)

골짜 속 안개의 한 물결이 일대에 비겼는데
거문고 노랫가락에 괴로움 더니
이별 후의 정(情)이라
어찌하여 지는 해가 갈림길에 임 했는가
강물이 도리어 변방 물 이름과 같은데

* 곡성이라는 말은 곡신(谷神)의 사상을 떠올린다. 무이구곡의 아름다움과 신령한 생각은 곡성의 자연과 일치한다. 석별의 정을 노래하며 압록강의 이름을 떠올린 듯 하다. 현재 압록원은 폐원되었다고 한다.

능파정(凌波亭)

진사 신 대 년(申大年)

백년의 호해(湖海)도
세 잔 술이요 만고(萬古)의
천지도 피리 하나의 가을이라

* 사람의 삶이 백 개의 호수, 백 개의 강물 바다로 셈하여 질 수 있다. 술잔으로 세잔에 불과하다고 설파를 했으니 도량이 얼마나 큰 진사 분이었을까? 무성했던 나무의 수많은 잎이 가을바람에 모두 떨어지고 만다. 한 가락 불어 본 피리소리에 불과한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능파란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뜻한다.

청계동(淸溪洞)

양대박(梁大撲)

산도깨비 밤에 금가마솥 불을 엮고
물새는 낮에 들숨 연기에 깃드네

*청계동은 동악산에 있다. 의병장이며 도인이었다는 양대박이 누대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마치 한산과 습득의 한산시를 대하는 느낌이다. 이런 경지의 선풍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낸 양 대박을 만나보고 싶다.

진사 오천뢰(吳天賚)

신선골이 삼 십 육 개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계(淸溪)
라네

*이 시귀절을 통해서 신선골이 삼 십 육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는 지적 만족을 주는 동시에 감흥을 돋군다. 서계동에서는 죄치
원이 높았다는 기록이 있다. 주무숙의 태극설을 중심으로 신유교적
인 성리학의 발전을 살펴 볼 기회이다.

월화루(月華樓)

유 순(柳 洵)

나무그늘에 얽혀 있으니 달빛이 더디고
바람이 높은 누에 지나니 네 자리가 다 알맞고나
만학(萬壑)에 뜨는 산바람은
아침 비 개인 후요
처마에 떨어지는 산색은 석양(夕陽) 때로다
경치에 유련하기 술이 없지 않고
심정(心情)을 도야함은 시(詩)가 가장 좋도다 가소롭다
시행의 구기(拘忌)함이
몇 번이나 좋은 기약 막혔는고

*번역시는 원문대로 느끼기가 어렵다. 월화루에서 시를 떠올린 선
비의 마음이 지극하다. 구기(拘忌)란 꺼림이란 의미이다.
마치 한산과 습득의 한산시를 대하는 느낌이다. 이런 경지의 선풍
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낸 양 대박을 만나보고 싶다.

의운루(倚雲樓)

성 임(成 任)

루에 오르니 경치가 한 없는데
봉이 다 되매 홀로 머리를 굽적이네
빈 평상엔 소나무가 비로소 울고
먼 촌락에는 보리가을일세
관산(關山)에서 북쪽 바라보기에
신세(身世)는 동으로 흐르는 물에 부쳤다
낮과 밤으로 시를 많은 구름이 합하니
돌아가고픈 마음 거둘 수 없도다

* 오뉴월 의운루에 오른 선비는 망중한이다. 스스로 봉이 다 되매
라는 표현을 하고도 시를 많은 구름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
니 현실은 늘 불만이다.

명수색외경(冥搜塞外境 / 티끌 세상 밖의 경
치를 깊이 찾으니)

김극기(金克己)

팽택(彭澤)에 행장을 푸니
기쁘게 도령(陶令)을 만났도다
햇빛 조이니 화기(花氣)가 따뜻하고
바람이 급하니 대(竹)소리가 차고나
버들 언덕에 피꼬리가 울고
연꽃 못에는 백로(白鷺)가 한가롭게
티끌 세상 밖의 경치를 깊이 찾으니
한 번 웃으며 낮빛을 쫓도다

* 자연과 사람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 자연의 일부라고도 했다. 맑
은 세상은 화기, 냉철, 청아, 한가함으로 가득하다.

분송(分松)

남 추(南 湊)

한 떨기 화분(花盆)의 즐기 연약한데
천추(千秋)의 눈(雪)과 같은
자태(姿態)는 호걸스럽구나
누가 능히 너의 굵은 것을 펴주리오
바로 스쳐가는 저녁 구름만 높은데

* 나이 28세에 졸(卒)한 전적을 지낸 분이다. 중종조 문과 장원을
하였다.

(3) 현대의 문인들의 작품으로 시선을 옮겨 간다
(곡성문학 2005년 통권 9호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선정한다.)

자연학교

임 보(충남대학교 교수, 시인)

그것도 괜찮으리
시골 학교 교장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느린 사람들만 아직 몇 남아
산과 들을 지키고 있는 산골
전교생이 모두 십여명
학년과 반 구분도 없이
한 교실에서 오순도순 지내는
그런 평화의 학교
거기
교사이며 교장이며 사환인
그런 삶도 괜찮으리

애들아, 오늘은 개울가로 가자
못생긴 물풍뎠이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치며

늘 보는 여귀풀이 얼마나 예쁜 꽃을 감추고 있는지
가서 찾아보자구나
책에 담긴 말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단다

그것들은 탐욕과 논리로 너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타고난 너희들의 천진과 평화를 더럽힐 뿐
믿을 만한 가장 정직한 책은
너희 곁에 저렇게 펼쳐진 산과 들이란다
굳은 땅을 뚫고 돌아나는 어린 싹들
햇살에 반짝이는 곤충들의 투명한 날개
허공을 맴도는 수리의 날카로운 날개
허공을 맴도는 수리의 날카로운 눈매
황소의 단단한 뿔
향긋한 속 냄새
종달새의 간지러운 지저귀음
모두가 다 너희들의 정직한 스승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일 뿐
교장은 종일 뒷집이나 지고 서서
흘러가는 구름이나 바라보고 서 있겠구나

*섬진강 문화학교에 발맞추어 '자연학교'라는 시는 자연합일의 메세지가 가득 담겼다.<자연학교>는 문교부우수도서로 지정되었다.
우이시의 원로이신 임 보 시인은 곡성의 자량이다.

목탁 · 2

차창룡(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인)

몇억 광년의 세월을 흘러 별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속도는 보이지 않는 소리이다 날아가라 어서 목탁소리여 이 목탁 **닿고 닿아** 먼지가 되면 돌아오리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며 아득한 광년의 거리 너머 빠른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목탁소리 별은 먼지이므로 눈에 들어가 눈물 흘려보낸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여준다.

*별빛이 목탁소리이다. 몇 억 광년이 지나면 목탁이 많아져 먼지가 된다. 별이 먼지이고 그리고 소리는 안보이니까 별로 보여 준다 라는 상상력으로 무한대의 공간과 시간을 사유할 수 있어 좋다. 누구에게 우리는 목탁소리로 안겨 본 일이 있는가? 시집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미리 이별하는 노래) 김수영문학상 수상.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차창룡(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인)

오늘도 똥을 밟았다

날마다 똥을 밟는다
개똥 소똥 사람똥
가리지 않고 잡식성으로 밟는다
오늘은 미끈한 사람똥을 밟았다
밟고는 뒤똥 미끄러지다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았다
똥을 보았다
기름진 미색의 똥
똥도 나를 본다 똥 씹은 표정의 나
똥이 일그러진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눈도 없나
멀쩡한 나를 밟고 다니게
하면서 콧김을 승승 내뿜는다
나는 할말을 잃고
침만 뱉 뱉었다
침은 직사포로 날아가 똥 속에 박힌다
몇 송이 거품만 보글보글 뚫다가
이내 사라진다
너석, 똥에 동화된 것인가
화가 난 나는
호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신문지를 꺼워
똥 위에 눌러버렸다
社說:어른스런 政治
-5共非理 합리적으로 철저히 밝혀야

이럴 수가 있는가
똥의 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신문지를 뚫고 똥이 일그러진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똥이 마렵다

*생리적인 표현은 유머도 기찬 유머가 된다. 풍자와 해학은 말해서 무엇하랴.

청계동(淸溪洞)

김택수(德山 金澤洙)

路入靑溪 別有天(로입청계 별유천) 길 따라 청계동에 들어오니 별천지가 있고
淸流斜日 正西懸(청류사일 정서현) 이 맑은 놀이에 기우는 해 서산에 걸렸구나

柏松遠近 皆山巔(백송원근 개산악) 멀고 가까운 송백나무 숲은 모두 산봉우리이고
石谷高低 盡水泉(석곡고저 진수천) 들 골짜기 높고 낮은 곳은 다 물과 샘이로다

洲憫人間 頻發興(주민인간 빈발흥) 술 익어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흥이 일고

茶煎野麴 暗生煙(다전야방 암생연) 차 끓이는 들 부엌에
는 연기가 아롱이네

層亭一上 無塵事(층정일상 무진사) 층층의 정자에 한번
오르니 세간일 다 잊고

奇絶斯筵 却作仙(기절사연 각작선) 기절한 이 자리에 문
득 신선이 되었구나

*청계동에 가면 시가 보인다. 자연은 의구하고 사람들만 역할이
바뀌는 느낌이 든다. 한시 한 수가 미래 사람들에게 좋은 시적 감흥
과 자료가 될 것이다.

元達里의 아버지

竹兄 조태일(조태일문학관)

모든 소리들 죽은 듯 잠든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九山の 하나인 棟裡山 속
泰安寺의 중으로

서른다섯 나이에 열일곱 나이 처녀를 얻어

깊은 산골의 바람이나 구름
멧돼지나 노루 사슴 곰 따위
혹은 호랑이 이리 날짐승들과 함께
오손도손 놀며 살아라
칠남매를 낳으시고

난세를 느꼈는지
산 넘고 물 건너 마을 들며
젊은이들 모아 夜學 하시느라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여순사건 때는
죽을 고비 수십번 넘기시더니
땅뽕기 세간 고스란히 놓아둔 채
처자식 주렁주렁 달고
새벽에 고향을 버리시던 아버지.

삼십년을 떠돌다
고향 찾아드니 아버지 모습이며 음성
동리산에 가득한 듯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
폐허뿐이네 적막뿐이네.

*조태일 문학관에서 조태일 시인님의 활동과 시집 그리고 시적 에
스프리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꺼이는 것은 지조가 있다

윤석주(시와 사람) 신인상, 우이시 동인)

갈대밭으로 속으로 난 길을 걷는다
구불구불한 길이 평탄치 않게 살아온
사람의 여정 같아서 조금은 정겹다
젊은 날 꿈을 키우던 시절
옳다고 믿었던 마음,
하늘 향해 우뚝우뚝 키우던 시절
모진 세파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았던 꽃꽂한 정신,
한질 넘게 자라 탐스럽게 꽃피운 갈대밭에서 본다
느릿느릿 해탈 하면서
풀어진 마음 다독거리며 걷는 길
가고 오는 사람 없었는지 길은 묵었고
허리 꺾인 갈대가 장검을 들고 나를 노려본다
만개한 갈대꽃 사이사이
꺾인 갈대들은 꽃을 피우지 않고
시퍼렇게 시퍼렇게 칼만 갖고 있다

*시는 발견이다. 문화해설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스스
로 질려 버릴 것이다. 역사를 근거로 혁신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야 한다. 일상의 탈피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열연이다. 윤
석주 시인의 시안(詩眼)을 닮아 간다면
곡성을 해설하는 수준이 지역성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섬진강 청계동에서

이금노

청계동 정철봉에 올라서
청계와 정철을 찾았더니
넙은 보이지 않고
사뭇골 반석이 영겁에 달아
쉽 없이 내달려
동악*의 계곡이 깊고 푸르르다

그 끝에
한번
환장하게 빠져서
한 이틀
미쳤다 가도 좋겠다

내 한사코
숨어버린 넋을 찾아
따져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골짜기를 가르킨다
 묵방골 '
 사샘골
 밤질골
 그 골이 淸溪로다
 모두가 섬진강에 내려와
 한 사나흘
 빠져 죽을 만도 하겠다

* 청계동: 임진란 의병장 양대박의 호 '청계'를 딴 곡성지역 섬진강과 동악산

이 위치한 지역임

* 청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양대박의 호

* 정철: 조선중기의 문신, 시인, 호 송강(松江).

* 동악: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에 있는 산(높이 735m)

*이금노 시인의 시 한 편이 동악산 청계동을 금방 알게 해준다. 여러 번 청계동을 갔어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서 깊은 성찰이 되지 않는 데 이 시를 통해 훨씬 곡성이 가까이 느껴진다. 양대박이란 인물을 알기도 쉬워졌다.

양대박(梁大樸)

1544(중종 39)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의병장.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사진(士眞), 호는 송암(松巖)·죽암(竹巖)·하곡(荷谷)·성계도인(淸溪道人). 9후 14솔를 짓고 소왕국을 이루고 김상헌, 정철, 고경명, 김장생과 교분을 나누었다. 오룡마(烏龍馬)를 타고 가보인 명검으로 무예를 익혔다고 한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학관(學官)으로서 아들 경우(敬遇)와 가동 50명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실천한 사람이다.

같은해 6월 고경명(高敬命)이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유학(幼學) 유평로(柳彭老)와 함께 종사관(從事官)으로 활약하였다. 같은달 7일 정군(整軍)하고, 8일 출사(出師)하자 그는 전주로 가서 의병 2, 000명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과로로 발병하여 진산(珍山)의 진중에서 죽었다.

1786년(정조 10)10월 전라도 진사 이진희(李鎭熙) 등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병조참의로 추증되었으며, 1796년 9월 보국승록대부 판중추부사 겸 병조판서(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로 개증(改贈)되었다.

저서로는 《청계집 淸溪集》이 있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傳記로는 「梁大司馬實記」가 있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明人熊化와 自序가 있다. {권1}:각체의 詩 약 197수. {권2}:詩 약 115수. {권3,4}는 文이다. {권3}:請斬倭使書上松江鄭相國(辛卯에 倭使平調信과 蘇가 來朝하자 그들을 斬하자고 한 것), 倡義檄文(壬辰

亂倡義募兵時的 傳檄한 것), 倡義從軍記, 雲巖吊戰亡義士祭文(題 다음에 註殺만 있고 本文은 없다), 重修簡儀臺記(世宗大王이 세운 簡儀臺를 命을 받고 重修한 記), 祈雨祭文, 祭長子文, 祭鶴文, 擬漢王陵請勿王呂氏奏, 盜殺李輔國論(唐代的李輔國을 論한 것이다), 趙鼎張浚執優論, 呈府伯書. {권4}:金剛山紀行錄, 頭流山紀行錄, 附錄은 교우했던 문사들의 詩로 주로 次韻 詩가 약 15수가 있고, 鄭琢의 撰인 梁公傳, 祭義兵將梁公文, 題倡義檄跋이 있다. 끝으로 趙緯韓의 跋文이 있다. 梁大樸은 문학이나 行義가 兼備超凡하여 明人熊化는 序에 서 梁公이 文武兼得하여 蜀의 諸葛公에 비할 수 있다고 했다. 과연 梁公은 일찌기 李達, 白彰卿, 林順同과 같이 龍城唱酬錄에 실린 詩人으로 荷谷으로 부터 "諸詩俱清新, 但務勝, 故置於詞, 終不若梁公之回轉純熟也"라는 評을 받은 바 있으며 明人으로 詩名을 잘 알고 있었다 한다. 또한 그는 首倡義兵과 倭使를 斬殺할 것을 上書한 만큼 義節이 높고, 그의 문장 역시 氣象雍容, 法度森嚴하다.

영경귀 꽃은

오소후(전남과학대 외래교수)

던졌드나

네 몸과 네 혼을

등근달 얼굴과 별빛 두 눈의

백제 여인, 洪莊이여!

앞 못보는 元瑕 부친 위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시주물과 맞바꾸었드나

부친 원랑 눈 띄어

새벽 멧부리의 빛을 보게 하여

九十五壽를 지내게 하더니

洪莊이여!

玉果의 聖德山 관음사

금빛 관음상으로 앉아

또 다른 女人 沈淸을 보내니

그 아비 심봉사 눈 떠

저 들 모랭이 꽃들과

노을빛 가로지르며 나는 새를

보게 아니 했드나

다시 오늘 淸아, 淸아

나는 내 아비의 빛을 갖지 못하고

나는 내 어미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

이승골 五十壽 피غم든 얼굴

전설이 흐르는 목각 다리 아래

나는 보랏빛 영경귀 꽃 한 송이로 피어

이슬 한 방울 매달고 있나니

*성덕산 관음사를 알게 되어 이 시를 쓸 무렵은 습작기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 때였다. 유일하게 아름답고 관음이 모셔져 있는 관음사가 심청의 존재를 1700년전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두 번째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심 청이 되지 못한다는 일이 너무 슬펐다.

검정산과 성덕산이 만든 긴 계곡의 고적함에 이끌리어 관음사에 이르면 봄이면, 취나물 늦은 여름에는 엉겅퀴꽃이 유난히 고왔다. 내면에는 서러움이 가득하고, 뱀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풀밭에 핀 '한가꾸풀꽃'은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道林斷想

이미숙(금풍 공예사)

한때 이 곳에 든 적이 있다

별 불일 없는 일들로 오랜 동안 잊기도 했다
천년 전 파계승이 주장자를 내리친 이 곳에
썩은 등걸의 담쟁이 부서진 기왓장을 부들켜
안고 질긴 뿌리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록 먹는 자들
업적 쌓기 바빠 민생을 외면하던 때
콧심 거친 민초들 낫자루 던졌다지
질긴 나뭇 줄은 연기 절집으로 파고 들었다지

이곳도 이젠 돈을 내야만 들 수 있다
마른 솔가지같은 할마시들이나
굽은 등을 업고 어찌다 오를 뿐이다
너럭바위 미끄러지는 옥구슬을 손아귀에 움켜볼까
밤새 잠자지 않고
쏟아지는 빗물에도 아랑곳 않고
온밤을 저리도록 노래하는 귀뚜라미에게
나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이곳 悟道門을 32년만에야 다시 올랐다

*도림사를 세우려니 동악산이 춤을 추며 좋아했다던가. 도인들이 숲을 이루며 찾아와 수행정진을 하니 도림사라 하였다던가. 아홉 구비 도림계곡은 지방기념물 101호이고 신선바위는 30평이 넘는 다니 형제봉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선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겠다. 1982년 지방문화재자료 22호와 사찰내의 도유형문화재 119호 패불을 소장하고 있다.

곡성의 아름다움이 도림사에 있다면 도림사의 사상과 자연경관을 글로 표현하는 금풍공예사 주인 이 미숙님이 있어 잊지 못할 것이다.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가히 달인의 경지이니 다른 일을 물어 무엇하랴.

합허정 근처

오소후(전남과학대학 외래교수)

허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동근 기둥이 가둔 예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강하게 그려잡고 산 날들

마투는 한 때 우리를 떠받치던 사상이다
이제 빼그덕 거리며 속울음을 추스르는 시간
사위가 헛헛한 함실이다

갈대 숲 근처 물오리 떼들도 허무를 알기에 날아간다
순자강 물길도 허무를 태우고 흐른다
군지촌의 연자방아도 허무를 쫓다가 멈추고 만다
엉겅퀴풀이 여인에게 좋은 민방 한약재이라는 걸 알고서
왜 엉겅퀴꽃을 보고
시를 쓰고 싶어 했는가를 깨닫는다. 마침 <예술광주>
(1995년 봄여름호) 지면에 발표 기회가 있었다.

막막한 허무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는가
담힌 작은 방으로 드나들던 바람이여
너의 길은 사방으로 트였다

*조선 중종 38년(1543) 심 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 위해 지은 정자로 호연정이라고도 한다. 증손자 심 민각이 오래된 정자를 옛 터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으며 5대손 심세익이 고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80년에 수리를 한 것이다. 앞면 4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구성은 마루 1칸을 3면을 터 만들었고 2칸 반은 방으로 꾸몄다. 나머지 오른쪽 반 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쪽마루를 두었다. 정자 아래로 흐르는 심진강, 울창한 숲,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심 광형이 세운 군지촌정사(중요민속자료 제155호)가 있다. 당대 학문을 익히던 선비들의 수양지와 휴식처를 빼어난 경치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옥과면 소재지에서 순창방면 27번 국도를 타고 옥과면 무창리 삼거리에서 남원방면으로 곡성 공장 금호타이어를 옆으로 지나 4분 정도 가면 군데 군데 돌아난 풀에 뒤덮인 강이 보이기 시작한다. 멀리서 보더라도 마을 언덕에 위치한 합허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곡성군홈페이지 제공)

소설가 이재백 선생님이 목사동, 아산 조방원 화백이 연화리를 지키고 계신다. 수도암의 설산과 신승경장군의 비래산, 순자강, 압록, 유팽로의 말무덤, 아미산의 천태암 돌실나이, 낙죽장도 아직도 소개할 문화예술이 산재해 있는 골짜기나라에는 기차여행, 코스모스

꽃길등 다시 한 번 지면에서 만나보고 싶다.

공선옥 선생님의 소설을 흥미있게 읽고 나면, 김준웅 선생님의 소설이 진진하게 읽힌다.

신상미 소설가의 <알리자린과 인디고블루>는 해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필독 소설이다. 『곡성문학』158 ~ 159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단청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찰소개를 할 경우 유용하다.

"단청(丹靑)이란 원래 안료를 만드는 광물질인 단사(丹沙)와 청황(靑黃)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두 가지 빛깔이 차고 따뜻한 음양을 상징하고 여기서 안료의 배합에 따라 여러 빛깔이 나오죠. 이 강렬한 어머니 빛깔은 기원전 2500년 전 천연염색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알리자린이 곡두서니뿌리와 인디고블루가 쪽에서 나온다니..."

*소설가는 신(神) 다음 가는 존재라고 하던가? 무엇이든 잘 알고 대중에게 알아듣게 이야기 해주는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쓰시는 훌륭한 소설가들이 생존한 골짜기나라는 역시 산자수명한 곳이라서 문화인물이 깃들어 계신다고 보아진다..

은구어(銀口魚)

오소후(전남과학대 외래교수)

당신에게서는 수박향이 난다지요
태어나면서 부모를 잃어도

당신에게서는 수박향이 난다지요
돌이끼만 뜯어 먹고 살아서

당신에게서는 수박향이 난다지요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 올 줄 알아서

(은구어 한 마리 검은 돌 위에 밀리며 가장 귀한 시림이 오면 그를 위해 수박향 내음 칼국수를 말아 드릴란다.)

*곡성의 맛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맑은 은어 맛이다. 섬진강 은어 맛은 향수를 자극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은 어딘가? 귀소할 줄 아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대의 고향은 어딘가?

아버지의 잠 이순원

"너, 며칠 전 여기 왔다잖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악산에서 꽤 규모 있는 음식점을 하다가 지금은 구례로 내려가 작은 야생 차밭을 하는 친구였다. 거의 반 년 만에 하는 통화인데도 나는 한없이 가라앉아 있는 기분으로 받았고, 그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른 안부없이 대뜸 그렇게 물었다.

"며칠 전 언제?"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 될 대답을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하다가 마치 거기에 갔다오기라도 한 것처럼 되묻고 말았다. 지난 5월 그곳 차밭에 다녀온 걸 마지막으로 그도 나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래 잘 지내겠거니 여기던 친구였다. 가깝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만나더라도 다음 만날 때까지 서로 잊은 듯이 지내도 좋을 만큼 편한 사이였다. 단지 그가 전화를 했을 때 내 기분이 좀 그랬던 것뿐이었다.

"사흘이나 나흘 전에 말이지."

"아닌데...."

이번에도 나는 뒷말을 흐렸다. 뜻밖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요 며칠 사이 물 밑 같은 기분으로 거기에 다녀온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던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한번 더 그곳에 간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 내가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여행 일정도 빠듯했고, 그의 집에 함께 가기 불편한 동행도 옆에 있었다. 잠시 전 우물쭈물하다가 며칠 전 언제? 하고 되물었던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편하겠지만 알면 또 아는 대로 섭섭하기도 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벌써 석 달 전인 8월의 일이었다. 이제 와 새삼 며칠 전이라고 말할 일이 아니었다.

"왜, 누가 거기서 날 보기라도 했대?"

이번엔 내가 먼저 그렇게 물어보았다.

"그러니 하는 애가지, 여기까지 와서 연락도 안 하고 올라갔나 싶어서."

"거기 내 얼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우리 마누라가 말이지."

그곳 압록역에서 나를 보았다는 것이다.

"니가 한 손엔 커피를 빼 들고, 다른 손엔 복숭아를 들고 서 있더라."

"복숭아?"

"그래, 어떤 여자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는 널 부르지 못했는데, 다음 날 강 이쪽 다리 건너에서 다시 널 봤다더라. 니가 그쪽에서 여자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이번엔 부르니까 니가 대답도 않고 휘이휘이 그냥 산길을 올라가더라. 여자가 니 뒤를 따르고."

"거기가 어딘데?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본 데가."

문득 그것이 궁금해졌다. 가지 않았지만 간 것처럼 뭔가 머리 속에 집이는 게 있었다.

"구례 서쪽 끝이니까 곡성하고 구례 사이쯤 될 거다.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밤에?"

"밤에는 임마, 우리 마누라가 밤에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어서. 오후 늦게 저녁 다 된 시간에 봤다는데."

"뭔가 잘못 본 거겠지."

"너, 옷 중에 카키색 자켓하고 그보다 더 진한 코르덴 바지 없나? 그걸 입고 있더라는데."

그건 요즘 내가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이었다. 그렇게 입으니까 잘 어울려요. 지난 여름 그곳에 함께 갔던 여자도 최근 내 옷차림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더 자주 그걸 입게 되는지 몰라도 며칠 전 그녀를 만나러 나갈 때에도 나는 그 옷을 입었다.

"갔다 해도 지금 철이 어느 텐데 복숭아냐? 그냥 커피만 들고 있었다면 몰라도."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안 왔다간 거야?"

나는 거듭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썩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했다. 한동안 뜸하더니 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었다. 실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겪는 일이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경우는 더 자주, 그리고 상대가 잘못 본 것이라고 받아넘기기에 놀라울만큼 구체적인 모습으

로 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날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언제 갔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 전에 갔던 곳에서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날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설악산에 있을 때 그 친구도 한번 그런 전화를 했다. 복숭아 얘기까지 포함해 그의 아내가 본 것은 지난 8월 그곳에 갔던 내 모습인지도 몰랐다.

아까도 압록역이라는 말보다 복숭아라는 말에 더 놀랐다. 커피는 몰라도 그때 나는 분명 손에 복숭아를 들고 있었다. 여자도 함께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아내가 보았다는 내 옷차림은 어떻게 된 것일까. 요즘 입고 있는 겨울 옷에 지난 여름의 그 복숭아는.

그것말고도 궁금한 것은 또 있었다. 내 옆에 있던 여자의 옷차림은 어떤 것이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다. 하긴 그의 아내도 그에게 여자의 옷차림에 대해서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여름에 갔을 때에도 나보다 여자가 더 그의 차밭에 가보고 싶어했다. 차밭은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야생 차밭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들으면 전에 줬던 차까지 내놓으랴 소리라고 여자의 입을 막았다. 밭이란 여차피 야생이긴 마찬가지여서 잎을 따는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야생이다 아니다 해서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도.....하고 여자가 말했지만, 왠지 여자를 데리고 그의 집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누구 앞에 날 보이는 게 그렇게 싫나요?"

"그런 게 아니라....."

"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당신 옆에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요."

여자는 아직도 내가 자신의 이혼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여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서른아홉 살이 되도록(그러나 이것조차 확실하지 않은 살이라니)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서른 살인 그녀도 지금은 혼자인 몸이었다. 누구 앞에도 함께 나서지 못할 게 없는 사이였다. 그녀의 이혼력과는 관계없이, 단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누구 입에선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싫은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던 것이었다. 그러잖아도 요즘 그 일로 마음이 안개 속처럼 심란했다. 느닷없긴 하지만 석 달이나 지난 다음 그의 아내가 그곳에서 내 모습과 함께 여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도 어쩌면 그 안개 속의 일 때 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鄭得采 (全南科學大學 圖書館長)

자금성 紫禁城

歷朝大闕 紫禁城 역조의 궁궐인 자금성은
燦爛豪華 太市成 찬란 호화스런 큰 시를 이루었네

古世君王 施政處 고대의 군왕들이 정치를 베푼 곳으로
于今巨閣 至傳明 지금도 고루 거각이 분명히 전하네

風流晉代 聞既久 진 나라 때의 풍류를 들은지 이미 오래고
文蹟唐時 誦愈生 당나라 시대의 문적을 외우니 더욱 생생하네

白蟻浮榮 夢一場 뜬 영화는 흰 개미같이 한 장면의 꿈인데
乾坤漢清 乍遊覺 한나라 청나라 천지에 잠시 놀며 깨달았네

紫禁城---中國 明清 王朝 宮城 1420年 明國 成祖 南京 紫禁城 1373年 明國 太祖 建立

萬里長城 만리장성

歷朝大闕 紫禁城 역조의 궁궐인 자금성은
始皇新設 此長城 진시황이 새로 이 장성을 쌓았는데
萬里山頭 繼續成 만리의 산 머리를 계속하여 이루었네

全國壯丁 義是役 전국의 장정들 이 역사에 희생되니
英雄不得 總榮名 영웅은 다 영명을 얻지 못하였네

郭邊一面 溶溶水 성 주변 한쪽에는 솟구치는 강물이고
大野東便 點點嶸 넓은 들 동편에는 점점이 산이 높네

觀者如雲 追 喪 구경꾼이 구름처럼 밀려와서 넋을 잃으니
風平天清 鵲鳴情 바람 세고 하늘 맑아 까치소리 정이 있어라

萬里長城---中國 華北 內蒙古 境界線 秦始皇 完成 二千四百 明國 蒙古 侵入防止

北京頤和園 북경 이화원

今日始知 僂約緣 오늘에 비로소 신선 사는 곳 인연 있음을 알고
龍門深處 太平年 용문의 깊은 곳에 평화롭기만 하네

瑤琴玉瑟 倚天半 하늘은 반쯤 가려 서서 거문고 옥 피리를 불고
大鏞金鍾 調 傳 큰 쇠북 금종소리는 구름과 함께 전하네

湖草香生 愁喚起 호수 풀 향기 일고 시름을 불러 일으키니
樹孤花發 自明淵 외로운 나무 꽃 피어 저절로 물가에 밝네

天借勝地 修街宇 하늘이 좋은 터를 내리어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니
泰后荒垆 獨 連 서태후 묵은 집에 홀로 새소리 이어지네

天塔 천탑

高登似過 玉皇宮 높은 곳에 올라 옥황궁을 지나는 듯
豪氣方長 出世雄 출세한 영웅같이 호기 마냥 넘치네

湖側桃栽 成武陵 호수가에 복숭아를 심어 무릉 도원을 만들고
阜邊柳垂 躍魚空 언덕에 버드나무 드리우니 고기가 뛰네

層層築力 增見美 층층히 쌓는 힘 볼수록 아름다움이 더하고
漸漸重奇 憑孰功 점점히 거듭 기이함은 누구의 공로인가

生後天塔 初往到 출생후 처음으로 천탑에 오르게 되었는데
鄉山阻隔 惑茫窮 고향 산천은 가로 막혀 아득하네

天塔---中國 天津市內 湖水中央位置 高 百四十米 上層部 回轉

어린 조카의 죽음과 시의 출발 조태일 _ 시인

나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기슭에 있는 태안사에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큰 스님이 되라고 그랬는지 아버지께선 태안사(泰安寺)의 태(泰)자를 따서 우리 형제들의 돌림자와는 달리 태일(泰一)이라는 큰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런데 나는 스님이 못되고,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나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어긋난 길인지도 모르지만 문학이나 종교가 다같이 '인간을 위한 것'에 최종목표를 둔다고 볼 때, 아버지의 바람과 나의 길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동리산 기슭에서의 유년생활은 모든 것이 원초적인 삶, 바로 그것이었다. 진종일 동리산 기슭을 누비며 멧돼지, 노루, 늑대, 여우, 사슴 등과 어울려 지냈고 감, 밤, 뽕배, 머루, 다래, 칩 등으로 배를 채우며 유년을 보냈다. 어떤 때는 동무들과 어울렸고 어떤 때는 그 깊은 산골을 혼자 헤매면서 자연과 어울려 지냈다.

1948년에 여순사건이 터졌다. 우리 식구들은 그 살육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쳤었지만 하는 수없이 광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 유년생활 8년을 마감하고, 다시 말하면 천혜의 자연과 이별을 하고 황량한 도시로 밀려왔던 것이다. 태안사에서 8년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곳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시대적인 배경 탓도 있지만 워낙 산골짜기라 교과서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통한 사물예의 접근보다는 자연을 통한 사물예의 접근이 나의 문학적 토양을 기름지게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도 시를 쓰기 직전 한참동안 그 고향의 유년생활을 기억하는대로 더듬다가 마음의 평정을 얻은 다음 시를 쓰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유년시절에는 문학이란 것을 생각해 보지도 습작을 해보지도 못했지만 내 시의 원천은 이 유년생활의 자연 속에 고스란히 꿈틀거리고 있는 원초적 생명,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광주로 피난 온 지 2년도 채 안되어 6·25를 만났다. 태안사에서 피버린 내 나는 살육을 속기가 없는 말뚱말뚱한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영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또 그러한 동족간의 처참한 짓거리를 바라보아야만 했다.

빈털터리로 광주로 피난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우리 7남매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목구멍에 풀칠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논밭에 나가 하루종일 일드려 땅을 파야 했고, 물을 퍼 올리는 두레질을 하루에도 몇천번씩 해야 했다. 무등산에 새벽같이 올라가서 땀나무를 해야만 했고, 시장의 곡물전 곁에 어슬렁거리며 닭모이를 쓸어와야 했다. 간혹 틈이 나면 책을 읽기도 했지만 문학을 하겠다고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공부보다는 노동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그 들어가기가 바늘구멍 같다는 서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미술반에 들어갔다. 내가 주로 그린 그림은 서툰지만 동리산 기슭의 풍경들이 많았는데, 주로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산짐승이며 날짐승들이 화폭의 어느 구석엔가 꼭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림이나 문학이 나를 먹여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급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할 수도 없었고,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해 노동을 안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예술 같은 것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오직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자'였다.

그런데 광주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몇 개월이 안되어서 문학을, 그것도 시를 쓰기로 작심을 했다. 큰 사건이었다.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그 무렵 전국적으로 삼군사관학교 합격률이 상위 1%에 불과한 광주고등학교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인이 되고자 마음을 바꿔버렸던 것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조카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다. 큰누나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매형은 고시공부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있었고 누나는 매형 뒷바라지하러, 먹고살라 정신이 없던 때였다. 장에 나가 장사도 하고 때로는 행상을 하느라 어린 것 하나 제대로 보살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 정황 속에서 어린 조카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병을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병원 한 번, 약국 한 번 가보지 못하고 몇 달을 앓다가 바싹 마른 그 예쁘고 작은 입술을 혀바닥으로 빨아대더니만 그만 죽고 말았다. 요즘처럼 그 흔하디 흔한 유유나 주스 한 숟갈 못 먹고 당원을 탄 밥국물이나 강냉이죽만을 먹다가 어린 조카는 죽어갔던 것이다.

큰 충격이었다. 학교에 가서 월요조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학교 언덕뺨기 아카시아나무 밑에서 누워 눈을 감고 어린 조카의 죽음을 생각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혼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일 영혼이 있다면 어린 조카의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해 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그것은 권세인가, 황금인가. 종교인가, 문학인가. 장군이 될 것인가, 스님이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짙은 향기와 함께 내 얼굴을 간질이기에 눈을 떠보니 하얀 아카시아 꽃잎들이었다. 아니 그것은 어린 조카의 영혼이었고 분신이었다. 바로 '삼촌은 시인이 되라는 조카의 열렬한 부추김'이었다. 그렇다. 인간의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을 최고의 수준에서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문학, 특히 시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시인이 되자, 자유자재로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 되자.

그날부터 하루에 한 권씩 시집이든 소설이든 닦치는 대로 읽어 나갔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도 키가 큰 덕분에 맨 뒷자리에 앉아 읽어 나갔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다. 학교 공부는 딱딱했다. 기본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적은 꼴찌에서 두서너 번째였다. 방학만 되면 무전여행으로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여행중에도 하루에 한 권씩 읽어 나갔다. 동양의 고전, 서양의 고전, 한국의 현대소설, 현대시들을 닦치는 대로 읽어 나갔다. 그 중에서도 한하운, 서정주, 김현승, 김소월, 김영랑 등의 시가 비교적 마음에 들었다.

습작은 별로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백록담>이란 시조를 학교교지에 투고했더니 실어주었다. 문학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지은 시 <다시 포도에서>라는 시를 고3 때 써서<전남일보>신춘문예에 투고했더니 당선작 없는 가작 1석으로 뽑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문학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학력고사 입학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유인숙 꼴찌에서 두 번째인 학생에게 원서를 써주면 합격률이 떨어져 학교의 체면이 깎인다는 담임선생님의 간곡한 만류였다.

나는 대뜸 "선생님, 저는 그래도 서중학교 출신입니다. 교과서는 안 읽어서 학교 성적은 형편없습디만 온갖 문헌서적을 3년 동안 천 권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꼭 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그럼 너만 믿는다"라며 원서를 써주셨다.

시험결과를 합격이었다. 그 합격점수도 우리나라에서 단 한 대학에만 갈 수 없는 좋은 성적이었다. 나는 합격할 것을 믿어 일찌감치 경희대에 진학키로 마음 굳혀 놓았었다. 왜냐하면 경희대에는 주요섭, 황순원, 김광섭, 양주동, 조병화, 김진수 선생 등 유명한 분들이 포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유명한 교수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듣는 것이 영광 속에 즐거웠고, 그 자체로써 나는 시인이 다 된 것처럼 들떠 지내기도 했다. 들떠 있는 가슴속에,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 것은 모두 시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원고지에 옮겨 적으려고 하면 그 시상들은 모두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리고 원고지간에 붙잡힌 시상들은 불과 몇 단어나 몇 줄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여서 시 한편 쓰는 데 며칠씩 아니면 몇 달씩 걸린다. 과작인 셈이다.

아무튼 같은 과 같은 학년에 조세희, 조해일이 있었고 그 위 학년으로는 전상국, 이성부, 김제현, 김용성 씨 등 지금 우리문단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과 한 캠퍼스에서 지낸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나는 교수님들께나 동료학생들에게 열심히 시를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를 좋아하는 학생쯤으로 비쳐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술자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앉아서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량리 홍릉의 2층 다다미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했는데, 차비가 없어 걸어서 명동의 '은성'이란 술집에 들러 술을 얻어 마시기도 했다. 탤런트 최불암씨의 모친이 경영하던 조그만 술집으로 이봉구, 김수영, 조병화, 박봉우 등의 많은 문인들이 들락거리던 곳이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데에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시 쓰는 일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단에 데뷔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써놓은 시가 없어 고민이었다. 몇 편을 써서 추천을 받을까 했지만 사람 찾아가 다니기도 귀찮고 이간 이렇게 쓰고 저간 저렇게 쓰라고 간섭할 것만 같아 신춘문예에 당당히 응모해 보기로 작정하고, 대낮인데도 창문을 담요로 완전히 가리고 촛불을 켜놓고 하루만에 세 편을 써서 마감시간이 약간 넘어서 당시 소공동에 있던 경향신문사를 찾아가 수위아저씨께 접수를 시키고 걸어서 홍릉까지 돌아왔다.

1963년 12월 31일 오후 종로에서 <경향신문>을 펼쳐들었다. 1964년 1월 1일자 신문에 <아침선박>이란 제목과 함께 내 이름 석자가 곱들거리며 노란 하늘로 동동 떠가고 있었다. <아침선박>도 하늘을 향해 당당히 출항하고 있었다. 당선이었다.

아침바다는 예지에 번뜩이는 눈을 뜨고
끈기의 저쪽을 달리면서

시대에 지치지 않고, 처절했던 동반의 때에
쓰러진 시간들을 하나씩 깨워 일으키고
저, 넘쳐 나는 지평의 햇살을 보면
청명한 날에 잠깨는 출항

세수를 일찍 끝낸 여인들은
탄생을 되풀이한 오랜 진통에
맘 배인 내의를 벗어 바다에 던지고
파이프에 남자들은 두고 온 연대를 열심히 피워 문다.

-<아침선박>1연

습작시 10편도 안되는 처지에 당선이 되고 만 것이다. 그것도 하루만에 쓴 시가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당선 기쁨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홀연히 떠난 어린 조카의 모습이었다. (1989)

조태일

1941년 전남 곡성 출생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문단데뷔
경희대 국문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문학박사
시 집 <아침선박><식칼론><국토><가거도><자유가 시인더러><산속에서 꽃속에서>
시론집 <고여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시창작을 위한 시론>

북경을 돌아보고

류승표

국성문화원 주최로 2005. 3. 29(화)부터 4. 2(토)까지 4박 5일간 중국 북경, 천진 지역을 돌아보고 왔다.

김종 부원장의 28명의 회원과 조준원 사무국장, 배숙영 간사와 함께 모두 31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인천 영종도 신공항을 향하여 3. 29일 7:09분에 군민회관을 출발하였다.

5시간 걸려 영종도 신공항에 도착하였다. 지루한 출국수속을 마친 후, 천진 행 대한항공 KE 863호기에 전원 탑승하고, 오후 2시 14분에 이륙, 1시간 20분 걸려 중국 천진 공항에 착륙하였다.

천진에 도착하여 맨 먼저 '천진 탑'에 가 보았다. 총 높이 415m, 관광객이 오를 수 있는 노천 전망대가 270m라 한다. 라디오, TV 송신탑이라고 하나, 군인이 지키는 곳도 있어 군사상 목적이 있는 듯 하였다. 국제적인 관광 명소인데, 화장실이 더러운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

천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북경에 밤 8시경 도착하였다. 시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반경 호텔 '中土大廈'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북경의 첫 관광지로 '天壇 공원'을 찾았다. 황제가 하늘에祭를 지냈던 600년이 된 건축물이다. 워낙 규모가 커, 東門으로 들어가 南門으로 나왔는데, 중앙에 '祈年殿'이 있고, 서쪽에 '祭天禮儀館', 동쪽에 '祭天樂舞館'이 있었다. 사진에서 많이 본 원형의 '圓丘壇'도 있었다. 황제가 천하를 통치하기 위하여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에 찾아가는 곳은 그 유명한 세계 최대의 황궁인 '紫禁城'이다. 1421년에 成祖가 지어 그 후 몇 차례 개축을 했었는데, 넓이가 250만 평이라니 하늘을 뚫는 지엄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도 남는다.

1시 5분경, TV화면을 통하여 이미 낮익은 '천안문 광장'에 도착하였다. 도시 가운데에 이렇게 넓은 광장을 마련한 나라, 역시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대륙의 나라다웠다. 주황색 기와로 덮인 2층 모양의 천안문 앞을 가로막은 역시 주황색의 거대한 벽돌담 좌우로 붙여진 '만세', '만세'의 문구는 변함이 없었다.

첫 문인 '端門'을 지나, '午門', '太和殿', '中和殿' 등, 수많은 '門'을 지나 수많은 '殿'과 '宮'이 있어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었다. 門과 殿을 합하면 하나의 대궐 같았는데, 그것이 10여 개라니 하늘을 찌르는 '황제의 권위'가 피부에 와 닿았다.

자금성 안에는 수목이나 화초가 전혀 없어 삭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혹 자객이 나무 그늘에 숨어 황제를 시해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것이며 또 지하로 굴을 뚫고 침입할 것에 대비, 땅 속에 16층으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장비도 없는 시대에 과연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3일째에는 明代 황제들의 陵인 소위 '13陵'중 하나인 '長陵'을 관광하였

다. '지하 궁전'이라 불려지는 '정릉'을 보러다가 업적이 탁월한 明 3대 황제 '成祖'의 능을 관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하여 지상을 택한 것이다.

'사유(肆維)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인류가 만든 세계 최대의 건축물인 1만 2천 6백리의 '만리장성'을 관광하기 위하여 '八達嶺'에 도착하였다. 6인승 케이블카를 타고 5분간 올라가서 하차하니 장성을 직저 걸어 보는 '도보 체험장'에 도착했는데, 경사가 몹시 급한 장성을 각자 능력대로 걸어갔다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다.

인공 위성에서 지구상의 건조물로는 유일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장성은 축조 작업 중 사망자가 생기면 바로 성 밑에 묻어버려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중국사람은 사람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극한의 일을 해 내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음날에는 명·청대 황제들의 여름 별장인 '이화원'을 관광하였다. 특색 있는 것은 흡사 바다와 같이 넓은 인공 호수 옆에 만든 700m 길이의 복도인 '장랑(長廊)'이었다.

西太后가 수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장랑 천장 밑 좌우의 벽에 그려놓은 그림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겼다고 한다. 그 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 그 장랑을 걸어보며 옛날 서태후의 심경을 헤아려 보는 것 같았다.

5시경, 저녁 식사를 하려고 '육류관'을 찾았다. 이 곳은 북한에서 직영하는 식당으로, 평양에서 음식 재료를 직접 가져오고, 북한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미인 '접대부'가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북한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곳이었다.

대형 노래방 기구가 계속 작동되고 있었는데, 식사 도중에 한 아가씨가 남한 노래 한 곡(맹꽁이 타령)을 곁들여 북한 노래를 몇 곡 불러 주었다. 우리가 이런 식당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가 어지간히 누그러진 덕택이라 생각되었다.

중국은 아직도 우리 보다 못사는 곳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북경 시내에 흥수처럼 밀려다니는 자전거의 행렬과 한 푼을 구걸하는 거지들을 보면 그 확신이 굳어진다.

그러나, 차 창 밖으로 보이는 많은 자동차들을 보며 조준원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면 초고가(超高價)인 세계 굴지의 유명 외제차들이 서울을 능가하여 많이 굴러다니고 있다 하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만만다'의 나라, 역시 중국은 우리보다 느긋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 관광지 가는 곳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빠지지 않고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느긋해 진다.

2005 곡성문화원 복권기금지원사업

문화 역사 체험 보고서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대탐사를 다녀와서



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오미례(곡성중양초 1학년 2반 조재현 엄마)

어제 저녁까지만해도 가능했던 빗방울이 새벽녘에는 제법 굵어져 빗소리에 잠을 설쳤다. 이런 곳은 날씨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조금은 심란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짐을 꾸려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버스를 보는 순간 심란한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저 즐겁기만 했다. 우리 아이도 함께 아직도 실레임에 즐거워하는 내 자신을 보고 더욱더 신이 났다. 다행스럽게도 같은 학년 엄마들과는 친분이 있는 터라 더욱 안심이었다.

버스가 출발을 하고 동행하시는 분들의 소개와 이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원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나는 평소에 문화원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일까 궁금증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곡성문화원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푸르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좋은 기분이 가슴까지 벅차오름을 느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치서인지 가는 중간중간 졸음이 와 눈을 감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은 영암군 월출산내에 있는 도갑사라는 사찰이었다. 사찰에 오르는 길목에 오솔길이 있는데 물소리, 알 수 없는 새소리, 비 온 후의 더없이 맑은 공기가 정말 좋았다.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금세 도갑사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오늘 도움을 주실 영암 문화 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 사찰을 오르내릴때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오르내릴때 길이 다르고,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신에게 바치는 음식)길이란 걸 처음 알았다. 지금껏 사찰을 그렇게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맞아 주는 건 오충석탑이었다. 여기에서도 탑 층수를 세는 법을 배웠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기도 배웠다.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설명도 좋았지만 곡성문화원 사무국장님의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설명을 듣고 나서 엄마에게 자꾸 다시 되물어본다. 아쉽게도 본당은 공사 중이어서 보지를 못했다. 왕인박사 유적지를 돌아 도자기문화센터에 들렀다. 도자기 만드는 걸 체험해보고 싶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였다. 점심을 먹고난 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힌다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보고 으쓱함을 느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신인 비치호텔에서 아이들이 답사 후, 감상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도 우리 아이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울수가 없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피곤해서인지 금세 잠에 취해 버렸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유달산을 오르는데 전에 와봤던 기억에 낯설

지 않았다. 목포에서도 해양유물전시관등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결혼하기 전에 와보고 아이와 함께 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아직은 잠자리가 흔하지 않은 계절인데 잠자리가 떼를 지어 다녔다. 그 잠자리를 잡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였다.

보성 녹차밭의 푸르름은 환호성이 절로 나올 만큼 내 가슴을 확 트이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강아지들 마냥 신나게 뛰어다녔다. 곡성으로 오는 길에 고인돌 공원에 들렀다. 유치원 다닐 때 소풍오던 곳이었던 아이는 신이 나서 나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느라 부산을 떨었다.

마지막으로 서재필 기념관에 들러 아쉬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시간이었고 직장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물론 배움도 있었지만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 더욱더 좋았다. 끝으로 문화원의 사무국장님, 간사님, 그리고 문화체험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임재준(곡성중양초등학교 2학년 3반)

7월 1일 금요일

며칠전부터 기다리고 기대하던 역사문화체험을 가는 날입니다. 새벽일찍부터 들뜬 마음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비가 내립니다.

"엄마, 비가와서 오늘 못가는거예요.?"

화도나고 괜히 심술이나 엄마께 큰 소리로 물어보았더니 엄마께서 웃으시며

"글쎄, 비가와도 간다고 했는데...."

모르긴해도 아마 갈거야 너무 걱정하지마. "

엄마 말씀에 안심을 하면서도 걱정이되어 학교운동장에 가보았습니다. 교문앞에 버스가 서 있는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형들과 누나, 동생들 엄마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역사문화체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간곳은 영암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도갑사라는 절에 도착하여 도선국사님에 대해 듣고 오충석탑과 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종과 다른나라 종의 다른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서는 옛날 우리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릇들과 흙으로 그 그릇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조상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기문화센터를 보고 우리가 간곳은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이라는 배 만드는 곳과 자연사박물관과 목포문화원에 있는 박화성문학

기념관이었습니다. 배만드는 곳에서 아주아주 커다란 배를 보았는데 우리학교 운동장보다 더 큰것 같았습니다. 그 배들을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만들어 다른나라로 수출을 한다는 말에 웬지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 배를 만드는 아저씨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한번도 듣지못하고 보지못한 여러가지 공룡들과 물고기, 조개등 이름들이 어려워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정말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목포문화원을 방문하여 박화성문학기념관을 둘러보고 문화원에 있는 작은 동굴을 들어가 보았는데 얼마나 시원하던지 언젠가 엄마가 들려주신 옛날조상들이 냉장고 대신 사용한 석빙고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체험 첫날의 시간을 보내고 다함께 한자리에 모여 그날 보고 느낀것에 대하여 한사람씩 발표하는 시간에는 좀 부끄러웠지만 서로서로 일등을 하고싶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것이 참 좋았습니다.

다음날에는 녹차밭과 서재필기념관, 고인돌공원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깐동안이었지만 친해진 형들과 헤어지는것이 아쉬웠고 다음에도 또 가고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역사문화체험에서 내가 알게된것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느낀것은 도갑사 해탈문과 왕인박사유적지에 있는 두갈래길과 세갈래길 계단에 대한것인데 오른쪽길은 들어가는 길이고 왼쪽길은 나오는 길이며 가운데길은 조상이나 신, 그리고 조상에게 올리는 음식을 가져가는 길이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조상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법이 많이 다르다는것과 우리조상들은 작은것에도 예의를 지키며 살았는데 우리들은 조상들에 비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알게되어 참 즐거웠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아들과 함께 떠나다

안 나(3학년 1반 권회복 엄마)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과 마음적 여유가 없어 뜻 맞은 엄마들 끼리 문화체험을 위한 적금을 들고 있는 터였는데 곡성문화원 주체로 영암~목포 남도문화체험단에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필듯이 기뻐다.

장마철이라 비가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에 대한 기대와 황재한 기쁨을 안고 아침 일찍 서둘러 남편의 배웅을 받아 영암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는 1박2일을 함께 할 아이들과 엄마들이 설레임과 함께 이 여행이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학교 대표요 각반에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아래 가이드의 설명에 열중하는 배움의 열기가 가득했다.

소금강산이라 불리 울 만큼 아름답다는 월출산을 차창 밖으로 보

고 있을 때 좋은 기가 충만하여 영암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며 좋은 기를 받아가라는 영암문화원의 가이드 말에 몇 번 왔던 영암이 새롭게 보였다.

고려 왕건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풍수지리로 유명한 도선 국사가 지은 37개의 절 중 하나인 도갑사에 도착해서 기(?)를 가다듬고 일주문(해탈문)을 지나 5층 석탑을 보았다.

전에는 많은 탑을 보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탑이 세부부 기단부, 탑상부, 상륜부로 나누어 보고 탑 가장 아랫부분인 기단부에 부처의 몸(사리)대신 경전과 모래를 넣어 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절에 가면 향을 피우고 또 제사 때도 향을 피우는데 왜 피우는지 평소 궁금했었는데 그 유래가 절의시작인 인도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여서 수행할 때 모기나 초파리들이 몰려들어 수행에 어려움을 주어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을 뿌렸다고한다. 그 뒤 범종, 북고, 법문, 운판 등 4보가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중 범종을 보며 일본·중국 등의 종은 종 윗부분에 여러 마리의 용이 조각 되어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종은 용이 한 마리만 조각되어 구별된다라고 꽃 모양이 4면에 9개씩 36개가 있으며, 중앙에는 유두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 옆에는 명부전이 있었는데 저승세계에 염라대왕 12명이 앉아있었다.

무섭게 생긴 얼굴로 책을 펴고 있는 모습이 꼭 지옥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할 정도다. 그리고 절 중앙에 있는 대웅전이 보이지 않아 궁금했는데 여러 번의 화재로 다시 복원중이라 하여 안타까웠다.

도갑사를 내려오면서 처음 도착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여행이라 마냥 즐거워했는데, 가이드의 설명이 다만 의례적인 일로 대하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꼼꼼이 설명하는 그 열정이 우리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알고 왜 소중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하며, 무심코 지나치며 별 의미 없이 가볍게 대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몇년전 일주일동안 대만에 갔을 때 고궁 박물관에 들었는데 그 곳에 유물들이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났다.

장개석 총통이 전쟁에 패하여 대만으로 피할 때 군인들에게 들고 나오게 했던 것이 무기대신 그 많은 중국의 유물들이었는데 그 때문에 모두 무사히 대만까지 오게 되었으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에서 대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의 뿌리인 문화유산이 대만에 모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기억이 났다. 또, 몽고의 징기스칸의 대제국도 허망하게 끝난 것이 그들만의 문화구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녀와 함께 부모들에게 돈을 들여가며 시키는 이 문화체험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 것을 바로 알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자녀에게 해야 할 의무이지 않을까? 이런 유적지 답사가 내 자녀에게 어



떻게 심길지 모르지만 부모로서 이런 부분을 교육시킬 책임의식이 고취되어 갈즈음에 도감사를 빠져나와 우리나라 최초의 유약을 바른 시유도기 발상지인 영암도기문화센터에 들러 영암의 황토로 만든 주병, 다기, 술잔, 컵, 접시 등을 보았고, 향아리 같은 도기를 깨트리면 다시 흙이 되지만 접시와 같은 자기는 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곳이 한국 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전승 연구 개발 교육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참 인상 깊었다. 아쉽게도 빽빽한 일정으로 도기 빚을 기회가 없이 32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게 우리백제문화를 알리고 가르쳐준 왕인박사가 태어난 곳 구림마을을 방문했다.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항구 구실을 한 영암의 인물, 일본의 아스카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이 배타고 일본을 향해 떠난 상대포도 보고, 구림마을에 그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유적지도 돌아본 후 3천년의 과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21세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세계5위 조선전문기업인 현대 삼호중공업을 들렀다. 서울63빌딩 보다 훨씬 큰 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등 외국의 주문을 받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최첨단시설과 기술력을 가진 현장을 둘러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뿌듯한 마음을 안고 영암을 떠나 오적봉 아래 위치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영사관으로 쓰였다는 북포문화원에 들러 우리나라 최초 장편소설 여류작가인 박화성 작가의 문학유품실, 추모실, 생활유품실을 보고 그 건물 뒤쪽 반공호로 쓰인 사람이 판 동굴도 둘러본 후, 우리 일행이 쉼 시간인파크 호텔에 도착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장 긴장하고 민감해했던 소감발표시간을 가졌다.

기특하게도 아이들이 마냥 구경만하고 다닌 줄 알았는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느낌들을 발표할 때 놀랍고도 감동적 이었다.

이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이 아닌 귀함과 추억으로 더욱 아이들 가슴에 자양분으로 남아있겠지.....

매년 7월 1일은 남편과 항상 함께 했던 결혼기념일인데 두 딸을 보

고 있겠으니 아들과 다녀오라고 허락해준 남편..

낮에 빠듯한 일정 속에 생각할 겨를 없이 보냈는데, 아들과의 추억을 심도록 도와준 남편이 너무도 보고 싶은 그리운 밤을 목포에서 보냈다.

다음날 일찍 유달산공원에 보는 각도에 따라 약간 기운 듯한 이순신 동상과 일반 대포가 아닌 정오를 알린 오펜도 보고 목포 시가지 를 한눈에 보고 내려와 옥곡미술관을 지은 아산 조방원 선생님의 스승이신 남농 일가의 그림과 글을 보았다.

한학자이셨던 진정아버지의 품안에 안기듯 히씨 일가의 글씨와 그림이 낯설지 않고 먹물냄새 그윽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지 보고 싶었다...

장마라 여행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차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늘이 비를 참아주어 우리의 시간이 의미 있게 쌓여가고 있을 때 운전기사아저씨 소개로 장흥에 들러 이번 여행 중 먹어본 음식 중 제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보성 녹차밭을 향했다.

여름향기라는 영화를 촬영했다는 곳과 산을 계단식으로 일궈놓은 녹차밭 사이길을 거닐어도 보고 다원에 들러 차도 마시며 여행 중 생각나는 사람들에 선물도사고 편하게 쉼 다음 마지막코스로 순천 고인돌공원에 들렀다.

고인돌위에서 뛰는 아이들이, 아주 오랜 옛날 왕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모라는 말에 뛰는 것을 멈추고 숙연해진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으며, 그곳을 모두 둘러보고 곡성으로 향했다.

목이 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인 곡성문화원 관계자 분들 덕에 역사속을 거닐다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슴으로 느낀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중한 여행이었고 특별히, 우리 사는 곡성의 문화재들을 찾아보며 관심이여 우리의 뿌리를 알고 소중한 여거 한국인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담(?)을 갖게 된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여수 관광

에멜린다 M. 차우

멋지고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아이들을 포함하여 아흔 명이 넘는 식구와 친구들은 흥분과 호기심으로 곡성문화원에서 2대의 관광버스에 올랐다. 대부분이 나처럼 여수관광은 처음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흥국사였다. 흥국사는 산속에 위치해 놀랄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찰이었다. 이 절은 아름다운 많은 나무들로 둘러 쌓여 있었다. 여수문화원의 해설사에 따르면절은 1195년에 지어졌단다. 810년 동안 일반에 공개 되었던 것이다. 이 절은 3개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흥교, 탕화, 대웅전이였다.

우리는 흥국사에서 내려와 점심을 먹었다. 값지고 싱싱한 모듬해물을 배부르게 먹고 모두 만족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탔다. 몇몇은 멀미를 느꼈으나, 돌산대교의 엄청난 장관에 그만 멀미도 잊어버렸다. 해변에서 여수가 얼마나 번잡한 도시인지를 보았다. 많은 크고 작은 어선과 장비들. 그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맨발로 오동도에 올랐다. 여러 종류의 자갈이 깔린 지압길이 아팠지만 그 효과는 백점이었다. 아름다운 동백 숲에 덮인 용굴에 들어갔다. 저녁 식사 후에 모두가 지쳐서 선하우스 모텔에 묵었다. 모텔의 해변 야경은 멋지고 환상적이었다.

이튿 날, 아침을 먹고 진남관을 찾았는데 큰 목재와 나무들로 만들어진 기둥 집이 있었다. 해설자에 의하면 그 집은 4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의 군사들과 회합 장소로 썼다고 한다.

다음에 우리는 잘 알려진 거북선을 탐사하게 되었는데 해설자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쳤다고 말했다. 배 안에서 우리는 옛 군인들의 생활을 볼 수 있었다. 여행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 벌써 점심식사 시간이 오는 줄도 몰랐다. 또 다른 맛있고 신선한 해물요리와 탕을 먹으니 그 더운 날씨에도 원기가 났다.

다음에 수산종합관을 찾았다. 수 천년 된 화석, 돌고래, 상어와 여러 종류의 바다 물고기, 양식 진주까지 술한 종류의 바다 생물이 있는 거대한 수족관이었다. 그리고 입체영화를 보았는데 애들은 영화 속에 폭 빠져 버렸다. 운 좋게도 신선한 해산물 시장에 들를 시간이 있었다. 곡성시장에는 없는 술한 해산물들을 보았다.

아쉽게도 여수시를 떠날 작별의 시간이 돌아왔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일부분이 된 몽클한 감이 들었다. 나와 가족, 친구들은 관광객들을 대료시키는 한국의 다른 곳들도 탐사하고 방문할 기회가 더 있기를 희망한다.

곡성문화원장 양병하님,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조준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가능하게 도와준 모든 스태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한다. 진정 고향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다.

SIGHTSEEING YOSU CITY

E MELINDA M. CHOW

It was a wonderful and glorious summer day. More than ninety (90), families and friends including their children gathered in 2 tourist buses at Gokseong Cultural Center (곡성 문화원) with an excitement and curiosity appears on their faces. Just like me, mostly said that it was their first time to experienced sightseeing at the tourist spot of Yosu city (여수시).



Gokseong Catholic Rev. Yun Bin Ho (곡성 천주교 주임신부 윤빈호) gave us his warm good blessing and wished all a safe trip.

Our first destination is Heungguk-sa (흥국사). It's an amazing very quiet and peaceful temple located up in the mountain. The temple has an exquisite surrounding with lots of trees. The Yosu Cultural Center Commentator (여수 해설원) said that the temple was built in the year 1195. Its 810 years open to the public. It has 3 Culture heritage treasures: 1.) Hong kyo bridge (홍교) 2.) The Buddha painting (불화 탕화) 3.) The Big Temple (대웅전).

After Heungguk sa, We had our lunch. The restaurant served expensive different kinds of raw sea foods. Everyone was satisfied and full.

Then we ride the excursion ship. Others felt dizzy but they forget all about it because the view was so spectacular and breathtaking especially the bridge Dol San Dae Kyo (돌산 대교). At the seashore we notice how busy Yosu city. We noticed that there are lots of fishing vessels, small fishing boats and some unfinished fishing stuffs. They also cultivate some Marine Life.

Next, we climb barefooted the O Dong Do (오동도) it has a different variety of gravel layered (자갈길) which served as a reflexology. It hurts but its soothed effect was so amazing.

We've been in the Dragon house (용굴) which surrounded plenty of Camelia trees (동백 나무) that brings the place more beautiful.

After we had dinner, everybody we're exhausted so we settled in Sun House Motel for the night. The Motel had a spectacular panoramic seashore view at night it's really wonderful and fantastic.

On 2nd day, after we ate breakfast we visited Chin Nam Kwan (진남관) in which we saw a pillar (기둥) house made of huge woods and trees. According to the Yosu commentator the pillar house was built 400 years ago and serves as the meeting place of

soldiers headed by Gen. Lee Sun Sin in earlier days.

Next stop we explore the well known Ko Buk Son (거북선). The Yosu Commentator said that Gen. Lee Sun Sin build a ship same as the Ko Buk Son and used it to over-powered against the Japanese in the earlier days. Inside the ship we able to witnessed the life of the earlier soldiers.

The trip was so interesting that we don't even notice the time, it's lunch hour! We took another delicious Korean fresh sea foods and soups that so refreshing even though the weather's too warm.

Then we visited the Su San Chong Hap Kwan (수산 종합관). It's ahuge aquarium wherein plenty of different kids of marine life from 1000 years old of fossils, dolphins, sharks and varieties of ocean fish and cultured pearl. Then we watch 3D movie. The children were all amazed and fascinated.

Luckily they gave us time to stop at a fresh sea foods Market. We saw lots of fresh different kinds of sea foods which is not common in our market.

Finally, it's time to say goodbye to the amazing Yosu City (여수 시). It's feels great inside to be a part of Dynamic Korea. Myself, families and friends wished and hoped to give the chance to explore and visit another fascinating tourist attraction of Korea. Sincerely thanks to Gokseong Cultural Center Head Leader Yang Pyong Ha (곡성 문화원장 양 병 하). Gokseong leader Cultural Center Cho Chun Won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조준원) Gokseong Catholic Rev. Yun Bin Ho. And to all the staffs who extend their help to make this trip possible. This is an unforgettable and memorable experienced for us all to remember. Thanks for being part of the Korean Community. Lastly, we felt were at home.

엄마! 친구! 그리고 지리산

제2회 우리고장문화관광 기행문 공모전 최우수상(전라남도 목포교육청 교육장상) 수상
정주영(곡성중앙 초등학교 4 - 5)

아침에 지리산 생태 문화 대 탐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리산에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달려 평지에 건축된 실상사에 도착했습니다. 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라는 뜻이 담긴 실상사는 원래 지실사 라는 이름이었는데 홍척 스님의 호를 따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내가 다른 사찰에 비해 굉장히 넓었고 11개나 되는 여러 가지 보물과 1개의 국보를 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실상사 쌍둥이 3층 석탑이었습니다. 작년에 불국사

에 가서 본 석가탑, 다보탑과 비교를 하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약사전에 있는 철불여래좌상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일본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는 형상을 조각했는데 그 불상이 천왕봉과 마주 하고 있어서 더욱 웅장했습니다. 부처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발우공양 시간에 특별한 점심식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되고 음식물도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섞인 미역국에 내 손을 씻은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먹고 나서는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음식에 !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먹고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학교 급식에서는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무 농약 농작물 체험에서 고구마도 캐서 맛보았습니다. 곡성 지역에도 채소는 많이 있는데 이곳 채소는 농약을 하지 않아서 인지 배추에 구멍도 나있고 모양도 좋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좋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또한 대변, 소변이 거름으로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해보니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연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수세미도 사찰지붕에 열린 수세미를 이용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하루 신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처음으로 절에서 엄마와 또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잘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실상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청학동에 왔습니다. 땅 모양이 학을 닮은 청학동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청학동에 와서 우리는 혼사님께 말씀을 듣고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자가 하는 큰절이 '배숙'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활쓰기, 투호 놀이, 긴 줄넘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절미 만들기였습니다. 작년에 낙안읍성에서 인절미를 먹었는데 그때는 만들어졌던 것이라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떡은 먹기에는 편리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협동하면서 떡을 치고 만들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옛날이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청학동에서 평소에 한자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사자소화를 배웠습니다. 모르는 한자가 많이 있었지만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노래처럼 부르면서 배웠더니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학 때 와서 더 많은 공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은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학동에서 하루를 보내고 셋째 날은 곡성에 있는! 심청 예절 학교에서 다도와 천연염색을 체험했습니다. 소목을 이용한 염색은 정말 예쁜 스카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께 선물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쁩니다. 차를 마시는 데도 여러 가지 예절을 갖추어서 마시면 마음도 안정되고 차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도를 배운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을 사귀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체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보람되고 소중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의 생명과 문화를 찾아 떠난 가을산행

제2회 우리고정문화관광 기행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강상희(곡성석곡초등학교 5학년 배수민어머니)

아직은 이른 단풍이 한 나무 한 나무 물을 들이기 시작하는 가을산은 우리에게 웬지 모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발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던 가을비도 스산한 가을정취를 듬뿍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보는 가을산행!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큰딸과 단들이 가보는 여행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에 쫓겨 대화도 부족한 것 같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와의 관계가 짐짓 소원하기도 했던 터라 둘만의 시간 속에서 다소 마음의 여유와 추억을 만들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일에 시간을 내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다행히 학교측의 배려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원 실상사의 고즈넉한 산사는 평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촉촉이 젖은 사찰을 돌아보며 천 백년 된 기와나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석탑등을 보며 굽이굽이 이어져오는 찬란한 신라불교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상사에서의 가장 좋았던 경험은 TV에서만 보아오던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잔반 없는 날'이라 하여 그날에는 음식을 남겨서는 안된답니다.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처음엔 몹시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에게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우공양'을 경험하며 '잔반 없는 날'을 불평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생경스럽기도 하고 묵언하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채 정신없이 마치고 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은 평소에도 너무 넘치게 먹고 쉽게 음식을 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할 때부터 음식을 대하는 달라진 우리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행)' 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꿈결인 듯 들리는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목탁 소리에 뒤척이다 잠에서 깰 것입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사찰마당을 수놓은 낙엽들을 쓸어 모아 두고는 흐트러진 우리 마음까지 잘 정돈하여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학동은 맑고 청아한 가을하늘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두건을 두른 훈장님, 훈사님들의 모습과 탕기머리를 한 작고 귀여운 꼬마 어린이의 모습에서 청학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에서 많이 봐왔던 터라 초가집에 재래식화장실을 상상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정돈된 청학동의 모습에 우리아이들이 청학동에 대해 참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겠다 싶어 다행스러웠습니다. 대신 인간됨됨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와 예절교육 그리고 부모공경하는 방법까지 두루두루 배워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공수인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옛 인사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훈장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 또한 요즘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 됨됨이에 기초한 말씀이어서 더욱 우리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사랑하는 청학동의 정신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기가 좋았던 인절미 만들기, 사자소학 수업, 영선도인법등 우리를 위해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교육해 주신 청학동에서의 하루는 두고 온 가족을 잊게 할 만큼 정이 듬뿍 들어 버렸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부모님들의 산책시간엔 우리가끼이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걸판진 판소리 한마당에선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명나게 가락을 공부했던 것이 참 재미있고, 아이들을 위한 노래선물 '마법의 성'을 부를 때엔 코끝이 찡해지며 우리아이들에게 새롭게 펼쳐진 꿈과 세상을 선물할 수 있어 더없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잠자기 전 밤바람을 맞으며 딸아이를 꼭 부둥켜안고 보았던 별자리 여행!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보는 카시오페이어나 북극성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산등성리로 어여쁘게 솟아오르던 하현달을 보며 그 밝은 빛에 소원을 빌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들을 보낸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학교적정 숙제걱정을 잊은 우리아이들도 덩달아 저희들끼리 노느라 킁킁킁.....!

마지막 날 도착한 곳은 우리가 사는 석곡에서 불과 5~10분 거리에 있는 심청문화예절학교였습니다.

다도예절을 체험하며 어느새 훌쩍 커서 다소곳한 새색시처럼 차를 따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목을 이용한 인견스카프 천연염색은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황토염색을 해 보았지만 천연염색과는 많이 다르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료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재료에 따라 낼 수 있는 그 은은하고 우아한 다양한 빛깔에 우린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한약재인 소목은 머리가 맑아지고 어혈도 풀린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2박 3일을 즐기차게 달려오던 우리는 잠시 잔디에 앉아 여유를 부리며 함께 사진도 찍고 모임을 갖자, 서로 연락하자는 등 벌써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염색한 스카프가 마르길 기다리며 우리의 문화체험을 마무리 했습니다. 각조마다 이름 지어 상을 주시고 부상으로 청학동 훈장님의 회초리가 주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즐거운 박수가, 아이들에게선 걱정스런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2박 3일의 제1회 지리산 생태문화탐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보따리 보따리 보듬고 갈 수 있는 참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입술이 부르트신 문화원 간사님의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의 결코 쉽지않은 노고를 생각하며 이 지역을 위해 참 많은 애를 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연 속을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절을 중요시하며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배려로 수고해 주신 문화원가족들과 힘든 일 마다않고 우리를 책임져주신 조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홀몸도 아니신데 최선을 다해주신 성격 좋은 홍 수진 조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멋진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날의 추억을 되새길 사진 몇 장 보내드립니다.

고창 미당문학관 및 선운사 문학기행을 다녀와서

김문호(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4월 12일 드디어 날이 맑았다. 부푼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옥과공공도서관을 향한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는 화창하고 밝다. 피부에 와 닿는 봄바람이 싱그럽고 상쾌하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옥과공공도서관 독서회 "설산의 향기"와 곡성공공도서관 독서회 "자운영"과의 뜻깊은 자매결연식이 맺어지면서 우리의 의미깊은 문학기행 행사가 막을 올린다.

드디어 고창으로 출발!

창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모습은 봄냄새가 물씬. 물오른 나무에서 아기의 꿈지락거린 발가락처럼 예쁜 새순들이 올라오고, 여기저기 봄소식을 알리는 꽃잔치가 한창이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조팝나무꽃, 배꽃, 살구꽃... 달리는 버스 안에서 미당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 <무등을 보며>, <국화 옆에서> 등 시낭송을 하며 소녀적 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

1시간 30분쯤 달렸을까? 고창을 매산마을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 군락지.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이 산자락에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창하면 선운사나 고창읍성 미당문학관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임에도 김정웅시문학관 홍보이사이시고 해설사인 그분의 소개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드디어 미당 문학관 도착.

폐교를 잘 활용해 만든 시문학관은 서정주시인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주요시집 <화사도>, <귀축도>, <자화상> 등 많은 작품으로 우리나라 시문학계의 거목으로 추앙되었으며, 말년에는 전세계를 여행하며 세계 각국의 모습을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그중 산에 관련된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떠나기전 세계의 산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다면 시인은 이미 고독한 산행을 시작하지 않으셨나 싶다.

가을에는 시문학관 주변 전체가 국화꽃으로 둘러쌓여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와 봐야겠다는 욕심을 부리면서 다음 목적지인 선운사를 향한다.

맛있는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 눈물처럼 후두두지는 동백꽃 찾아 선운사로 직행.

선운사 가는 동안 오른쪽에 미당의 <선운사 동구>가 시인의 욕필로 우리를 반긴다.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우리들을 맞으면서 어서 오라 손짓을 하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함창으로 우리를 반긴다. 꽃향기와 봄바람에 취해 조금 올라가니 우리의 빈 가슴속에 봄을 가득 채워줄 선운사 동백꽃이 펼쳐진다. 산자락을 따라 군락을 이룬 동백숲은 선운사 대웅전을 에워싸며 절정에 달한다.

어느 시인의 글처럼 얼마나 서러우면 저렇게 통째로 떨어졌을까? 생명이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예쁘게 떨어져 있는 동백꽃을 하나 주워 책갈피에 넣어본다. 누군가가 말했다. 절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동백꽃이라고.

내려오는 길에 넓은 잔디밭에서 설산의 향기 회원들과 자운영 회원들의 자기소개 및 문학기행 소감을 들으면서 여행의 대미를 장식했다. 자매결연으로 훨씬 가까워진 자운영회원들과 함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진도 찍고, 문학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가을쯤에 자운영회원들과의 상호교류 및 문학적인 제2의 만남을 기원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고한다.

'설산의 향기'와 '자운영' 회원들에게 뜻깊은 행사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곡성군청 관계자분과 옥과공공도서관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신 곡성 새마을문고 협회 모두 감사드립니다.

설산의 향기

이경례(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아침엔 설산에 도는

안개로 밥을 지어먹고

저녁엔 덩동덩

넝쿨에 걸려있는 달로 등불삼으며

성류사 은은한 풍경소리

벚꽃향기 나는

설산 지킴이 되고 싶어라

그랬습니다

한수진(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갈라지는 외로움때문에
쏟아지는 꿈속으로
내 마음을 걸쳐두었습니다.

불청객같은 그리움 때문에
온 세상 겨울 모두 깨부수어
새로운 호흡 뱉어보았습니다.

흘러내린 슬픔 때문에
태산바위를 끌어안고
천길 가슴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리운님 때문에
내 영혼의 그림자를 거두어
한세월 저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나무가 되있는 나

박종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논가위에 줄지어자라난 새싹
나는 온실속의 화초보다 훨씬더 월등히
저 하얀 눈속에 거친 비바람속에
당당히 곳곳히 자라는 저 푸른 새싹
아무리 힘든일이 닥쳐도
그것이 설령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 밀어 그리고 일어나
내모습을 봐
어느새 커다란 나무가 되있는다

여인

김민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노을 붉게 타는
석류빛 능선
흙빛 죽어가는 입술
그림자로 기도하는
여인의 심성
꽃잎 끝의 노추처럼 스스로 감은
두눈의 수정알이 힘없이 구름에
여인은 누구위해
조용히 머리 조아린다

내 맘속엔.....

정숙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나는 안다
서글픈것을....

긴긴 밤을
가슴서러워 울다가 지칠때도
내 자신 불쌍해서 운것은 아난데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나는것은
왜인지 모르것다

죽어가는 친구 손잡고
울먹이던 시절도 아주 옛날이건만
가슴이 자꾸 허해지는것은
먼일인가 모르것다

한마디 한 그 말한마디가
확살되어 끄히는것은
아마도 맘속에 어린 뿔핍이 있었음을
난 아는가 보다

내 인생의 수채화

임경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꿈 희망 미래를 안고
섬진강 굽이굽이 물따라 천리길
성당에서 들려오는 교우들의 기도소리
내게는 따사로운 마음의 안식처
세월이 익어갈수록 구수함이 더해가는 정겨운 사람들

아! 어느덧
내 나이가 가을인가.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도 행복의 조약돌 모아서
한폭의 수채화에 담으리.....

진실

박정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진실은 어두운 암흑속의 새싹처럼
피어 오르는 한송이 꽃봉오리
미로속의 수수께끼같은
행운의 보물찾기처럼
잡힐 듯 하면서 멀리 있는게
진실인 듯 싶습니다
살이 하나의 긴 여행처럼
진실은 행복속에
잠재한 비밀

엄마는

정미원(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아이야

너를 처음 품에 안을때

얼마나 감사 하던지

아이야 네가 처음 걸음을 옮길때

어찌나 행복하던지

아이야

네가 첫 친구를 사귄때

얼만큼 기뻐했는지

아아 너는 모를거야

가끔은 네가 있어 눈물도 흘릴테고

때로는 너로 인해 아프기도 할테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희망이여라

지금처럼 그렇게 거주렴

꿈을 먹고 그렇게 자라나렴

그 꿈안고 그렇게 이뤄가렴

아 그리운 어머니

정숙희(곡성군 설산의 향기 주부 독서회)

뒷동산 노송나무에 걸린 아스름 저녁달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님 기일에 참석 못함을 가슴아파 하도다

박씨네 종갓집 막내머느리 면산지기 바라보며

다모였을 친정 식구들 생각에 눈물 짓도다

둥근 것이 작은 저수지 가에 걸터 앉아

젊었을적 이뻐던 어머니님 얼굴을 자꾸만 그리도다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춘설내린 야밤에 자꾸만 맘이 허공을 떠도는 구나

세월이 무시로 빨라 낙향한지 어언 칠년

가슴 아파하면 살았던 세월이 무심하기만 하도다

작고 그다지 환하지 않은 방을 지나.....!<딤스를 읽고>

강상희(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지난 주 우연히 딤스란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

몇 해 전 곡성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다 읽은 책이었는데 이번에 읽을 땐 또 다른 느낌이였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라면 작고 조금은 어둡고 쾌쾌한 방이 떠오르며 그곳에 눈을 맞추지 않는 딤스와 엑슬린 선생님이 떠오른다. 몇 해 전엔 P.E.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교육 중에 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 아이들이 어렸고 아이들의 행동발달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 하기위해 참 많이 노력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나로서는 딤스를 통해 자폐아가 무엇 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그들의 특성이나 성향 그리고 행동등을 알아 갈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올바른 사랑과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오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딤스는 결코 유능하지도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은 엑슬린 선생님을 만난다.

책 전반에 잔잔하게 표현되어 있는 엑슬린 선생님의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공급자 중심의 수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수업이 참 생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 엑슬린 선생님은 딤스를 고치려하지도 않았고 딤스를 존중했으며 아이가 스스로 있고 싶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왔다. 과도한 칭찬이나 불필요한 야단으로 아이를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의 틀 안에 가두려 하지도 않았다. 놀이치료를 통한 한 꼬마 아이의 정체성 찾기의 부단한 노력은 잔잔하면서도 쉽게 책을 놓을 수 없는 묘한 흡입력이 있었다. 치료가 거의 끝이 날 무렵,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던 첫병을 철제 라디에이터를 향해 힘껏 던지며 산산조각을 내고 마는 부분이나 지금까지의 딤스의 모습을 상징하는 작은 딤스 인형을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는 부분은 여섯 살짜리의 행동이지만 또한 딤스의 참 자아를 찾는 힘 앞에서 딤스의 집착이 건강한 모습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음을 느낄 수 있어 참 감동적이었다. 비로소 딤스는 그 작고 어두운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건강한 자아를 되찾고 세상의 두려움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딤스로 거듭나게 되어 그들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인식이 변화되어 오늘날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영진군과 멋진 수영선수 진호군 같은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서 회자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늘상 교육이나 치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무언가 잘못된 상태를 뛰어난 방법으로 바로잡아주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 능력이 떨어지며 반드시 그것을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처음 장애아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엔 의욕에 넘쳐 우리아이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란 생각에 매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많은 요구를 아이들에게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우리 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는 엑슬린 선생님 같은 교육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사람을 통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존감이 살아나고 무엇이든 해 내고자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교사가 우리아이들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난 그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 당당히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 만이라도 길러줄 수 있기를 원한다.

6학년 종안이는 커서 큰 슈퍼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 했다. 그 아이의 꿈을 위해 난 최소한의 성실성과 씬하는 것을 가르치기에 열심했다. 남보다 솔선하고 매스터로서 자질을 갖추려면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각 반을 돌며 심부름을 하는 것, 요령부리지 않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덧셈 뺄셈 곱셈까지.....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생각해 보니 구구단을 마저 다 외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종안이가 못내 안쓰럽다. 비록 안하면 다시 잊어버릴 구구단이지만 누구도 우리반아이가 구구단까지 외운다고 하면 놀라움을 금치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에서 성숙되지 못한 우리 반 아이들. 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해 본다.

많이 사랑해 주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둡고 답답한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아이의 인생행로에서 하나의 점으로 남을 지도 모를 짧은 만남이지만 그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 질 수 있다면 난 그 아이들을 위해 한 발짝 뒤에서 여전히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국궁(國弓)

박해숙(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국궁 하면 다들 생소해 하고 여자인 제가 게다가 나이도 젊은 제가 국궁을 한다고 하면 다들 한번쯤은 놀래고 의아해 합니다. 국궁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되었고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화살 하나하나에 정성

을 들여 활을 쏘다 보면 정신 집중도 되고, 어렵고 힘든 일 모두 살에 매겨 과녁에 날려 보내고 나면 참 기분이 상쾌해 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활을 쏘면서 전국에서 대회가 열리면 참가해 각 시, 도, 군에서 활을 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회에는 많이 참가를 했지만 항상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입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항상 부러움과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하고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연습하는 자정에선 잘 쏘는데 남들과 같이 하는 대회에만 나가면 망치는 것 때문에 힘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운동을 하는 거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국궁도 하다 보면 태권도나 검도같이 단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단을 따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쏘지 뭐, 단이 뭐 중요해" 하면서 내 합리화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11월 5일 전남 함평에서 전남 국궁 대회 겸 입승단대회가 열린다는 통보에 신랑의 권유와 같이 운동하는 친구 후배의 설득에 경험삼아 가보자는 마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한번도 쏘보지 않은 남의 정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쏘다는게 부담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고 사대에 섰습니다. 화살 5개씩을 차고 9번을 쏘아서 25개를 맞추면 1단을 따게 되는 겁니다. 45개중 25개를 맞추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률이 10~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관에 서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5개중 3개를 2관에서 또 3개를 3관에서 4개를 쏘는 유래에 없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쏘고 내려오는데 두근두근 심장이 마구 마구 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쏘는 걸 보신 분들이 다들 잘 쏜다는 말과 궁체가 아주 좋다는 칭찬에 자만해서인지 다음에는 15개중 6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총 16개 앞으로 남은 15개중 9개를 맞춰야 하는데..... 틀렸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흐릿하더니 땅을 보기만 하면 빙빙 도는 것입니다. 옆에서 안타까이 지켜보던 신랑이 뭐 좀 먹자고 하면서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하라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뭘 좀 먹고 나니 한결 나아지고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경험 삼아왔다고는 해도 그래도 욕심이라는 게 가만있지 않나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5개 중 4개를 맞추었습니다. 이제 10개중 5개 남았습니다.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5개중 3개를 맞춰서 이제 5개 중 2개가 남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어느덧 다들 단을 따서 내려가신 분들 아니면 더 쏘아 봤자 안되어서 내려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 저와 고흥에 남 무사 분 이렇게 둘이 남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 무사님도 2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둘이 파이팅을 하고 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쏘았는데 빗나갔습니다. 역시 남 무사님

도 빛나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관중 남자분도 관중 세 번째 화살이 또 빛나갔습니다. 네 번째 화살도 빛나가고 마지막 화살이 하나 남아 맞추면 합격이요 못 맞추면 불합격입니다. 남 무사님도 같이.....

가슴이 펴져 미치겠습니다. 몇 번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지막 화살을 쏘았습니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됐다!" 하는 낮은 신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와!! 하는 함성이 들리고 저는 함격을 했지요. 그런데 고희에 남 무사님은 마지막 화살을 맞추지 못해 화살 하나로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 중에 일시 천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경험과 함께 귀중한 단을 따고 의기양양 곡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한 유단자로써 말입니다.

님이여!

장숙자(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님이여!

밝은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환한 얼굴로 좋은 말씨로
미소 지을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아프지 않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글을 찾아 읽고 메모지에 옮겨가며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잘못된 생각과 실수에도
편안히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기에 참으로 보잘것 없는 인간이기에
아무런 조건없이 주신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님의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늘같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생각 옳은 말로
바른 생활 태도 모습을 보이며 활동할수 있도록
이세상 끝 날까지
성실한 모범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이여
서로 즐거움과 아픔을 같이 나누어가며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세
허~허~ 웃으며 살아가세

님이여

저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감사합니다

고인돌

고동실(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이영차 영차 이영차 영차
지렛대 의지한다고 쉬운 일이었던가

삶의 지평을 더하듯
이승 저승 넘나드는
거대한 징검다리

나라 세워 가꾸고
탐스런 열매 어디에나 주렁주렁
돌갈로 거뒀낸 벼이삭 수북수북
흙으로 빛은 빛살그릇 한가득

앞산에 내려온 호랑이와 너울너울
춤추는 흥에 겨워
스스럼없이 그렇게
더불어 살던 사람들

그 가쁜 숨 다 하던 날
슬픔이야 어찌 잊을까
영원한 안식처
하늘 길 열어
삶의 경계가 그 어디인들
누가 가르랴

흙 그릇 몇 점
간 돌도끼 서넛
녹슨 쇳덩이 하나
세월의 기류 따라
거센 파도타기 출렁출렁
향기로 인사하던 꽃 송이송이
역사는 내 되어 흐르고 흘러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니
스쳐가는 바람인들
어찌 허투루 흘러랴.

가만히 귤가에 맴도는 저 소리들
이영차 영차 이영차 영차
님을 향한 나의 하루 기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현재(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이 나이에도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제법 산다는 것에
어울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은 어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만 갑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나만큼이나 커가는데..
가슴이 아직도 소녀시절의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 값을 해야하는데..
이젠 제법 노숙해질 때도 됐는데..
나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남아 있어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김복희(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그 이름만 들어도 위엄스네
그 그림자만 보아도 영험하네
그 말씀만 들어도 지혜가 솟네
그 이마에 주름이 세 개가 계시네
그 행동거지만 보아도 나의 그림자
그 하나는 어머니 사랑하신 증표요
그 둘은 자식을 사랑하신 분신이네
언제까지 효를 갚으리

옹아리 손

문화정(곡성읍)

꼬오옥 쥐며 힘을 주네
옹알 옹알 옹아리 손

뭐가 그리 궁금한지
옹알 옹알 옹아리 손

가늘고 긴 손가락이
아찔하게 귀여운

옹알거리는 손
옹알 옹알

쥐었다 폼다 엄마손일까?
쥐었다 폼다 아빠손일까?

누구손일까? 알아맞춰 불러고
옹알 옹알 옹아리손

실새 없이 꼬오옥 힘을주네
옹알 옹알

엄마의 의미

김은애(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

방긋방긋 웃는 얼굴
어느 꽃과 견줄까
옹알옹알 새살 소리
어느 곡에 비할까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끝도 없는
고뇌의 시작

한 고개 넘으면
더 노오픈 고개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도 열두번
희비의 쌍곡선을 넘나들다
어느새
하나된 이름
어어엄마아

청소

고배진(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우리집은 운동장입니다.
집 입구에서 안의 거실까지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길거든요.

한여름,
아이들이 뛰어놀때면
은 집안이 먼지로 수북해 집니다.

청소할 생각을 하면
힘이 들고 짜증나는 날도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엄마의 얼굴엔
행복함에 젖어있습니다.

집에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다들 한마디씩 하신답니다.
청소하기 힘들겠다."

그래도 전 행복한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웃음소리에
흠뻑 취할수 있어서.....

겨울밤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최향화(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밤마다
나와 속삭이며
눈웃음하며
정다움던 별

이 추운밤은
어떻게 지낼까
혹시

그 반짝이는
동자가 찬바람에
다치지나 않을까

추워서 너무 추워서
그 여린 꿈이
찬 기운에 얼지 않을까?

따스한 이불속에 누워서도
잠오지 않는 밤
별이 근심되어 날 밝히는
차가운 겨울밤

빈 들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박성숙(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들녘에 나서서
따사로운 가을볕에 서둘러 영글어 가는 씨알들을 살펴본다.

황금 들판에 한 해의 결실로 풍성함이 넘실대고,
눈 독 가득 가득 넘쳐나는 벼이삭들을 슬어 독길을 걸어봐도
빈들은 빈들이다.

눈길 머무는 곳에 크고 작은 나무,
작은 풀꽃자리에 씨앗이 망울망울 넘쳐나도
빈들은 빈들이다.

모든 씨앗들이
사람들 손길 따라가고
빗방울의 물 길 따라
새들의 노래 따라

바람의 몸부림 따라서 제 자리에 들어서고,
버티어 흔들리던 풀포기의 줄기도 땅속에 내려앉아
황량한 들녘에 참새들만 푸르렁 날아들어도
빈들은 빈들이다.

처음부터 빈, 들은 빈들이다.
땅 속으로, 땅 위로
손님처럼 안겨든 모든 생명들을 품어
천만번이 넘쳐나는 그 되돌림 속에서도
단 한번밖에 없는 혼신의 힘으로
붙들어 세우고 다독인다.

겨운 사랑으로 짝을 띄워,
가슴을 열어,
햇살을 담고 빗방울을 받아
바람과 스러지며 사랑을 노래해도 빈들은 빈들이다.

싫다고 밀어내지도 않고
좋다고 끌어안지도 않아
그 저 말겨진 대로 혼신을 다 할 뿐
그렇게 빈, 들은 비어 있다.

빈 들은 그 많은 생명들을 품어 앓고서도 팔을 벌려 비어있음을 보
여준다.

텅 비어 있던 빈들이
내 마음에 오롯이 자리하던 날
감히 빈, 들이고 싶어
머리기대고 눈 감아 보던 날.

빈들은 속삭인다
빈들은 빈, 들일뿐이라고.

시를 쓰는 농부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전양수(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고향지기, 그는 농부이지요,
씨를 부려
진답을 일구고
삶은
알콩리 달콩리
온통 시 투성이다.

모내기 들판에서 그를 만났지요
여름이오는 바람에
풍겨오는 인상은, 덩수룩 머리
별에 그을린 새까만 얼굴
활짝 웃으며 드러내는
하얀 치아 사이로
그의 시는 웃고 있다.

준비해간 막걸리 한사발을
듬뿍따라, 김치 한조각에
세상 온갖 시름 잠시 잊은채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
스스로 풍요로운 들판을 지키는 깨끗한 시인이 되지요.

방금, 중얼거리는
그의 손끝에서
따뜻한 시 한 편을 대접받았네.

LIFE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에밀린다 엠 초우(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Life is confusing.
Life is experiment.
Life is unique.

Why waste to it?
If you can do something,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Everyone is unique,
Everyone has a mission to fulfill.

So, you go ahead, do the best you can.
Help others that need you
And you will know the difference.

다비식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신금순(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소리 없이 녹아 가벼히 흔들리는 초불이네
사르는 향불 한줄기 연기로 피어나네
칭향한 죽비소리 적묵당에 퍼지네

차일봉 넘어 노고단 파이란 하늘 끝에
하얀 구름 한 자락 피었다 사라지네
흔적이 없네

봉천암 풍경소리
홍련암 파도소리
태안사 동리산 목탁 새소리
백련사 동백숲 바람소리 대숲소리
도림사 앞개울 물소리로 흘러 가네

암록 섬진강 강변따라 흐르는 강물이다가
강물 희살깃다 반짝이는 햇살이다가
강 건너 역새풀 스치고 산모퉁이 돌아
허공으로 달아나는 바람이네

보광전 처마 끝에 초나흠달로 걸렸다가
동락산 서편 자락으로 어느덧 넘어갔네
궁현당 뒷마당에 별빛으로 쏟아지네

MY NATIVELAND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베벌리에이로사노(곡성읍)

Philippine is a place where I came from
The land of the pearl, of exotic east
From the nation of Malays,
To the ancestors from Spanish and Chinese,

Though it composed of many islands
You can see all the scenic beauty around
Where there are rivers, falls, volcanoes and seas
A place everyone can be proud of,

And though we spoke many dialects
Akin to Latin and English,
We use "Tagalog" as our national language
For all the people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even if we go to a far places
Our native tongue cannot be forgotten
As one of our saying says:
"One who doesn't love his native tongue is worse than
putrid fish and beast".

불혹(不惑)의 아침, 출근길에서

손영희(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아침 출근 길,
담장 하나 사이에 두는 짧은 출근길이지만
담을 돌아 걸어오며
많은 이들이 그리워
그 그리움에 목이 메었다.

뒤돌아 돌아본 세월이 이제 사십을 넘어
앞으로 나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지금,
나는 한 자락 바람에 가슴 시리고
그리움에 또다시 목이 메어온다.

견딜 수 없는 마흔의 변덕은
그리움이 과거에 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먼 곳에 있는
그러나 마음은 내 곁에 있는 친구의 녀두리는
깡년기라는 말로는 대변 될 수 없는
우리들의 아픔이 되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스스로 닫고 일어나야 하는 숙제로 자리 잡는다.

이유 없이 한 이틀씩 아프면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생각이 들 때면
가장 아름다웠을 수 있는 시간,
에미로 아내로 자식으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 후회로만
오늘의 하루를 채우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가슴 시린 날,
그리움에 목이 메이는 날,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

강하렴,
살과 영혼으로...

얼굴 마주하고 대하는
수다가 아닐지라도
우리 사이, 세월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더냐.

늙은 박 따는 날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박미향(석곡면)

어머니네 토담집을 감싸은
하이얀 박꽃넙쿨 그,사이사이로
길쭉하고 둥그런 박이 있어
바라보는 마음이 푸근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빌어
박을 따내기 시작했다.
분주한 손 만큼이나 아래로, 아래로
차곡차곡 자리를 지키는 박들
몸단장하고 지아비를 기다리는 새색시같다.

박들은 새롭게 태어나려 결심했다
반으로 잘릴때 신음을 내지 않으려고
도마위에서 눈을 질끈 감고 두 동강으로 잘렸다.

은수저로 하얀 속살들을 파냈다
푹푹한 향이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

조만간 벌에 말려서
둥그런 박은
어머니의 물바가지로 쓸 요량이요
길쭉한 표주박은
한동산 약수터에 놓아두어
오고가는 객들의 물받이가 되리니.

철없는 네 살 배기 아들놈은
막 모양을 갖춘 표주박을 머리에 써보며
까르르 깔깔깔 웃음을 터드린다.

하늘내리 마을

홍수진(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굽이굽이 비포장 산길 올라
꽃가마타고 내린 마을

전생, 지중한 인연으로
하늘 품에 안기누나

어디서 왔을까 솔숲에 이는 향기
사방천지 솔나무에 바람이 주렁주렁

엄마 떠난 어린 새
날개 짓이 서툴다.

아~ 금강산

김숙경(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기나긴 세월 돌고돌아
피 끓는 한 가슴 억누르고
너를 가슴에 품은 날
울컥 솟구치는 피울음에
난 걸음을 멈추었다.

물길을 돌고, 지면의 열기를
잠재우며 느릿느릿 찾아온 이들
빈 가슴 활짝 열고
따뜻함으로 맞이해준
아~금강산.

하늘 담은 물 빛 계곡
흰 꽃 입은 기암괴석
바위틈 사이 선녀의 몸으로
날 듯 내려앉은 늘 푸른 소나무

수줍은 듯 한 민족의
정기를 힘찬 기운으로
내 품은 우리들의 산길에서
난 걸음을 멈추었다.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으로
속울음 삼키며 그리운 이들을
애타게 기다렸을 풍악아

뒤 늦게 찾아온 이들 환한 미소와
너른 가슴으로 힘껏 안아준
네 고운 자태를 뽐내주던
아 ~사랑의 금강산.

어찌! 이 눈 속에 너를 다 담아 갈 수 있으랴!
어찌! 이 가슴에 너를 다 안아 갈 수 있으랴!
어찌!
니 설움에 내 설 울음을 토해 낼 수가 있으랴!

한 민족 서러움 품에 앉고
아픔이듯 사랑으로 미소 짓는
아~금강산
너를 가슴에 품은 날
난 걸음을 멈추고 금강에
내 몸을 부려 본다.

母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국제펜클럽 한국이사장상

야마모토 슈우코(곡성군 자운영 주부 독서회)

今わかった
あなたも痛かったこと
今わかった
あなたが痛かったこと

あなたが「大丈夫だよ。」と言ったその時、
涙があったこと...

今わかった
あなたが、こうして愛してくれたこと

心がさけぶ。
「神様この子を助けてください。」
目の前が海になって
手をのばした先に四歳の私があった。

あなたの愛、あなたの痛み
今その熱い思いをだいて祈る私

今わかった

서른여덟을 보내며...

문지연(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삼십 여년이 지나도 예전 그 때처럼
은은한 꽃향기를 피우는
서른여덟의 나무가 부럽구나

가지 끝자락에 열매 맺어
야윈 작은 새 공양하니
서른여덟의 나무가 부럽구나

어느덧 온갖 욕심 다 비우고
한 가지 한 가지 노란 잎 떨쳐 버리니
서른여덟의 나무가 부럽구나

희로애락(喜怒哀樂)
그 모든 것에 초연한
서른여덟의 나무가 부럽구나

그런 그런 나무를 닮고 싶어라

안개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이정희(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섬진강
산 그림자 드리워
밤이 깊어지면
풀과
꽃과
나무들
제 몸 풀어 풀어낸 향기
풀잎 새
꽃잎 새
나뭇가지 사이로
숲의 정령들
제 몸 풀어 풀어낸 향기

섬진강
산 그림자 드리워
밤이 깊어지면
초록 강
노을 강
김푸른 강
구름 빛 숲 향에 취해
밤 새 소리도 없이
제 몸을 감추고

섬진강
새벽 강 위로 이른 해 깃들여
밤새 내려앉은 안개
천
천
히
산 따라 몸을 접는다.

기다림

신인수(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동그란 기쁨하나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더디올까?
이내 아쉬움에
푸른 하늘은 내눈에 덮이고

청아한 기다림은
어느새
성숙하고 완연한
가을이 되어 버리네

해산토굴 <소설가 한승원님의 작가실을 다녀와서>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 장려상

조준원(곡성문화원 사무국장)

고운 잎 연분홍 수련향기로
해님과 인사할 즈음
작가는 토실에 들어
폼었던 새 생명의 젖줄을 뿜기 시작 하네

파아란 구름이고 서 있는 득량만
촌부들 고깃배.
노 저어 앞으로 뒤로
춤추듯 물살의 결 따라
가다보면 풍어의 꿈 바로 오늘 이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넉넉한 인심
신선의 도원 따로 있을까!
생각만 해도 기찰 일이건만
공기 속에 숨쉬는 먼지만큼이나
작은 방울들
하나하나 엮어
천관산 신비로운 노송의 춤사위에 어울릴
천의무봉 하나 짓는다.

인간 세상 문 닫아 걸어
이슬 머금은 차 향내 자욱한 토굴에서
어미 새가 제 몸속에
폼었던 아기하나 내놓듯
작가는 오늘도
詩作 하네.

비오는날의 산행

주성재(곡성군 문화관광해설가)

보슬비 내리는날,
가벼운 우산을 들고 오르는 산행은
혼자만의 황홀한 시간!

타인들은 비웃는다
미쳤다고도 할것이다
그러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맛은
아무도 모를것이다!

비오는날의 山行은 인생과도 너무나 흡사하다,
타인들은 만류한다
미끄러울것이라고,, 위험할것이라고,,
그러나 그 산행의 기쁨을 알고 있는 나는 묵묵히 내길을 간다!
산을 오르면서 다가오는 나만의 시간들...
소나무잎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들으며
나무잎들의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본다
바람을 보면서 자연의 대단함에 탄성을 지른다.

지난날들을 생각한다,
다가올 날들을 생각한다,
어느덧 정상이다
남모르게 자신과 싸웠던 일들이 생각난다
깊고 넓게 펼쳐진 雲海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선택이 옳았음에 탄성을 지른다,

정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며
내리막길을 향한다,
바람과 빗방울과 나뭇잎들의 부딪힘 속에서
인생의 성공보다 지나온 과정들 속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幸福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비오는 날의 산행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게 한다,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再 확인하게 한다.

〈대상〉

기름 묻은 피아노

조현희(의정부 가능초 3학년 1반)

며칠전 엄마 아빠가 내가 피아노 열심히 치라고 피아노를 사주었다. 처음에 피아노 학원을 다닐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운 곡이 나올 때 피아노를 치기가 싫었다. 그런데 또 좋은 곡이 나오고 악보를 보고 칠수있게 될 때는 좋았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피아노를 사준 것이다. 학교갔다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학원에 가려고 했는데 거실에 갈색에 커다란 물결이 내 눈에 들어왔다. 피아노가 내 앞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피아노가 내 앞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난 피아노를 열고 쳐봤다. 근데 소리가 너무 맑아서 우리집에 빠꾸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엄마와 아빠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연주했다.

"오! 잘쳤다. 현희야!"

아빠와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주니 의정부에서 우주까지 날아갈것만 같았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다 바로 비싼 피아노 가격이다. 엄마아빠는 치킨을 파신다. 피아노를 사고 이틀날 저녁을 먹으려고 가게에 갔다. 그런데 엄마아빠에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달에 조금씩 알아 나가면 돼" "요즘 피아노가 비싸요"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슬픈 생각이 들었다. 엄마아빠가 피아노 때문에 더 힘들게 친킨을 팔아야하기 때문이다. 피아노가 320만원이나 한다니 내가 피아노를 잘쳐야 한다는 생각과 피아노를 잘쳐야 한다는 생각과 피아노를 도로 갖다주고 싶은 생각이 반반이었다. 하지만 엄마아빠가 힘들게 퇴근에 들어오실 때 멋지게 피아노를 칠거라고 다짐했다. 그 후로 엄마아빠를 도와드리고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간다. 가게에서 치킨 나르는 것을 도와드린다. 치킨 1마리를 튀긴 것을 박스로 나른다. 난 처음 쉬울줄 알았는데 10째 나르자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엄마아빠는 매일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에 꼭 참고 도와드렸다. 그날 치킨을 튀기다가 기름이 손에 튀었지만 아파도 참았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엄마아빠가 사준 피아노는 기름 피아노라고 부를 것이다. 엄마아빠가 기름을 묻혀가며 사준 피아노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멋진 피아노 보다는 내 기름 피아노가 최고다 이제 피아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아빠에게 웃음꽃을 피게 해줄 것이다.

〈금상〉

통일을 생각하며

신희선(광주광역시 두암초 6-7)

"할머니 할머니 가지마세요..."

나의 애절한 외침은 허공에서만 맴돌뿐이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우리곁을 떠나셨다. 내가 주눅에 살았을 적 우리 옆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계셨다. 어른들은 최씨 할머니라 부르시지만 난 상추할머니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게 된 계기는 내가 처음 할머니집을 방문했을 때 부터였다.

"저... 엄마가 이 떡 갖다드리래요."

할머니는 씩씩 웃으시며 날 집안으로 들여보내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험상궂은 생김새를 본 난 겁에 질려 마당에서만 쭈뼛쭈뼛서 있었다. 할머니는 떡을 가져가서 아직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난 심심해서 마당 여기 저기를 둘러보았다. 마당 여기저기에는 파릇파릇한 상추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보기에도 싱싱하게 여물었기 때문에 씹장 해먹으면 참 맛있게 보였다. "우와 상추 되게 맛있겠다!" "다음에 너네 집으로 보내줄게 먹고싶으면 많이 가져가거래이." 어느새 내 뒤에 할머니가 계셔서 간이 떨어질마름 놀라고 말았다.

"할머니?" "내가 애들 막 놓고 어니마 안 드을 때부터 상추를 재배해서 먹어보았는데 그 맛이 하도 좋아 동네 사람들이 날 상추 아줌마라고 불렀지. 지금은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할머니의 서글픈 모습에 난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제가 할머니를 상추 할머니라고 불러드릴게요. 절 동네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꽃간은 미소가 피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고통으로 얼룩진 할머니의 험상궂은 얼굴 자체를 뒤바꿔버렸다.

"고맙다 고맙다..." "상추할머니는 왜 이렇게 상추를 많이 재배해요?"

"응 그건 내 아들이 좋아하는 채소였기 때문이지."

"아들이요? 할머니 아들은 어디있어요?" "저 멀리있다."

뜻밖에도 할머니의 대답은 매우 단호해서 이제 질문을 멈추고 그만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난 매번 상추할머니댁으로 찾아가 이야기보따리를 늘어놓았다. 그 때마다 할머니는 세월의 지혜로 만들어진 적절한 대답이나 해결할 비책등을 알려주신다.

난 점점 할머니가 좋아졌지만 그럴수록 의문점들은 점점 깊어져갔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상추를 거두어들여 씹장을 만들고 계셨는데 맛있게 보여 하나 집어먹으려 했더니 그와 동시에 사람의 쉬를 갈기갈기 찢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당장 내려놔. 당장!"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에 난 겁에질려 울었다. 한참 울고 있으니 할머니도 무안했던지 나를 달래셨다.

"울지마라 할머니가 잘못했다. 아들에게 관한 일이면 지금까지 항

상 민감하게 대하던터라.... 똑! 울지마라."

결국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곁으로 슬쩍 가보니 정성스레 쓴 씬장들을 찬통안에 넣어두고 계셨다. 벌써 찬통에는 씬장들이 수북하였고 남은 것들은 나를 주셨다. "씬장은 찬통가득 차고도 남는데도 이눔은 오지않으니 어쩌나." "도대체 할머니 아들은 언제와요?" 내가 아무리 다그쳐도 때만 되면 알려주겠다. 이러시며 은근슬쩍 대답을 피하시는 상추할머니.

한때는 내가 할머니댁에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 중 아들과 닮은 놈이 있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도대체 왜 할머니의 아들은 우리 상추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데도 찾아오질 않는건가. 그 내용을 알기에 열한살이라는 나이는 너무나도 어렸던걸까? 그 때문에 난 어서 할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할 나이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6월 초 난 호국보훈대회에 내가 대상을 받았다. 부풀대로 부풀어 터져버릴것만 같은 내 마음을 같이 나눠줄 할머니를 찬아 가려고 유난히 대문을 활짝 열었다.

"상추할머니, 저 대상....."

"너무 조용했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자꾸만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지탱하며 할머니 방문을 슬쩍 열었다. 평소간으면 '우리 희선이 벌써왔누?' 이러면서 활짝 반겨 주실텐데. 눈을 꼭 감고 마침내 힘껏 열었다. 그 순간 내 몸은 하나의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상추할머니는 그렇게... 가셨다.

"이제가면 언제오나 어허어허" 구슬픈 상여소리와 함께 영원히 작별을 고하신 상추할머니.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한다. 난 그제서야 할머니의 비밀을 아빠께 전해들었어. 할머니의 아들은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6·25때 서로 갈라졌다한다 할머니께서 상추를 기르셨던 것은 아들이 가장 먹고싶어했던 음식이기 때문이다. 50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다 살아생전 제 옆으로 씬장을 먹여주지 못하고 가서버린 할머니.

그로 인해 눈을 못 감으셨던 것일까? 어렵듯이 할머니와 나의 옛 추억을 회상해본다.

"할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응 내 소원은 아들을 만나는 거란다. 아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봐야지 죽어도 미련이 없을거 같아."

그럼 어떻게야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책도 집중이 되질 않았다. 억지로 잠시나마 책을 읽으려 노력하는데 웬일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적어 유리병에 넣으세요. 그 다음 그 유리병을 바다에 동동 띄우면 꼭 소원이 이뤄질거예요." 정말이지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였다. 다음날 난

아빠를 졸라졸라 겨우 근처 바닷가에 가게 되었다. 낸 손에는 곱게 접어진 종이와 엄마를 통해 얻은 유리병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파도가 물결치고 은빛 햇살이 조명이 되어주는 바다는 마치 하나의 무대같았다. 은빛물결이 출렁이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난 되도록 멀리 유리병을 띄웠다. 바다에 던져진 내 소원, 꼭 통일이 되어 상추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가 계신 속으로 가게 해주라는 내 소원이 흘러흘러 북한의 바다까지 전해져서 꼭 이뤄지기를 오늘도 난 간절히 빈다.

〈금상〉 가을

전대원(전남 목포 북교초 3학년 4반)

가을은 빨간색 물감
감추고 있어요.

그 물감 가만히
나무에 뿌리면
나뭇잎 울긋 불긋
술 취해 버려요.

그 물감 가만히
감 열매에 뿌리면
파랗던 얼굴 붉어져
홍시 되지요.

사랑 사랑 불어 오는
찬바람 속에
그 물감 아무도 몰래
살짝 숨겨 놓았다가
내가 한눈 파는 사이
얼른 뿌리고
잡히지 않으려 재빨리
달아 나지요.

〈은상〉 "효"에 관한 이야기

이정창(전남 구례중앙초 5학년 1반)

나에게는 이정창 이라는 이름이 있다. 아버지께서 바르게 창성하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미 내 이름안에 효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효요라고 하신다. 가을에 들어서자 몸도 춥고 싸늘하

니 목욕탕에 가기 딱 좋은 날이었다. 그래서 아빠께서 목욕탕을 가자고 내게 제안하셨다. 난 두말 없이 "예" 라고 대답하고 등등 모든 일이 잘 풀려 가다 싶었다. 그러서 빨리 내가 '보석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랜건물인 천주교 앞을 지나 갈대 내가 하느님 얘기를 건넷고, 아빠와 나는 석가모니 까지 들먹이며 신에 대한 얘기를 열중하던 중 아빠차가 그만 중앙선을 살짝 넘었고 그 순간 '짱'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져왔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빠와 내 친한 친구 건욱이 아빠가 언성을 높여가며 협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아빠차는 스타렉스라서 범버만 조금 망가 졌는데 건욱이 아빠차는 작은 마티즈라서 앞문작 뒷문작 모드 망가져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아 차릴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나의 가족 사랑하는 아빠께서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몸 싸움까지 벌이는 두분을 보며서 나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하느님!

당신에 대해 이야기 하다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께서 도움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차 안에서 벌벌떨며 기도했으나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지 아무런 반응 조차 없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내서서 건욱이 아빠를 설득해야 하나, 아니면 아빠를 설득해야 하는가 평소 아빠 말씀대로 라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효도라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아빠를 설득하여 건욱이 아빠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문제는 끝이날 것인데 지금 내가 아빠를 설득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실불리 건욱이 아빠편을 들었다가 불효자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고 나는 차에서 내릴수가 없는 상태로 마음만 조리고 있었다. 다행은 점점 큰 싸움으로 변져 나 같것이고 나는 더 이상 그냥 있을수 만은 없었고 차에서 문을 열고 내리자 나를 바라본 건욱이 아빠가 말했다. "당신 아들에게 물어 봅시다. 당신 아들이 옆에 타고 있었으니 누가 잘 못했는지 말이요" 아빠도지지 않았다. "이웃간에 이게 뭐요 경찰에 신고해서 잘못을 가리자니까" 키작은 건욱이 아빠는 당당했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우리 아빠는 건욱이 아빠 제안에 아주 자신있는 투로 말씀하셨다. "그래 내아들 정장이한테 물어 봅시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는데 마음 속으로 하느님을 원망했다. 아빠께서는 당연히 내가 편들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심이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느님 나에게 어찌라는 겁니까? 그런데 나에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분은 당분간 다출을 중단하고 계십시오! 제가 건욱이 하고 죽는

순간까지 싸워서 승부를 내보겠습니다. 둘중 한 사람은 죽어야 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아빠와 건욱이 아빠 모두 정신이 드는 듯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더니 아빠께서 손을 내밀며 정중히 사과를 청했고 건욱이 아빠도 나에게 진정한 효도를 깨우쳐 준 사건이었다.

〈은상〉

키보드와 어머니 생신

서우석(경남 마산 월성초 5학년 1반)

나는 10만원 짜리 키보드를 사려고 일주일마다 1000원씩 작은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 그러나 부니 작은 돼지 저금통 그개가 가득 찼다. 나는 새마을 금고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려고 집에서 돼지 저금통을 뜯었다. 나는 돈을 하나하나 꼼꼼이 세웠다. 모두 4만원이었다. 나는 입금 시킬 날짜를 보려고 달력을 봤다. 자세히 보니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였다. 나는 어머니 생신 선물로 마땅이 드릴 것이 없어서 키보드를 사려고 저축했던 4만원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 몰래 회사에 계시는 이모께 전화를 드려서 같이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가자고 말씀 드렸다. 이모께서는 알았다며 금방 우리 아파트로 오신다고 하셨다. 나는 얼른 4만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모께서는 아파트에 다 왔다고 전화를 하셨다. 나는 얼른 1층으로 내려가 이모 차를 탔다. 이모께서는 롯데마트로 가셨다. 이모께서 뭘 살 거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이 겨울이라 장갑을 산다고 했다. 롯데마트는 겨울에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나와 이모는 장갑이 있는 곳으로 갔다. 싼 것들도 있었지만 어머니께 안맞을 것 같고 싸구려 티가 났다. 이모께서 추천하신 장갑도 있었지만 비싸서 사질 못 했다. 나는 모양도 예쁘고 가격도 적당한 장갑을 골랐다. 막상 장갑을 사자니 키보드 산다고 저축한 돈이 아까웠다. 나는 순간 어머니 생신 선물을 포기하고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모가 빨리 장갑을 들고 계산대에 가자고 재촉 하셨다. 나는 대답만 알겠다고 하면서 서툰 발이 안 땡어졌다.

나는 머리에 키보드와 어머니 생신 선물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내 생각은 키보드 쪽으로 갔다가 어머니 생신 선물 쪽으로 갔다가 갈피를 잡지 못 했다. 귀에는 이모의 재촉하는 소리가 자꾸 들렸다. 나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장갑을 사리고 결정했다. 나는 계산대에 와서 바코드가 찍힐 때 눈물이 나올 뻔 했다. 결국 계산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모 차에 탔다. 나는 집에 가면서도 키보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자꾸 머리를 흔들었다. 이모가 집에 가다말고 빵집 앞에 차를 세우시며 케이크를 사자고 하셨다. 나는 빵집에 들어가면서도 키보드가 아까워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빵집에서 빵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나는 이모께 하트 모양

이 그려진 조그만 케이크를 사자고 말씀 드렸다. 이모는 내가 고른 케이크를 샀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계셨다. 나는 장갑을 등 뒤에 숨기고 내 방으로 들어 갔다. 저녁에 어머니 생신 축하 파티를 열었다. 나는 손수 케이크를 꺼내 상에 놓았다. 동생과 나는 어머니 연세 만큼 초를 꽂았다. 나는 초에 불을 켜고 영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멋지게 불렀다. 어머니께서는 박수를 치며 촛불을 끄셨다. 나는 방에 들어가 포장된 장갑을 들고나와 어머니께서 환하세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순간 장갑 대신 키보드를 사고 싶었던 내 생각이 부끄러워서 생일상 밑으로 숨고 싶었다. 우리 동생도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고 아버지도 조그만한 선물을 드렸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다. 나는 이 일로 내 욕심도 좋지만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한함을 깨닫고 흐뭇하게 웃었다.

<동상>

우정이란?

천미향(경남 고성군 울천 초등학교 6학년 1반)

우리 학교에 전학 오기 전, 나는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내 짝꿍부터 시작해서 짝꿍 주변의 친구들도 나를 괴롭혔다. 그 때가 1학년이어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내 책에 낙서를 하고 자기 책에 이상한 것을 그려놓고는 그 그림이 나라고 놀렸다. 그 때 나도 그런 그림을 그려서 돌려주고 싶을 만큼 그림이 이상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그런 행동이 큰 효과를 준 것이 아니다. 나를 보면 눈이 작다고 놀리곤 하였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가끔가다 '외계인'이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때마다 몰래 화장실에서 울은 적도 있다. 하루하루 아이들이 놀리는데 그걸 당하고 있으니 힘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엄마, 애들이 나놀려. 나 학교 안갈래."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엄마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빠의 회사문제도 있고 결국 고성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친구들에게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았다. 고성에서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친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프지 말라고 토닥여주고 양호실도 같이 가주고 쉬는 시간 심심할까봐 찾아와 주고,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아니라고 말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 해주고,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을 때 옆에서 같이 기뻐 해주

는 것이 친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진주에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기쁠 때 반응은 달랐다.

아플 때 "야, 아프나? 꼬시다~ 네가 아파 봤자 천하무적이..."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힘드나? 네가 못하니깐 그렇지." 나는 어릴 적에 공부 잘하는 편에 속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진주보다 큰 도시로 보내라고 하였지만 고성으로 이사를 왔다.

대회에 나가서 상 탔을 때, "얼굴은 이상하면서 공부는 잘하나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런 내가 짜증나고 안 아프고 상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왕따 사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괴로움을 알 것 같다. 화장실에서 울 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안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괴롭지 않다. 친구들이 아플 때 쉬는 시간에 와주고, 약을 대신 들고 와주는 것과 모르는 문제도 가르쳐 주고 상을 탔을 때 진심으로 기뻐 해주는 친구들이 고맙다. 또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벌써 여러 해가 바뀌고 6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의 우정으로 괴로웠던 기억은 잊은 듯 하다. 친구는 가족보다 소중한 것 같다. 작은 다툼에 토라져도 다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런 친구 마저 없으면 어떨까? 아마 괴로울 것이다. 가끔은 싸우고 험담도 하지만 나도 이런 친구들이 좋다. 나중에 우리 우정을 갈라놓기 위해 누군가 1억... 아니 그 보다 큰 지구를 준다고 해도 나는 친구들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힘들 때 나누기처럼 힘든 일을 반으로 줄이고, 기쁠 때 곱하기로 곱해 같이 기뻐하고 걱정 담긴 마음을 빼기로 빼내어 걱정을 털어주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하기로 많이 더해 주듯이 우리들의 우정은 마치 수학의 사칙계산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된 일, 못되게 한 일, 때린 일, 싸운 일을 모두 덮어 주는 친구들이 고맙다.

'친구들이! 우리 우정 변하지 말고 영원히 가자. 친구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기둥이 되어주듯 나는 더 튼튼하고 큰 기둥이 되어줄게. 사랑해, 완전 사랑해!'

<동상>

자유가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여진(경남 김해시 석봉 초등학교 5학년 2반)

황금방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로 돌아왔을 때 아기방울새가 아기들을 찾아 헤매다 농부의 집 새장에 갇혀있는 아기방울새를 보았다

는 흰 머리멧새의 이야기를 듣고 농부의 집으로 가 새끼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그래서 황금방울새는 '자유를 잃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농부의 집 새장에 갇혀있는 자기 새끼들에게 독이 든 풀을 먹여 죽였다.

이런 황금방울새의 행동에 대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목숨보다 자유가 소중한 때도 있다고 하셨지만 나는 이런 황금방울새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유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새장에 갇혀있더라도 언젠가는 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것은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노력해서 실패하여도 또 일어서고, 노력 또 노력하다 결국 죽게되었지만 황금방울새는 단 한번 노력도 해보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황금방울새가 한 행동은 옳지 않다. '자유를 잃느니 죽는 게 낫다.'는 황금방울새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기 방울새들이 풀려 날 지도 모른다는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뉴스에서 어떤 한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이던지,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그래도 그 부모들은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분명히 황금방울새도 자신의 새끼들을 죽이면서 많이 슬펐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아프고 슬퍼 할 시간에 오히려 아기방울새들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또, 내가 전에 살던 곳에 누나와 동생이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동생은 죽고 누나는 중상을 입은 사진이 있었다. 그 때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생명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어미 황금방울새는 부모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자식도 자기 목숨에 대해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기방울새들이 새장 속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해서 황금방울새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살아있지도 않은데 자유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유도 소중한 수 있지만 그 보다 우선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동상)

봄 운동회

김수빈(광주 운남 초등학교 3학년 5반)

운동회가 열릴 때마다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엄마께서 빠짐없이 나를 보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3학년이 되니 엄마가 전보다 나에게 관심이 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초에 처음으로 본 컴퓨터 3급 필기 시험을 간신히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무시기만 해서 서운하고, 속상했다.

이번에 합격하면 엄마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떡고치를 사주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신 엄마께 화만 났다.

3월 초, 3학년 들어서 봄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필기 시험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데 운동회도 역시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엄마께서 오시지 않은 것 같았다.

친구들의 엄마들은 모두 오셨는데 우리 엄마만 안 오신 것 같아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며 입장을 했다.

첫 경기인 우리 반 과 6반의 줄넘기 시합이 펼쳐졌다.

그러나 친구들 엄마들은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엄마만 없다는 생각에 막 뛰기만 했다. 자신이 없어지고 집중도 하지 않고 그냥 뛰기만 했는데 우리 반이 이겼다. 우리 반 스탠드로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의 응원소리가 들렸다.

"수빈아,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드디어 엄마께서 오신 것이다. 언제나 우리 반 스탠드 뒤에 서 있던 그 모습대로 웃으며 서 계셨다. 다음 경기인 100m 개인 달리기가 펼쳐졌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으로 가득 찼다. 2등 했지만 그래도 너무 기뻐다. 이번엔 줄다리를 했다. 엄마의 말 한마디를 염두 해두며 있는 힘껏 당겼더니 우리 반이 이겼다. 엄마께서 오셔서 응원을 해주신다는 사실만으로 다리에 힘이 샘솟듯이 솟아 오르고, 웃음만 나와서 어떤 경기를 하든 이길 것 같았다. 이번 여름 운동회는 3학년이 되어서 엄마의 관심을 오랜만에 느낀 날이 되었다.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나를 위해 힘써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되었다. 요즘 엄마께서는 나에게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방에서 써왔던 독후감이나 여러 종류의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영어공책, 한문공책, 학습지 공책들을 꼼꼼히 보신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써주시니 엄마께 정말 감사하다.

(동상)

애국지사 할아버지

정아인(광주 동림 초등학교 3학년 8반)

학교 다녀오는 길에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다. 허

리가 뒤로 살짝 휘어져 있으신 할아버지께서는 몸을 가누기 어려워 보였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엘리베이터조차도 타지 못하고 서 계셨다. 더욱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문이 빨리 닫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할아버지가 들어오지 못 하실 것 같아 열림 버튼을 누르고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했다. 이것이 할아버지와와의 첫 만남이었다.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층에 사시는지 7층 버튼을 누르셨다. 그 때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기우뚱해서 난 할아버지의 허리를 잡아 드렸다.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되어있어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데 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이 아마 이사오신지 얼마 안 되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땡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는 복도를 한참 걸어 가신 후에 어느 집 앞에서 멈춰서셨다.

"할아버지 댁 맞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대답대신 귀를 내 쪽으로 하셨다. 못 들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렸더니 허리춤에서 신분증을 꺼내 내게 보여주시며 신분증에 적혀있는 애국지사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마침 할아버지께서 멈춰서신 705호 때문에 '애국지사의 집' 이라고 쓰여 있어서 "할아버지 댁이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 드렸다. 안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노인네가 길도 모르면서 혼자 노인정엔 왜 가셨수?" 걱정하셨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엄마가 높다 낮게 들어온 나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고맙다고 내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뿌듯했다.

며칠 후, 엄마와 외출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복도 저 쪽 끝에서 나를 보신 할머니께서는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뛰쳐나오셔서 내게 만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어주시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아가,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단다. 애국지사 서서 대전 국립묘지에 묻히셨단다. 그리고 이걸, 내가 주는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주시는 돈이란단다." 하시며 집에 계시던 아들까지 불러 "애가 너네 아버지 죽기 전에 마지막 외출을 도와준 애란다." 하시며 나를 소개해 주셨다. 그 분도 내게 고맙다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난 너무 쑥스러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신 분을 조금 이나마 도와드렸던 것이 뿌듯했다.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 하시구요. 애국지사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게요. 편히 쉬세요."

〈동상〉

엄마의 수술

김소윤(마산시 월성 초등학교 4학년 2반)

깜깜한 저녁이었다. 난 TV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지셨다. 엄마는 갑자기 너무 아프 신지 배를 움켜쥐고 땡굴기 시작했다. 난 깜짝 놀라 겁에 질려 TV도 끄지 않고 엄마한테 달려가 머리를 짚어보았다. 엄마의 머리가 뜨거웠다.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엄마가 영급영급 기어가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친구 두 분과 함께 집에 오셨다. 할머니께서는 너무 당황하셨는지 엄마를 우두커니 바라보고만 계셨다. 난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아무 응급조치도 못 하시는 할머니가 몹시 미웠다. 난 얼른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 아빠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아빠도 얼른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다. 난 아빠가 빨리 온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다. 거실이 시끄러운지 잠을 자던 네 살짜리 동생이 크게 울었다. 난 깜짝 놀라 큰 방으로 달려가 동생을 달랬다.

아빠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문을 벌럭 열고 들어오셨다. 아빠는 엄마를 얼른 업고 내려가 아빠 차에 태우셨다. 난 동생을 안고 아빠를 뒤쫓아 갔다. 아빠 차를 타고 파티마 병원으로 갔다. 엄마는 얼른 응급실로 들어갔다. 난 혹시 엄마가 잘 못 될까봐 겁이 벌럭 났다.

'엄마 엄마 많이 아프면 안돼'

하고 자꾸 중얼거렸다. 동생도 상황파악을 했는지 내 귀가 이플 정도로 크게 울었다. 난 동생을 있는 힘을 다해 달랬다. 동생이 울어도 아빠는 낫나간 사람처럼 응급실문만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 한참 울던 동생도 지쳤는지 울음을 그치고 잠이 곤히 들었다. 응급실에서 문을 열고 간호사 한 분이 나왔다.

간호사는 아빠께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마 뱃속에 혹시 낳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하셨다.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난 엄마가 잘 못 될까봐 동생을 안고 수술실 앞을 맴돌았다. 아빠께서도 불안 하신지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셨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고 엄마가 누워 계시는 환자용 침대를 밀고 나왔다. 난 엄마한테 달려가 괜찮으시냐고 여쭙보았다.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는 회복실로 갔다.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배에 큰 혹이 생겨 배가 많이 아팠던거라 말씀하셨다. 난 날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파티마병원으로 달려가 열심히 엄마 간호를 했다. 엄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화장실에 가실 때는 빠짐없이 엄마를 부축해 드렸다. 엄마께서는 매일 말씀만

피우던 내가 웬일로 이러냐고 말씀하셨다. 난 집에 엄마가 계시지 않아 잠도 오지 않고, 엄마가 보고싶어 울기도 한다고 말씀드렸다. 엄마께서 동생은 잘 지내냐며 이번 주 토요일에 동생과 함께 파티마 병원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토요일이었다. 아빠와 동생과 함께 파티마 병원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빠께 엄마의 몸이 다 완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딸이 날마다 와서 간호를 열심히 해 다른 사람보다 회복이 더 빨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꼭 효녀 심청이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옆에 계시던 엄마, 아빠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동상)

솔이네 옥상 고추밭 '어진이의 농장일기'를 읽고

박한솔(광주 남 초등학교 3학년 5반)

"솔아, 옥상에 올라가서 고추 좀 따올래? 빨간 거랑 파란 거 섞어서."

"네, 엄마. 몇 개 따 와요?"

난 후다닥 샌들을 끌고 옥상에 올라가 길고 진한 색으로 몇 개 따고(이건 아빠 것, 아주 매움.) 옅은 색으로 통통한 놈도 몇 개 따다.(이건 엄마랑 우리 것, 덜 매움.) 솔직히 고추를 따가 가지까지 끊어버려 할머니께 혼나기도 한다.

난 우리 집 고추 당번이다. 선생님이신 아빠는 우리랑 똑같이 방학을 하신다. 아빠께서는 점심 때 찬물 말아서 아주 매운 고추를 된장에 찍어 드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방학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옥상에 오르락 거렸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고추를 먹었다가 큰 일 날 뻔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한번 혼나서 지금 우리 식구는 매운 걸 먹으면 얼른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입이 덜 맵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어진이의 농장일기'를 읽었지만 난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아 읽지 않았다. 동생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면서 책을 보았다. 뿔이 재밌어서 자주 보나 들여다보면 외할아버지처럼 농사짓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처럼 큰 논과 밭이 아니라 땅 따먹기같이 조각조각 금을 그어놓은 밭에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어진이가 부모님을 따라 그 조그만 농장에 가서 씨를 뿌리고 벌레도 잡고 풀도 뽑아 고기파티도 열고 할 때 잔치분위기가였다. 벌레가 배추를 뜯어 먹어서 어진이 엄마가 슬피했을 때 내가 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우리 할머니께서는 담배 콩초를 주워 모아서 큰 동에 물을 붓고 그 속에 풀어놓는다. 나도 아빠가 피우시고 난 담배콩초를 옥상으로 가져 나른다. 그러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썩는데 그 물을 고추나무에 뿌리면 진딧물이 달라붙지 않는

다고 했다. 우리 고모는 그렇게 하면 고추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 같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던 것이라고 그냥 뿌리신다. 그래서 우리 옥상의 고추나무는 아주 깨끗하다. 나무 하나에 고추가 한 백 개는 다다다닥 붙어있다.

어진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재미있었다. 어진이가 학교에서 농부상장을 받고 좋아했는데 쇠똥이랑 닭똥이랑 거름을 해야하는 걸보고 도망치는 것을 보고 알만 했다. 나도 여름방학 때 삼촌네 시승농장에 가서 시승 먹이를 주는 것은 좋았지만 시승 퐁치우는 건 정말 싫었다. 그래서 어진이 마음을 잘 알다.

나도 어진이처럼 농장을 갖고 싶다. 가을에 우리는 외갓집에서 절인 배추가 택배로 오는데 내가 배추를 키우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상추도 키우면 삼겹살에 상추쌈을 해 먹을 수 있고 파로 국을 끓여 먹으면 국물이 시원하니까 파도 심고 싶다. 그렇지만 난 어진이처럼 사람들이 외글외글거리는 데 농장을 만들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난 인삼씨도 심어서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난 인삼씨를 심으면 여름에 삼계탕을 끓여먹을 때 넣어 먹을 것이다. 인삼은 귀하니까 분명 누가 훔쳐 갈 것이다. 어진이네 배추도 누가 훔쳐갔으니까 이것은 틀림없다. 지금 우리 고추를 한 봉지씩 이 집 저 집으로 선물에 주는데 인삼도 여름 복날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비밀이 잘 성공해야 한다. 선물하기도 전에 누가 훔쳐가면 안되니까. 우리 옥상이 딱 좋다. 내년에는 고추대신 인삼을 심자고 할머니께 졸라야겠다.

우리 할머니께서는 어진이네 부모님보다 훨씬 더 농사에 대해 잘 아신다. 아빠랑 엄마는 하나도 모르시지만 할머니는 농사박사다. 그래서 항상 옥상에는 상추랑 파랑 고추가 있다. 작년에는 완두콩도 심어 밥에 넣어 먹었다. 난 동생에게 물었다.

"넌 '어진이네 농장일기'는 잘 읽으면서 왜 옥상에 고추 따러는 안가?"
"몇 번 따봐서 재미없어."

역시 동생은 새침테기다. 난 어진이네 농장보다 훨씬 더 좋은 옥상 고추밭이 있어준다. 할머니께서 오래오래 사셔서 여름마다 아버지께서 매운 고추를 된장에 맛있게 찍어드시면 좋겠다.

(동상)

가족의 참사랑을 깨닫게 해준 책 '새 동생'을 읽고

이창신(광주 효동 초등학교 5학년 5반)

내게 있어서 '동생'은 늘 그리운 호기심의 대상이다. 아마도 내가 외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 이유 때문인지 엄마와 함께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를 때, 내 또래의 아이가 귀여운 꼬마를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책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새 동생? 동생이면 동생이지, 새 동생은 또 뭐야?"

나는 호기심이 생겨 책을 집어 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내 짐작대로 친동생이 아닌 입양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글씨도 큼직한데다 대화체까지 많아서 무척 재미있어 보였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진 나는 엄마한테 책을 사달라고 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생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난 그 동안 동생이 생기면 무조건 좋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특히, 엄마가 낳아준 친동생이 아닌, 입양아라면 말이다.

동주 엄마는 <초록 어린이집>이라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어버려 할 수 없이 보육원으로 보낸 윤철이라는 아이가 급성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주 엄마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조금만 더 사랑을 갖고 보살피주었더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말이다.

그 사건 이후, 동주 엄마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결심을 한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마음고생을 한다. 그렇지만 신세대 여성인 고모와 동주, 그리고 정미의 응원을 받아 끝내는 입양아를 들이게 된다.

난 동주가 새 동생을 입양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참 착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반대를 했더라면 책을 읽는 내내 동주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역시 동주 엄마의 생각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만 잘 살지 않고,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를 내 가족으로 만들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하지만 점점 책을 읽어갈수록 동주의 새 동생인 문주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밤중에 잠을 깨어 약을 쓰며 울질 않나, 아무 데나 오줌을 싸질 않나, 남의 물건을 슬쩍해서 감추질 않나, 열심히 해놓은 숙제를 망쳐서 선생님께 혼나게 만드질 않나.....

난 새 동생을 미워하는 동주 마음이 이해되었다. 아마 나라면 동주보다 훨씬 더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런 미운 것만 골라하는 새 동생 문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자랐으면, 좋은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 걸 모래 흙쳐다가 감춰 놓았을까?

결국 새 동생을 미워하다 못해 때리기까지 한 동주는 시골 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가서 입양아인 문주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다고 일러 바친다. 그 일로 인해 할아버지께 혼인 난 아버지는 엄마와 심한 싸움까지 하게 되고 나중엔엄마가 집을 나가 유치원에서 따로 잠을 자게 된다.

나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동주의 새 동생이 갱기

전에는 말다툼 한 번 없던 행복한 집이었는데, 불쌍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문주를 입양한 것이 오히려 불행을 몰고 왔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빨리 동주네 집 식구들이 행복해지기를 빌었다.

내 기도가 통했는지 가족들이 문주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동주가 문주를 업은 채 끝까지 보살피 줘서 그런 것 같았다. 난 여기에서 사람을 사귄 때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만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동주네 집이 다시 행복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책을 내려놓는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요즘, 책은 잘 안보고 갈을 들고 싸우는 폭력적인 만화를 자주 본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걱정이 대단하시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감동적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칭찬받을 때도 있다. 역시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책을 읽어야 하나보다.

난 오늘 '새 동생'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가족 아닌 다른 소외된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책 속에서지만, 동생에 대한 간접경험까지 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나한테 동생이 생긴다면 무엇이든 양보하고 함부로 짜증내지 않는 그 누구보다 자상한 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동상>

21세기 심청을 만나다

장혜린(파주시 문산동초 6학년 2반)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들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물질적으로 발전하는 만큼이나 정신세계가 발전하고 넉넉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당장의 편리함과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마저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더 이상 보살피기 싫어 다시는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 제주도에까지 가서 어머니를 버린 사람, 부모와의 재산다툼으로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 부모님을 모시기 싫다고 형제간에 싸움을 하는 사람과 같이 모든 행실의 근본이랄 수 있는 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세상을 보면서 1700여 년 전 지금의 전남 곡성 부근이 백제땅 곡나 지역에서 맹인아버지 원량의 외동딸로 태어나 자신의 몸을 아버지를 위해 바친 홍장이 생각났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효의 상징으로 불리는 심청이의 실제 모델인 홍장이 몸소 실천한 효도만큼 우리들이 할 수는 없더라도 심청천을 읽으면서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효심에 감동하고 왕비

가 되어 눈을 뜬 심봉사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결말을 읽으면서 안도하듯이 사람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으뜸가는 도리인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효의 행동을 서슴없이 해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읽게 된 세상에 심청이와 같은 효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 뿌듯했다.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장지혜 언니의 사연이었는데, 장지혜 언니는 간염을 앓다 간경화로 병이 악화되어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간을 기증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다. 물론 간이식수술을 하는 것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라간 장지혜 언니의 효심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화된 병세로 각혈을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마도 장지혜 언니는 공양미삼백석에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인당수에 뛰어들 결심을 한 심청이처럼, 자신의 간을 떼어 아버지가 살수만 있다면 수술 중에 죽어도 좋다는 결심을 했을 것이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재생 가능한 간을 이식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효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행동으로 실천한 장지혜 언니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보여 지고 승화되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심청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지혜 언니와 같은 입장에 섰을 때,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용기와 효심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씀이 이제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내가 21세기의 심청이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동상〉

효녀 심청의 곡성을 다녀와서

나예영(광주 송원초 1학년 1반 55번)

일요일에는 항상 장성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 가지만 큰 고모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구경을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족도 모처럼 여행 갈 준비를 하였다. 아빠께서는 인터넷 전라도 여행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좋은 관광지를 찾아보시고는 곡성 기차 마을과 효녀 심청공원에 가 보자고 하셨다. 야호! 나와 내 동생들은 소리를 지르고 엄마, 아빠께서는 미소를 활짝 지으셨다. 드디어 출발하였다. 넓은 연두색 들과 초록색 높은 산, 그리고 푸른 하늘은 우리들 기분처럼 활짝 웃

고 있는 것 같았다. 곡성 플렉시드에서 아빠는 곡성의 관광 지도를 얻으셨다. 관광지도를 보느라 동생들은 조용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효녀 심청' 이 뭐야? 하고 물어 보았다. 나는 동화책에 나오는 효녀 심청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 주었다. 가끔 틀리거나 빼먹은 부분은 엄마께서 도와 주셨다. 이야기 다 듣고 난 동생은 '나도 알아! 효녀 심청 이야기 나도 알아!' 라고 하였다. 우리 가족은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 기차마을에 금방 도착했다. 내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리니까 정말 많은 코스모스들이 즐거워 한들한들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코스모스 꽃길을 달려 보기도 하고 코스모스처럼 활짝 웃으며 사진도 찍었다. (사진이 기대 된다.)

또 기차도 타 보았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 탔다. 처음 타보는 기차여서 동생들과 나는 신기하고 기차 소리처럼 마음도 쿵덕쿵덕 뛰었다. 안내하는 이모의 소리에 귀도 쫄긋 세우고 눈도 크게 뜨고 보았다. 나는 아빠께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기차에서는 아이스케끼도 팔고 삶은 계란도 팔았다. 아빠께서는 두 가지 다 사 주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아이스 크림'인데 아저씨는 '아이스케끼'라고 한 것이다. 아빠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많은 구경을 하고 심청 공원으로 가 보았다. 심청 공권에는 여러 가지 장승들과 심청이 인당수에 빠질 때의 배가 한 척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효녀 심청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곳으로 가 보았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려가서 물 위의 길을 걸어 가 보고 코스모스 길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물 속에는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꼬리를 살랑 살랑 흔들며 나에게 윙크를 하는 듯했다. 정말 한 마리라도 잡아서 집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싶었다. 어느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광주로 돌아왔다. 효녀 심청 축제는 다음주에 열린다고 하였다. 정말 멋진 하루 관광이었다. 다음주에 또 가보고 싶다. 그 때는 할머니까지 모시고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녀심청의 착한 마음을 본받아여겠다.

〈동상〉

나의 꿈

주연우(광주 송원초 3학년 1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린이의 순은 대통령입니다. 또한 저희 반에서는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화가, 만화가, 소설가, 외교관 등 정말로 다양한 꿈들을 가슴속에 담아놓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의 꿈도 물론 많습니다. 소설가, 만화가, 화가, 외교관... 그 중에서 저는 외교관이 가장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만화 그리기, 동화 쓰기 등을 취미로 다 즐기는 멋진 외교관이 되

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수업시간에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였더니, 모두들 저에게 외교관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 그때 너무나 흐뭇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것은 한국을 빛내기 위하여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외교관이 전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외교관이 되어서 할 일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전 외국으로 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생활과 한국의 대표 물건들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널리널리 알려지겠지요. 그런 다음 영어나 외국어로 글을 쓰고 만화도 그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만화를 영어로 바꿔서 쓰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만화를 언제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멋진 곳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한국에 오고 싶어지겠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오면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국어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쯤이면 저도 영어랑 외국어도 익숙해져서 외국인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더욱더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외교관이 되어서 불쌍한 나라 사람들도 보살펴 줄 것이고,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 있을 때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친한 나라와 함께 푹푹 멍쳐서 그 어려움도 모두 이겨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외교관이 되려면 외국어만 잘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외교관에 대해 찾아보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요. 많은 공부를 해야만 외교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꼭 외교관이 되어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을 빛내고 싶으니까요. 제가 노력하는 것과 똑같이 저의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린이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도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런 저의 친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상>

어머니의 밤고구마

김소연(광주송원초 5학년 3반)

유난히도 함박눈이 많이 내렸던 작년 겨울, "딩동!" 시골 할머니께서 빨간 밤고구마를 택배로 보내 오셨다. 포근포근 고소한 알밤 맛

이 들어있는 밤고구마를 빨리 먹고 싶어서 급하게 자루를 뜯었는데 그안에 뽀뽀뽀한 글씨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맑은 날이 많아서 고구마 농사가 잘됐다. 하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하고 써어진 할머니의 쪽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폴한 포기라도 소중히 여기며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거북이 손이 되도록 일을 하신 할머니 모습이 올라서 코가 시큰했다. 전 해에부터는 행사객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땅이 썩어가고 있는지 예전보다 고구마 수확이 줄었다고 하신다. 할머니집 시골은 언제부터가 냇가나 산골짜기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들은 환경 보전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은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이다. 쓰기는 깨끗한 자연 환경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파괴시키기까지 한다. 마구 버려진 비닐, 깡통, 우리 병들이 바로 그렇다. 이것들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이면 쓰레기로 인한 각종 병균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환경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해도 우리 모두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깨끗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의 방법들을 알아보았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다음으로 천연세제를 쓰고 충전식 건전지를 애용한다. 또한 비닐봉지를 쓰지 말고 페품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나무를 심는다. 환경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보존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면 '깨끗한 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할머니의 눈, 발, 냇가에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할머니의 빨간 밤고구마가 많이 생각난다.

<동상>

효녀심청에 대하여.....

김태현(곡성중앙초 5학년1반)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중에 하나, 바로 심청전이다. 심청전은 백설공주 신데렐라 같이 화려한 공주가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난 옛날에 읽었던 심청전을 제일 좋아한다. 봉사이신 아버지를 위해 바닷속으로 빠진 한 소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봉사인 아버지를 뺨피해 하지 않고 그런 아빠를 더 자랑스럽게 여긴 심청이는 비록 가상속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심청이는 내 마음속에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심청이었다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만 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아빠를 뺨피해 하였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게 너무 아쉽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선과 악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증오, 아픔, 미움이란 새싹이 돌아나고 있다. 하지만 심청이의 마음은 마치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항상 행복해 보인다. 심청이는 봉사인 아빠와 가난을 극복해야 하지만, 심청이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준 심청이. 심청이는 오늘을 마지막 살 듯이 열심히, 오늘을 처음 살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엄마를 잃고, 봉사인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은 지금 현대인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도 못할 것이다. 우리 곡성의 대표 캐릭터이자 내 마음의 위인인 심청이..... 나는 솔직히 오늘 할 밥도 없이 항상 뛰는 심청이와 난 정말 비교된다. 항상 멋 부릴 생각에 빠져있는 12살의 나..... 지금은 모든게 발전해 새집을 지어주거나 돈을 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심청이 시대..... 그리고 보면 심청이도 대단하지만, 심청이를 돌봐주었던 이웃사람들도 참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망치고, 남의 것을 뺏기 바쁜 이 시대에는 이제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다. 심청이가 살던 마을은 동이 없어도 남의 것을 챙겨주는 정다운 분위기다. 우리시대에는 사랑이란 이제 없는 걸까..... 심청이는 어린순 삶을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앞으로 나도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동상〉

행복과 불행 사이

김준원(의정부 서초등학교 3학년 2반)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 가족이다. 동생도 없고 형도 없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식구가 많은 것처럼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다른 이웃들에게도 이미 소문난 우리 가족이었다.

엄마는 동생이 4명이나 되어서 그런지 매일 매일 웃으며 살았다. 또, 내가 아빠에게 혼날 때 나를 위로 해주시고 내 편을 들어 주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를 한번도 혼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우리가족 중에서 제일 듣직한 분이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분이셨다. 아빠는 내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큰 목소리로 혼내셨다. 그래서 난 아빠가 싫기도 했지만 나랑 놀아줄 때 만큼은 호랑이 같이 느껴졌던 아빠가 마치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다쟁이 엄마와 호랑이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조금 이기적이고 엄마와 아빠에게 투정도 부리는 열 살난 아이이다. 그런데 행복한 우리가족이 갑작스런 아빠의 출장으로 모든게 바뀌었다.

초여름이 다가오는 6월, 난 피서 갈 생각과 여름방학에 들떠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큼지막한 여행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빠가 들고있는 호주행 비행기 표를 보았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아, 해외여행 가나보네, 야호!' 하며 기뻐했다. 나는 행여나 아빠의 마음이 바뀔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가 아빠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던 것 같다. 아빠 모습은 애써 웃고 있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렇게 아빠를 떠나 보낸지 며칠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빠의 빈자리가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빠에게 혼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신이났다. 그런데 엄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늘어 갔다.

한번은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밤 12시가 되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럴 때 아빠가 있었다면 아빠가 놀아 줄 텐데...."

저녁 밥도 먹지 않고 엄마를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온 엄마는 내가 밥을 안 먹은 것을 알자 화를 내셨다.

"왜 밥 안 먹었어? 엄마가 일하느라 힘드는데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니?"

"...."

눈물이 왈락 쏟아졌다. 나는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혼자 밥 먹으면 쓸쓸 할까봐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던 거였는데.....

그런데 엄마가 화를 내자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빠가 없어서 엄마도 슬픈 가보다.'

이제부터 아빠가 보고 싶어도 꼭 참으며 내가 할 일은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잠든 엄마가 깨지 않게 아침밥을 차려먹는 것이다. 혹시라도 엄마가 깨면 나는

"엄마, 더 자."

라고 말한다. 또 학교에 갔다 오면 청소기로 간단히 방을 밀고 내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둔다. 언제나 엄마 힘내라고 웃는 얼굴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아빠와 함께 하던 체스를 보면 눈물이 난다. 빨리 우리가족이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상〉

가족이란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박소희(경남고성 울천초 6학년)

우리 집 가족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며 우리가족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다. 우리

만원이 있었다.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내가 돈을 넣어둔 1만 원짜리 지폐가 발이 달렸는지 손이 달렸는지 감쪽같이 없었다. 그 때 내가 넣었던 일이 생각났다. 순간 내 얼굴은 일그러지고 입은 ㅈ 벌어졌다. 나는 연달아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저실에서 내 한숨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왜 한숨을 쉬냐? 어디 아프니? 빨리 학교 가거라." 나는 하고 싶었던 말이 목까지 치밀었다가 내려갔다. 어머니께서 선물을 못 사다 드리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이미 옆질러진 물인데 주워담기는 어려웠다. 걱정이 되었다.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못 하고 계속 방을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아, 이 놈의 건망증이 수시로 괴롭히네' 모든 생각은 제쳐둔 채 온통 내일 걱정만 했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일 일은 잊고 오늘 일에만 전념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예전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는 걱정에 잠이 안 왔다. 마치 무슨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실망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또 어머니께 죄송했다. 괜히 호헌정담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밤늦게 잠이 들었다. 피곤했던지 늦잠을 잤던 모양이다.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라고 자꾸 깨워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와 몇 번이나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다. 벌써 평소보다 40분이나 늦어있었다. 마음은 빨리 움직이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밥도 안 먹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갔다. 세수도 제대로 안 한 탓에 눈에 눈곱이 더덕더덕 비어있었다. 안개가 눈을 가리는 것 같았다. 하얀 운동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중앙현관 앞에 턱 수업시작 10분 전이었다. 나는 가방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교실로 뛰어갔다. 반 친구들이 전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교실에서 6교시까지의 수업을 마치고 학원도 마쳤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다. 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아, 어떻게 변명을 하지?' 나는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문을 살짝 당겨보았다. 문이 열려있었다. 몇 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오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계셨다. "저..... 어머니," "왜? 무슨 하고 싶은 말 있니?" 나는 지금까지 가슴 졸이던 이야기와 내 심정을 더듬거리며 털어놓았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씀하셨다. "엄마는 처음부터 앞치마 크게 기대 안 했어." "근데 너 생일 때 뭐 사 줄까?" "아무거나요."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나는 얼른 씻고 따끈한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생신 선물을 못 받으셔서 서운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불에 누워서 예쁜 편지지에 어머니께서 편지를 썼다. 밤

12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편지를 다 썼다. 나는 불도 안 켜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의 허름한 앞치마 주머니에 편지를 꽂아 넣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고급스런 앞치마보다 이 편지 한 장이 더 좋은 생신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누구 몰래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웬지 내일은 기분좋은 하루가 될 것만 같았다.

(동상)

효도 자판기

한예슬(마주시 새금 초등학교 6학년 1반)

"초고속 효도선물?"

요즘 사람들의 효도는 21세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 다양하고 편리해 진 것 같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꼭 찾아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너무나 편하게 선물을 사서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연 부모님들이 그런 선물들을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우리가족은 학교를 끝내자마자 서둘러 할아버지 댁에 갔다. 자주 찾아뵙는데도 갈때마다 너무나 좋아하신다.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잠깐이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탔을 때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울적했다. 그런 기분들이 모여서 '좀 서 잘해 드려야지.' 하는 다짐이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효녀 점순 이라고 불리실만큼 효성 지극한 분이시다.

6·25전쟁으로 아버지를 어릴 때 여의시고 여지껏 외증조할머니 곁에서 돌보아 드리며 모시고 살아 오셨다. 항상 외할머니를 보면 증조할머니를 진심으로 위하신다는 느낌을 받아 왔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지 않고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신다.

재작년 어버이날에 나도 외할머니처럼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결심을 단단히 했었다. 아빠는 근무 때문에 집에 안계셨고 엄마는 독감에 걸리셔서 너무나 많이 아프셨다. 그래서 나는 동생하고 아침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쌀을 씻어 밥통에 넣고 취사를 눌렀다. 그 다음에 반찬을 해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좋아하실 엄마를 생각하면서 감자와 오랭이를 볶았다. 그리고는 상을 차려서 들고 가서는 엄마를 깨웠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라시고 화를 내시던지....., 가스불 때문에 놀라시고 볶음요리를 할때 기름에 데었을까봐 화가 나셨나보다. 왜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이 나던지 영영 울었다. 나중에는 엄마께서 우리들들을 꼭 안아 주시고 머리

를 쓰다듬어 주었다. 태연이가 너무 어려서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어느 버튼을 눌러 어떤 선물을 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다. 난 아직 어리지만 우리 마음이 항상 넘쳐흐른다. 앞으로 나이 들어가실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항상 곁에 있어 드릴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거실에 계신 아빠,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진다

〈동상〉

아빠에게 배운 효도

강세인(여수 여문 초등학교 3학년 2반)

우리 아빠는 거꾸로 생활 하신다. 내 친구들 아빠들이 저녁이면 퇴근하셔서 아침일찍 출근하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 아빠께서는 밤늦도록 언니, 오빠들

공부를 가르치시고 새벽에 들어오신다. 나는 아빠의 출퇴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학교에 간다. 나는 아빠가 늦잠꾸러기이고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일요일이면 언제나 할머니댁을 찾아가신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하지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혼자 가실때도 많다. 나는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지 않는 아빠가 싫었다. 내 친구 아빠는 7시 되면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도하고 숙제도 한다고 해서 정말 부러웠다.

나도 함께 놀이공원에도 가고싶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에게 왜 우리 아빠는 놀아 주지도 않고 늦게 들어오냐고 짜증을 냈다. 엄마는 "세인아, 아빠는 세인이 학원 보내주고 공부 시켜주려고 돈을 버시느라고 그런거야.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싶지 않겠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 하시면서 피곤해 하시는 아빠를 생각 해 봐." 엄마 말씀에 아빠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다음 날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아빠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는 아빠에게 잘못된 것이 많았다. 친구들이 일요일이면 재미있는 곳에 간다고 자랑하면 나는 할머니 집에만 가지고가는 아빠가 싫었다. 우리아빠가 가장 신이 날 때는 할머니 선물을 마련할 때이다. 엄마가 싸주시는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차에 오르실 때 아빠 얼굴은 해님보다 환하다. '아빠는 할머니 집이 머가 그렇게 좋을까?' 하며 토라진다.

우리 엄마는 그때마다 "세인아, 너도 엄마가 좋지? 엄마도 이세상에서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 아빠도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실거야" 하고 말씀하셨다. 집에 있으면 매일 쿵쿵 주무시고, 쉬는 날이면 할머니 집으로 가시는 아빠. 하지만 나도 우

리를 반겨주시며 두팔 가득 껴안고"내 새끼 우리공주님 왔는가" 하시며 안아주시는 할머니가 좋다. 우리가 가져간 반찬통에 더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싸서 챙겨주시는 우리할머니. 돌아오는 길이면 어느새 놀이공원 가고 싶은 생각은 싹 사라진다. 언제나 피곤해 하시는 우리아빠, 나는 아빠가 왜 게으름뱅이처럼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 하는지 이유를 알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이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불평한 것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이제는 아빠가 잘 놀아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야겠다. 할머니 집에도 내가 먼저 가자고 해야겠다. 먼 훗날, 내가 어른이되고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 나도 아빠처럼 쉬는 날이면 아마 외할머니 집으로 갈 것 같다. 언젠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떠오른다. 진짜 효도는 좋은 옷,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 아빠가 할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나도 아빠, 엄마의 마음을 즐겁게 헤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동상〉

감나무

박효원(광주 송원초등학교 1학년 1반)

우리 집 감나무는
욕심쟁이
감나무
초록초록
아기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네.

우리 집 감나무는
부끄럼쟁이
감나무
주렁주렁
열린 감
쳐다보면 은
부끄럽다 부끄럽다
주홍 얼굴 되지요.

우리 집 감나무는
인신 좋은 감나무

주홍 얼굴 쳐다본 다
입을 삐죽거리면
머리 위로 '톡'
계단 위로 '톡'

여기저기
주홍 물감

<동상>

구름

박진희(곡성오산 초등학교 4학년 1반)

구름은 화가
비온뒤
고운물감 풀어서
알록달록 무지개 그려요.

잘 못 그리면
는개로 살며시 지우고
아이들의 꿈
하늘에 펼쳐 놓아요.

구름은 조각가
해질 무렵
하연 석고 뭉개서
뭉개뭉개 아기양 새겨 놓아요.
잘 못 새기면

바람으로
살며시 깎고
아이들의 마음
하늘에 달아 놓아요.

<동상>

가을 운동회

이혜민(서울 잠전 초등학교 3학년 2반)

핑! 핑!
가을 운동회
노오란 은행잎과

바알간 단풍잎도
신이 나서 춤을 추네.

신나는 가을 운동회에
고추 잠자리가 놀러왔네

하늘은
운동회 소리가
시끄러워서
높이 높이 올라가 버렸네.

가을 친구들과하는
즐거운 가을 운동회.

<동상>

어머니

김한솔(담양군 고서 초등학교 5학년 1반)

열감기에 걸려
잠을 설치는 나를
범새 병간호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눈물이 난다.

문득 눈을 떠 보니
어머니는 마음 아파 하시면서
하품을 하시고
머리 위 수건을 갈아주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

아침 햇살이 떠 오르면
난 어머니의 서량약으로
신기하게도 도 이상 아프지 않다.
어머니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고마움에 눈물이 난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 문득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면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에
내 가슴은 따뜻해 지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난 어머니께 해 드린 것도 없는데...
생각을 하며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난 가짐만 할 뿐...
실천을 하지 못하는 내가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으로 불러본다.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동상〉

아빠는 멋진 요리사

박현미(광주 동림초등학교 5학년 6반)

내 동생이 폐렴으로
입원하던 날 저녁.

부엌은 소란스럽다.

-선미야, 현미야
간장어디냐?
아빠의 물음에
대답은 한결같이
-몰라!

답답한 아빠
엄마에게 전화하고

우여곡절끝에 완성된
요리는 김치찌개.

입에 막 들어갔을땐,
짜고 매웠지만
새콤하고 톡 쏘는맛에
땀 흘리면서도
밥을 두그릇이나 먹었다.

-그렇게 맛있어?
-응, 엄마가 한것보다
100배 더 맛있어.
아빠표 김치찌개 짱!!

〈동상〉

아빠의 얼굴

박현미(광주 동림초등학교 5학년 6반)

노오란 약자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우리 아빠

얼굴도 매끈하고
멋있는 우리 아빠

그러나 지금의
자고있는 우리
아빠는
얼굴도 주글
손도 주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우리
세딸의 이불을
덮어주시고
나가는 우리아빠

세딸은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아빠는
천하무적

그 수많은 주름살
속에는 우리 아빠의
고생이 담겨있지

옛날에 매끈한
아빠보다 지금의
주글한 아빠가
더 좋아요!

<동상>

가을

정가연(곡성중영초등학교 2학년 4반 21번)

단풍이 울긋불긋
신이난 아이들
추석에
배, 사과, 밤이 맛있어서
토끼와 놀고

나뭇잎이 사랑사랑
바람에 날아다니는 단풍

아이는
활짝 피어난 꽃
예뻐서 웃고 있는 아이들
놀까말까 재미있게 놀고

동물이 하나도 없네
동생이랑 놀자.
동생도 유치원 가고없네
어떻 하나
엄마옆에서 놀자.

<동상>

가을 마음

성진우(서울중대초등학교 4학년 8반)

화창한 가을날
빨강계 물든 단풍을 보며
길을 걸으면 내마음을
빨강계 벽차오르고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며
길을 걸으면 내마음은
꽃들의 색깔처럼 화장을 한다.

쌀쌀 맞은 바람을 헤치고
길을 걸으면 내마음은
푸름 하늘로 뒤덮이고

나무들이 사랑사랑 춤을추며
길을 걸으면 내마음은
나무처럼 춤을춘다.

그렇게 마디 마디씩
내마음은 변해간다.

제7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며 참다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7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요강

주최 곡성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 곡성군

공모자격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공모부문

- 글짓기부문 : 장르 구분 없이 응모 가능
- 그림부문 : 장르 구분 없이 응모 가능

공모주제 자유

공모요령

- 완성된 작품 1부
- 학교 · 학년 · 성명 · 주소 · 연락처 기재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음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단체 및 개별접수

접수기간 2006. 9. 20 ~ 10. 20(예정)

접수처

- 1) 방문접수시 : 곡성군 곡성읍 곡성군민회관 본관 뒷편 우측에 위치
- 2) 우편접수시 : 우)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4 곡성문화원 사무국

심사위원 각 분야별 권위자 위촉

발표 2006. 11. 10(예정)

- 1) 곡성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gs-culture.or.kr
- 2) 전국문화원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ccf.or.kr

문의처 곡성문화원 사무국 전화 061)362-0890, 363-7300

시상내용

| 구분 | 훈격 | 수량 | 수량 |
|-----|---------------|-----------|-----------------------|
|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대상 | 1명 (각 부문) | 상장 · 상패 · 부상(50만원 상당) |
| 금상 | 전라남도지사상 | 1명 (각 부문) | 상장 · 상패 · 부상(25만원 상당) |
| | 전국문화원연합회대상 | 1명 (각 부문) | 상장 · 상패 · 부상(25만원 상당) |
| 은상 | 곡성군수상 | 1명 (각 부문) | 상장 · 상패 · 부상(10만원 상당) |
| | 전·문·연 전남도지회장상 | 1명 (각 부문) | 상장 · 상패 · 부상(10만원 상당) |
| 동상 | 곡성문화원장상 | (각부문 다수) | 상장 · 상패 · 부상 |
| 장려상 | 곡성문화원장상 | (각부문 다수) | 상장 · 부상(50만원 상당) |

문화곡성 통권 6호

발행인 양병하
편집인 조준원
발행처 곡성문화원
발행일 2006년 2월

기획·진행 조준원
교정·교열 배숙영
디자인 위드디자인
인쇄 형제인쇄

주소 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776-4

홈페이지 www.gs-culture.or.kr

전화 061. 362. 0890

팩스 061. 363. 7300